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연구 책임 양 정 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 지 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연구 지원 황 나 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혜 순

발 행 일 2024년 6월 30일

발 행 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 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32-664-0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발 간 사

일본에서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hikikomori)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는데, 청년 히키코모리가 50대가 된 현 시점에도 은둔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80대 부모의 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5080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이제 '은둔' 혹은 '고립'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관심은 특별히 청년층의 실업과 좌절 그리고 은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청년의 은둔은 이미 청소년기의 부적응, 부등교, 정신적인 어려움과 같은 많은 청소년기의 생애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고립 및 은둔의 경험은 청년기로의 생애적 이행과 과업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미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논평을 주신 평가위원들, 조사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방법론과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흔쾌히 자문해 주신 학계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각 시군의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대안학교 등 각 기관의 대표님들과 종사자분들께도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지면을 빌려 전합니다. 간담회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관련 사업을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신 재단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포럼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토론을 벌여주신 유민상 박사님, 전현철 교감님, 진종순 센터장님, 국중범 경기도 의원님, 윤미영 경기도 청소년자립보호팀장님, 그리고 토론장을 가득 메워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설계에서부터 보고서의 발간까지 본 연구를 책임지고 완수한 책임연구자 양정선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김지민 명지전문대학교교수, 그리고 연구지원을 맡은 황나리 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내부 검독과 자문 의견을 보내어주신 재단 내부 연구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이 향후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자신의 방문과 대문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4년 6월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본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명시됨. 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 ‘은둔형 청소년’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은둔은 27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은둔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에 의한 판별 개념임.
- 청소년기의 고립 및 은둔의 경험은 청년기로의 생애적 이행과 과업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미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련 연구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둬م.

나. 연구내용

-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함.
-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고립 및 은둔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를 조사하였고,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정책을 검토함.
-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기초하여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제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학술지,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자료 등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진행함.
- 양적 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경기도의 14~24세 청소년 1,200명을 목표 대상으로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의 표본을 목표로 함.
- 본 조사의 목적은 기존의 타 연구들과는 달리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은둔형 청소년의 양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은둔 경험 및 현재의 은둔과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음. 이 밖에도 성별, 교급 또는 연령, 지역(도시, 농촌 및 도농복합)을 중심으로 쿼터 할당하였음.
- 이러한 표본 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조사 결과를 경기도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며, 조사 결과의 해석과 인용 상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함.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고립 및 은둔의 발현, 조사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및 조사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14~24세로 한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둔의 개념과 측정은 2가지임. 첫째,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자기 보고식에 의한 경험 유무를 뜻함.
 - 은둔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고, 친구를 1명 이하로 두고 있다는 포레 관계의 설정 역시 두지 않았음. 다수가 등교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연령의 특성 때문에 3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서도 심각한 은둔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서도 은둔의 특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음.

- 두 번째 은둔의 개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사용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척도임.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음.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잠재적 위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그리고 은둔의 경험 및 잠재적 위험을 지닌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보호자 5명을 목표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한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면접 내용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조사 영역의 큰 틀을 기초로 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그리고 서면자문을 거쳐 실태조사의 척도와 변수를 설정하였고, 조사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음. 자문과 간담회는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았고, 총 14회의 회의 및 서면자문 형태를 취하였음.
- 최종 보고서의 마무리 이전에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2.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은둔과 고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이 부재함이 드러났으며, 연구자마다 은둔과 고립의 개념을 제각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개입을 위한 가이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정의하기 위해, 은둔의 전제 조건, 기간, 장소, 활동, 친구상태, 심리적 상태까지를 담고 있음.
 -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은둔의 개념 정의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에 해당하였으며,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명시도 두었고, 자신의 방이나 집 안으로 공간을 한정하며, 친구는 1명 이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있었음. 학업이나 직업 등의 활동은 없어야 하고,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첨부됨.
- 연구의 과정에서 은둔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정의 내리면서 외출을 허용하되, 그 전제 조건을 명시한 연구도 있음.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에서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간혹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하고,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 활동을 할 때에는 외출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외출'까지는 허용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음.

-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의한 연구에서는(김춘남 외, 2018) 이러한 비자발성의 원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의 배제되는 상태'로 개념을 차별화하기도 함.
- 유민상 외(2021)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교류가 불가능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고립을 개념화함에 따라 박찬웅 외(2020)는 한 가지 차원에서 고립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고립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도 하였음.
- 차주환 외(2023)은 공간적 고립(은둔)과 사회적 고립(관계)의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거나 또는 하나의 개념만 활용되고 있어 통합적인 차원에서 은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가 없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음.
- 유민상 외(2021)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은둔형이라는 단어가 자의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용어 자체가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둔형 외톨이 용어는 고립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매우 사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기술함.
- 은둔과 고립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 등이 은둔과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경험, 학업 및 진학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부모의 과잉 보호 및 방임 등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이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남.
- 청년 대상 연구인 경우 특히 취업 변인은 은둔 및 고립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은둔-사회활동-재은둔'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촉발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하였음.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진로의 발견으로 은둔을 탈피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 열악

한 노동환경과 지위에서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면서 다시 고립생활로 들어가고, 가족과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청년을 내보내는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형성하게 함.

- 은둔과 고립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대규모 실태조사에 근거하였음.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가구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들 조사 대상자 중 고립·은둔 성향의 청년과 부스터 샘플조사를 통해 과거 고립·은둔의 경험 있거나 현재 고립·은둔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실태를 보여주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유민상·신동훈(2021))」는 승인 통계의 표본을 사용한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고, 양적연구 외에 문헌연구, 질적연구,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한 기본계획 성격의 정밀한 연구를 보여줌.
-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연구」는 미취업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청년 20,285명이라는 대규모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는 전국 최초로 유효 표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다른 대규모 조사들과는 달리 특정 연령이나 집단을 겨냥하지 않은 채 그 현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지자체의 조사보다도 늦었다는 한계점을 갖지만, 고립·은둔 청년만을 타겟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첫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이렇게 실시된 대규모의 조사들은 은둔과 고립의 개념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두 다양하게 충화되었지만, 결과의 일반화에서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를 유도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님.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개발은 단순히 은둔과 고립의 특성을 파악하는 학문적 영역에서 더 나아가 은둔과 고립의 예방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음.

3.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가. 전체 청소년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에 응한 1,242명 중 59.4%가 여자청소년으로 남자청소년 응답자(40.6%)보다 많았고, 연령 집단별로는 17~19세 청소년(54.4%), 20~24세 청소년(26.4%), 14~16세 청소년(19.2%)의 순이었음.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청소년이 76.4%였고, 도농 및 농촌 지역 거주 청소년이 23.6%였음.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716명(57.6%)이었고,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526명(42.4%)이었음.
-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던’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7.3%에 해당하는 463명의 청소년들이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기서의 은둔 경험은 기간적 설정을 주지 않은 포괄적인 질문이었으며, 본인이 인식한 주관적인 개념임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59.4%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31.6%였으며, 아무 곳에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였음.

2) 은둔의 경험

-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을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지역, 조사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여자청소년, 17~19세 청소년, 지역상으로는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고, 특히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 중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54.8%였음.
- 은둔의 경험이 있는 463명을 대상으로 은둔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21.2%), 3~6개월 미만(1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9.2%나 되었음.

- 은둔 기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조사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은둔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73.2%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26.7%)은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은둔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은둔의 경험을 갖게 된 주된 이유 1순위로는 3명 중 1명 꼴로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응답(33.3%)하였고, 그 뒤를 이어 대인관계 어려움(19.7%), 학업관련 어려움(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관련 어려움, 여자청소년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연령별로는 14~16세 청소년이 타 연령 집단에 비해 가족 관련 어려움, 17~19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높았음.
 -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향후 정책 추진 시에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20~24세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직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9.8%(1~3순위 합산)에 이르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졌던 특성 즉, 청소년기의 은둔 경험이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여주었음.

3) 일상생활

-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스마트폰(31.6%)이었으며, 수면(15.5%), 동영상 보기(13%), 인터넷 게임(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 연령이 어린 청소년, 도농 및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여자청소년(36.7%)은 SNS를 더 많이 하였음. 도시 거주 청소년들은 수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건강과 밀접한 식사생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일 3회 식사를 모두 먹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명 중 1명(33%)에 불과함.
 - 남자청소년, 연령이 어린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 규칙적이었

고, 은둔 경험은 현재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1일 1회만 식사하거나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는 불규칙한 식습관(31.2%)을 남긴 것으로 가늠됨.

- 평소의 식사 방식은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55.8%였으며,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 31.9%, 혼자 방에서 먹는다 12.3%로 나타났다.
- 남자청소년, 나이가 어린 청소년,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 조사지가 학교인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7%)이 방에서 혼자 먹었음.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7.4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 중심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 수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음.
- 은둔의 경험은 식사 및 수면과 같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식사와 수면은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기초가 되므로, 은둔의 경험 여부는 청소년들의 현재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3.2%가 거의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대화한다 23.3%,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12.5%,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1%로 나타났다.
- 가족과의 대화 정도는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 대화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패턴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1%) 꼴로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거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상생활의 어려움

-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에 해당하는 223명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족관련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 성적, 학업중단, 진학 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학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 17~19세,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음.
- 취업실패 또는 실직 등과 같은 직업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후기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음.
-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26.4%)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4점 척도로 어려움을 분석하였을 때, 여자청소년, 17~19세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음.
- 일상생활에서 외로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3.7%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더 유의미하게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변수 중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이 2.71점으로 가장 현저하게 높았음.
- 문화·여가활동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느끼고 있었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처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음.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음.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단절되었던 은둔의 경험은 현재 체감하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용돈 및 생활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여자청소년, 20~24세 집단,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음.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반수 가까운 49.1%의 응답자가 일상 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 24.2%와 큰 격차를 보였음.

5)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 과거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1명(24.2%)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카이검증 결과, 여자청소년, 20~24세 집단,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심각한 폭력에 대한 경험과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2%와 8.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심각한 폭력과 학대의 경험은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각각의 경험이 더 많았음.

6) 주관적인 행복감

- 주관적인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73.6%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고, 27.1%가 무기력함을 표출하였으며, 22.4%가 장래를 비관적으로 인식하였음.
 -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 유경험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이 낮고, 무기력감은 높았으며, 장래에 대한 생각은 비관적이었음. 특성 중에서 가장 극단의 평균 점수를 보이는 변수는 은둔경험의 유무였음.
-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34.9%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11.1%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음. 연령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의미하였는데,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

둔 유경험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많았음.

-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7.8%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인 22.2%의 청소년들이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줌.
-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자살위험을 높이는 주요 변수(이수비 외, 2022; Daniel and Goldston, 2012; 조미형·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부담, 학업중단, 성적 등과 같은 학업문제(21.9%), 가족 간의 갈등(15.7%)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24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연령 집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느끼는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입직의 시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줌.
- 연령이 가장 어린 집단인 14~16세 집단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동료 및 선배와의 갈등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 및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연령임을 보여주었음.
-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30.6%) 응답자들은 도시지역(20.0%)과 비교하여 학업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청소년들의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지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7) 관계, 교류, 지지 자원

-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4%)이 1순위로 어머니를 꼽았고, 친구(25.4%), 아버지(17.4%)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174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명 중 1명(24.8%)이 주변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대다수인 87.3%와 73.6%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두 개의 조사 모두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그리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및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응답하였음.

- 가족은 청소년들의 첫 번째 보호망이자 지지 자원이 되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본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미시적인 환경인 양육자와 가족이 청소년의 지지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줌.
 - 양육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양육자 및 가족을 자신들의 보호망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동시에 필요할 것임.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과 체계의 촘촘한 구성 및 기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숙고가 필요함.
-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조사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 78.3%의 청소년들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4점 척도 상에서 연령이 가장 낮은 14~16세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는 다른 모든 특성 변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족의 지지 자원에서 보여주었던 특성처럼 또래 지지 자원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줌.
- 전체 조사대상자 중 81.7%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고, 87%의 응답자는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각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음.
-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85.5%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 중 1명(24.2%) 정도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위기 시

손을 내밀 사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었음.

8) 상담과 지원

- 과거에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담의 경험은 모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경험의 차이를 보였음.
 -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더 많았음.
- 상담을 받은 청소년 422명 중 상담 이후 좋아졌다는 응답이 60.9%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9.1%였음.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남자청소년,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상담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삶과 생활이 어느 정도 힘든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 이상(36%)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음.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상담 받을 의사가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많았음. 청소년 기관에 대한 접근 경험이 있거나 은둔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더 힘든 청소년들의 상담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청소년(25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중복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2.5%가 답변한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로 나타나 현재의 문제와 상태의 호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부정적임을 보여주었음.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57%)',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37.8%)'의 순이었음.
- 한편 응답자 5명 중 1명(21.1%)은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고 응답하였고, 14.7%의 응답자는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보의 부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상담 서비스의 제공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본인이 담당 센터로 찾아가는 센터 방문(49%)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상담(31.1%)을 원하였음.

-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 중심,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센터방문을, 남자청소년,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비대면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센터의 방문 경험이 있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것들이 용이한 반면, 교통환경이 수월하지 않은 곳, 센터 방문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비대면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9) 정책욕구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함. 여자청소년, 20~24세,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희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집단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희망도 더 강함을 알 수 있음.
- 정식취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정식취업을 희망했는데, 앞선 아르바이트에 대한 조사와는 다르게 후기 청소년, 도시 거주,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도시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추측되며, 센터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경쟁의식을 보다 민감하게 체감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57.7%가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는데, 여자청소년, 조사지가 센터 중심의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 학업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0.2%가 지원을 희망하였고, 여자청소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에게서 학업지원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 직업훈련이나 학업적 지원이나 모두 여자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강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학업적 지원을 더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지에 따른 차이는 현재의 자신의 소속이나 상황에 따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됨.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자청소년들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책적 욕구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음.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8%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들이 지지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였음.
-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는 욕구는 여자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음.
- 전체 조사대상자의 92%가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고,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강한 욕구를 보였음.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느꼈던 집단에서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결과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와 시설 조성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줌.
 - 외로움 및 우울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현재의 행복수준,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 등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던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의 또래 모임 또는 자조 모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수인 51.5%가 욕구를 보였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인 57.7%가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음.
- 고립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7.1%)였고, 그 다음으로는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26.5%)이었으며,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2.6%),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12.3%), 또래와 함께하는 모임, 활동지원(11.6%)이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음.

나. 은둔형 청소년 분석 결과

1)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한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

- 본 연구에서는 차주환 외(2023)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은둔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조사에 사용하였음. 스크리닝 척도는 사회단

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문항별 0~4점 범위)임.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든 영역에서 절단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총 1,242명 중 83명(6.7%)이 은둔형 청소년으로 분류되었음. 83명 중 남자청소년이 29명(34.9%), 여자청소년이 54명(65.1%)이었음. 연령별로는 14~16세가 8명(9.6%), 17~19세가 51명(61.4%), 20~24세가 24명(28.9%)이었음.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73명(88%)였고,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10명(12%)이었음. 조사지가 학교인 청소년이 23명(27.7%)이었고 조사지가 센터인 청소년이 60명(72.3%)이었음.
- 83명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은 25명(30.1%)이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을 둔 청소년은 과반인 43명(51.8%)이었음. 학교나 시설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2명(14.5%)였고, 상담복지센터(9명, 10.8%)나 사설 상담기관(4명, 4.8%)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었음.

2) 은둔형 청소년의 과거 은둔경험

- 은둔형으로 판별된 청소년 중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7.6%에 이르러, 현재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미 과거에 은둔의 경험을 거친 재은둔의 상태이거나 혹은 과거의 은둔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음.
- 은둔형 청소년은 과거 은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3명, 40.7%), 6개월~1년 미만(17명, 21%), 3~6개월 미만(14명, 17.3%)의 순으로 나타났음.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간(40.7%)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현재 은둔형 청소년이 아닌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3개월 미만의 단기간(60.2%)이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은둔의 기간이 길었던 청소년들이 현재 다시 은둔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은둔을 하였지만 은둔 기간이 단기로 끝났던 청소년들은 현재 은둔의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추됨.
-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이 과거에 은둔을 경험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정신적 어려움(41명, 50.6%), 학업관련 어려움(13명, 16%), 대인관계 어려움(12명, 14.8%)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현재 은둔 상태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은둔을 경험한 이유가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음.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간 은둔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다시 은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유추할 수 있음.

3) 은둔 판별의 하위요인 특성

-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단절 및 고립’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8.7%였으며,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이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한다는 응답은 대다수인 94%로 나타났다. 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가 68.7%, 가족이 없을 때에만 움직인다는 응답자도 과반인 56.6%로 나타났다.
- 하위요인 중 ‘회피’에 관한 문항 중에서는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는 문항에 86.7%,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91.6%),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누군가와 연락하는 일이 별로 없다(86.7%), 친구가 거의 없다(90.4%),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73.5%)의 응답 분포를 보였음.
-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91.6%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음. 방을 정리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응답이 74.7%,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4)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 은둔형 청소년들이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SNS)이었고(25.3%), 수면(21.7%), 동영상 보기(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면과 동영상 보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 은둔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4명 중 1명(26.5%)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무기력함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무기력함을 야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보여주었음.
- 은둔형 청소년들은 때를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44.6%) 생활패턴을 보여

아직 발달을 멈추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불균형하고,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임을 보여주었음. 과반수인 53%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식사는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33.7%는 혼자 방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음.

-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하여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인 86.7%가 혼자 식사하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3명 중 1명 이상(33.7%)은 혼자 방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면, 식사,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방으로 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줌. 집 안에서도 자신의 방을 경계로 하여 그 경계의 넘나들이 매우 한정적임을 보여주었고, 은둔형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은둔형 청소년들의 평균 8.24시간 수면하였는데, 9시간 이상 잠을 잔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 은둔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이 방 안에서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의 선택지에 한계가 있어 과수면을 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과수면의 활동으로 유추됨.
-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9%,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45.8%에 이르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시기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관계의 형성이나 교류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고립의 상태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었음.
-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였으며, 은둔형 청소년의 42.2%가 여기에 해당했음.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6%)를 포함하여 45.8%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보여주었음. 가족 관계의 회복 역시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함.

5)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는 59.1%로 나타났고, 이는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15%)의 4배 가까운 수치였음. 가족관련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은둔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은둔으로 인해 파생되거나 배가된 결과일 수도 있음.

-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77.1%,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63.8%였음. 특히 학업관련 어려움, 직업관련 어려움의 경우 4점 척도 중 '매우 어렵다'로 느끼는 극단치의 값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함을 보여주었음.
- 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77.1%였고, 외로움, 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은둔형 청소년은 91.5%에 달하였음.
- 거의 모든 은둔형 청소년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매우 어렵다'는 극단치의 응답이 61.4%에 달해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와 서비스가 매우 우선적이고도 시급함을 보여주었음.
- 일상생활 중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65.1%로 은둔으로 인한 생활상의 제약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청소년 시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됨을 보여줌.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과반인 55.4%로 나타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둔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과 집으로의 한정된 생활이 신체적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용돈의 부족이나 생활비의 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69.9%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은둔의 성향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음.
- 일상생활의 유형별 어려움을 4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정신적 어려움(3.49점) > 대인관계 어려움 / 학업관련 어려움(3.11점) > 경제적 어려움(2.99점) > 직업관련 어려움(2.78점) > 문화·여가활동 어려움(2.71점) > 가족관련 어려움 /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2.59점)의 순이었음.

6) 은둔형 청소년의 과거 부정적인 관계 경험

-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62.7%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험은 16.9%였으며, 부모(보호

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28.9%였음.

-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과거에 친구나 또래 모임,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확률이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가 현재의 은둔 성향을 가져오게 된 다양한 요인 혹은 원인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7) 은둔형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감

- 현재의 행복감에 대해 77.1%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절대 다수인 94%가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래에 대해서는 75.9%가 비관적이었음. 현재의 상태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미래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비관적 인식이 다수를 접하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 1년 동안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해서는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49.4%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30.1%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함. 그 주된 이유로는 ‘미래(진로, 취업 등)에 대한 불안’(36.4%)으로 나타났고, ‘우울, 무기력 등의 정신적 문제’(16.7%), ‘가족 간의 갈등’(15.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 가족관련 어려움은 여타의 어려움에 비하여 후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자살관련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과의 갈등 상태가 심한 경우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함을 주지해야 함.

8) 은둔형 청소년의 관계, 교류, 지지 자원

-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67.4%이었고, 38.6%가 가족 및 타인과의 교류에서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3명 중 1명 이상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교류에 있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는 높은 빈도는 관계의 범위를 감소시키거나 차단, 혹은 단절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성향이 표출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34.9%)이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보여줌.

-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는 ‘없다’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음. 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은 자신의 지지체계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주었음.
-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18.1%), 친구(13.3%),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10.8%)의 순으로 나타남.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34.5%), 친구(26.2%), 아버지(18.4%)의 순으로 부모(어머니+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52.9%에 이른 반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아버지를 꼽은 비율은 3.6%에 그쳐 부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21.7%에 그쳤음.
- 은둔형 청소년의 61.5%가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31.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앞서 살펴본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상대적인 격차를 보이는 응답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내 문제를 직접 가족 앞에 꺼내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응답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음.
-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51.8%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68.6%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은둔형 청소년의 53%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고, 57.8%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9) 은둔형 청소년의 상담과 지원

-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66.3%가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상담을 받은 사람 중 좋아졌다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34.5%에 그쳤음. 그러나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담 후에 좋아졌다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64.8%에 달해,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숙고가 필요함.

- 은둔형 청소년의 대다수인 74.7%는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고, 그 중 과반인 54.8%가 현재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85.7%)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53.6%),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28.6%)의 순으로 그 이유를 표출하였음. 상담 서비스 방법은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련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음.

10) 은둔형 청소년의 정책욕구

- 아르바이트 72.3%, 정식 취업 69.8%, 직업훈련 63.9%, 학업(공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지가 필요 75.9%의 응답을 보임.
- 77.2%의 응답자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고 표명하였으며, 91.6%의 응답자가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피력하였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갖고 싶다’ 49.4%가 동의하였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53%가 의사를 표명하였음.
-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욕구를 4점 척도 상에서의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고, 2순위는 가족의 지지(3.1점)였으며, 3순위는 학업지원(3.07점)으로 나타남.
- 고립 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33.7%)이었고,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1.7%),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6.9%)으로 나타났음.

4.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면접조사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했던 이유는 복합적이었음.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우울과 무기력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가족과의 갈등 및 부모의 방관적 양육태도, 자존감 저하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음. 이와

더불어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은둔을 촉발한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면접 참여자들은 장기간 가정환경이 불안정하였음.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별 및 이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정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학급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했거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처가 있었음. 친한 친구와의 갈등경험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인관계를 단절하였음.
-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더는 등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나 은둔생활을 시작하였고, 학습, 외모 등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어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학교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잃어서 자퇴를 하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음.
- 청소년들이 은둔했던 기간은 7년이라고 응답한 한 명을 제외하고 3개월에서 2년까지였으며, 평균 은둔 기간은 1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은둔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청소년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가 가장 많았음.
- 은둔생활을 경험한 청소년 대다수가 자퇴를 선택하였고, 그 이후 은둔생활이 시작되었음.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더는 다니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자퇴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 어려움, 불안정한 가정환경, 은둔 성향 존재, 그리고 전학 후 부적응이 언급되었음.
- 면접 참여 청소년이 자퇴를 선택했을 때 수용해주는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으로 구분되었는데, 자녀의 선택을 수용한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청소년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자퇴 선택을 지지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여 청소년이 위로를 받았음. 청소년의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였음.
- 은둔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생긴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경우, 정신과 의사, 상담사,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절박한 상황이 생겨 외적 동기로 은둔생활을 청산하였음.
- 내적 동기를 자세히 보면,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은둔생활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묘사함. 방 안에서 지내는 동안 위기를 승화시켰는데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룩하여 은둔생활을 벗어나게 된 경우도 있었음.
-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거나 해당 센터에 나가게 되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와 같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가 은둔생활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집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을 은둔 생활을 더는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식사 및 수면 습관을 살펴보면 식사 횟수는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는 취침 시간이 늦은 밤이나 새벽이었고, 기상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안에서 하는 주된 활동으로는 유튜브 시청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세상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음.
- 은둔생활 동안 참여 청소년들은 무기력으로 아무런 목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내거나 자해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양상은 우울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은둔생활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불규칙적으로 보내는 면접 참여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심리문제와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충분치 않았는데,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가족 간 관계가 친밀하고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된 청소년의 경우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살관련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한 청소년은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명은 정신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하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어머니와의 갈등, 부모님과 의사소통 문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부모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업지원의 나이 제한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수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직업 관련 어려움으로는 그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신이 들지 않고 막연한 불안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그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현재 관계 유지를 하고 있으나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우울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정신적 어려움의 연장선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공황장애,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문화 및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았음.
-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는 은둔생활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패턴과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염려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5.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가.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

-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은둔의 결과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과 비용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 기본권 보장에 있음. 사회적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의 관점에 보다 주안을 두는 정책이어야 함.
- 예방과 발굴(지원)은 동시적 병행이 당연하지만 다수 대상 예방은 소수 대상 발굴의 선제적 조건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은 “은둔 성향이 발현되기 이전의 예방”에 1차적 목적을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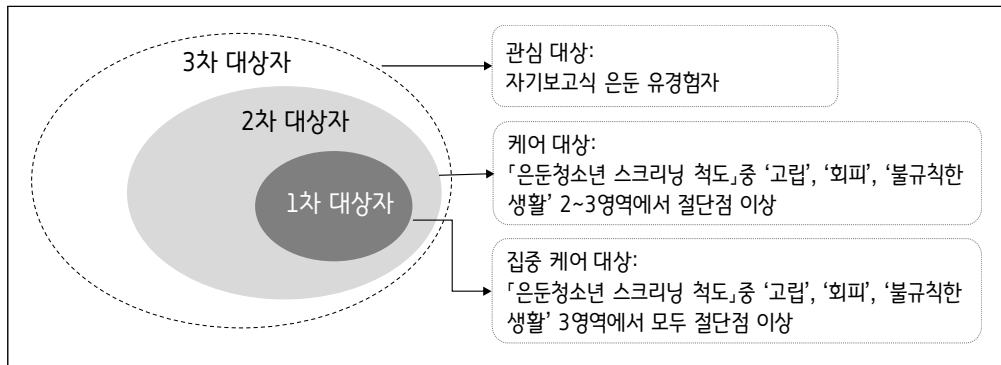
나.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1) 은둔의 판별과 서비스 총화 :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현장에서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은둔의 범위를 넓게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관심 대상으로 넓게 선정하고, 그 후에 케어 대상자, 집중 케어 대상자로 총화하여 서비스를 심화·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집중 케어 대상자의 경우 전

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수적임.

[서비스 대상자의 판별과 층화]



2) 1차 보호망인 가족의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가족 접근 서비스

- 본 연구 조사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던 결과에 기초할 때,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의 회복 역시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정서지원 역시 필수적이며, 아버지 교육은 매우 중요함.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가족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 방식인 상담, 교육, 자조모임의 형태를 취하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함.

3)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차별화

-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연령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차별화
- 14~16세 : 가족관계 지원, 학업 지원, 또래 관계의 원만한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경기도 1318온코칭’ 사업으로 적극적인 연계와 홍보 필요
- 17~19세 : 정서적 지원(필요시 진단과 치료 연계)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진로 체험과 교육,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 20~24세 : 미래의 불안감을 낮추고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진로체험, 직업역량강화, 자립기술훈련, 직장체험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4) 경제적 지원

-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시급성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꿈울림 카드는 출석 요건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고 있으나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센터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므로, 지급 조건 중 출석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이 밖에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중복·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을 고려해야 함.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사회로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정책적 보완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

5)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 공간 조성

-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은둔형 청소년 성향과 지역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과 주민복지센터 내 작은 공간, 농촌지역의 폐가 및 폐교를 활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사업 중 마련된 공간 일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먼저 조성하는 가안을 제안함.
- 청소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담 대상 1순위는 ‘또래 친구’라는 사항을 반영한 ‘솔리언또래상담’처럼 사이버 공간 상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한 공간에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원이 필요함.

6) 거점기관의 역할

-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지속성과 규모, 데이터의 관리와 추적 관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고려할 때 거점기관이 필요함.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간을 거쳐 검증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통해 시범적 운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함.
- 거점 기관의 기능과 역할 : ① 은둔형 청소년의 예방과 발굴,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 ② 발굴된 은둔형 청소년의 데이터 관리, 사후 관리, 추적 관찰 ③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인력 풀 구축
-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예방 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센터 지원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7)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진 방지

-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임.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협업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추구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은둔형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서비스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함. 이는 종사자의 소진 가능성과 우려를 낳으므로 종사자의 소진 방지 사업이 필요함.

8)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

- ①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대상 :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영상과 콘텐츠 제작으로 판별과 서비스 연계의 역량을 제고함.
- ② 학부모, 교사, 청소년 등 모든 도민 대상 홍보와 인식개선 : 도민의 인식과 판별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홍보에 주력함. 더불어 청소년의 은둔은 ‘병리적 이탈이 아니며’, 발달과업을 완수해가는 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다름’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 영상, 웹툰,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로 배포함.
-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청-교육청-학교-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임.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제2장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은둔 및 고립의 개념 정의 및 원인	11
2. 은둔 및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3. 은둔 및 고립 관련 사업을 위한 연구	18
4. 대규모 실태조사	21
가.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1
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	22
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2021)」	24
라.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연구」	25
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	25
5. 시사점	27

제3장 은둔형 청소년 자원의 제도적 기반

1. 은둔 관련 조례	33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33
나. 기초자치단체 조례	37
2. 고립 관련 조례	39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39

나. 기초자치단체 조례	40
3. 은둔(고립)에 관한 정책	41
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여성가족부)	41
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보건복지부)	45
다.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	50
라.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52
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53

제4장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57
2. 일반적 특성	58
3. 은둔의 경험	60
4. 일상생활	65
5. 일상생활의 어려움	72
6.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79
7. 주관적인 행복감	82
8. 관계, 교류, 지지 자원	91
9. 상담과 지원	97
10. 정책욕구	103
11.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한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	114
가. 과거 은둔의 경험	115
나. 은둔 판별의 하위요인 특성	116
다. 일상생활	118
라. 일상생활의 어려움	122
마.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128
바. 주관적인 행복감	129
사. 관계, 교류, 지지 자원	131
아. 상담과 지원	136

자. 정책욕구	140
12. 소결	145
가. 전체 청소년 분석 결과	145
나. 은둔형 청소년 분석 결과	154

제5장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면접조사

1. 면접자 일반적 특성	165
2. 은둔 이유	167
가. 복합적인 은둔 이유	167
나. 은둔을 촉발한 가정환경 요인	170
다.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171
3. 은둔기간·은둔시기 및 자퇴	177
가. 은둔기간과 은둔시기	177
나. 자퇴	178
4. 은둔생활 청산 계기	182
가. 내적 동기	182
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식	183
다. 정서적 지지	184
라. 외적 동기: 절박한 상황	185
5. 일상생활	186
가. 식사	186
나. 수면	187
다. 주된 활동	188
라.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190
마. 가족과의 대화	191
바. 자살관련 이슈	192
사. 가족의 일상생활, 부모의 은둔 성향 및 네트워크 정도	193
아. 일상생활의 어려움	194
6. 정책욕구	199

가. 적극적 홍보	199
나. 정서지원	200
다. 자립지원(사회성향상)	205
라. 진로 및 학업 지원	212
마. 자립지원(생활지원)	214
바. 건강지원(신체활동)	215
7. 소결 및 논의	216
가. 소결	216
나. 논의	221

제6장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	225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226
가. 은둔의 판별과 서비스 층화 :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26
나. 1차 보호망인 가족의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가족 접근 서비스	229
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차별화	231
라. 경제적 지원	233
마.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 공간 조성	234
바. 거점기관의 역할	235
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진 방지	237
아.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	238

참고문헌	241
-------------------	------------

표 목 차

[표 1-1] 조사 영역 및 변수	7
[표 3-1] 광역자치단체 ‘은둔’ 관련 조례	33
[표 3-2] 기초자치단체 ‘은둔’ 관련 조례	37
[표 3-3] 광역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39
[표 3-4] 기초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40
[표 3-5] 기초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41
[표 3-6]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 과제	54
[표 4-1] 응답자 특성	58
[표 4-2] 이용기관 현황(복수응답)	59
[표 4-3]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	60
[표 4-4] 은둔 경험의 가장 주된 이유(1순위)	62
[표 4-5] 은둔 경험의 가장 주된 이유(1~3순위)	64
[표 4-6]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66
[표 4-7]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3순위)	67
[표 4-8] 하루 식사 횟수	68
[표 4-9] 평소 식사 방식	69
[표 4-10] 하루 평균 수면시간	70
[표 4-11]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	71
[표 4-12] 학업관련 어려움(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73
[표 4-13]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	75
[표 4-14] 외로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76
[표 4-15] 경제적 어려움(용돈의 부족, 생활비 부족 등)	79
[표 4-16]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80
[표 4-17] 현재 행복수준	83

[표 4-18]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무기력하다	84
[표 4-19]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85
[표 4-20]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	86
[표 4-21]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87
[표 4-22]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	88
[표 4-2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순위)	89
[표 4-24]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3순위)	90
[표 4-25]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94
[표 4-26]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	98
[표 4-27] 상담 후 변화 정도	99
[표 4-28] 현재의 삶과 생활 정도	100
[표 4-29]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02
[표 4-30]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	103
[표 4-31]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104
[표 4-32]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취업을 하고 싶다	105
[표 4-33]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	106
[표 4-34] 학업(공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	107
[표 4-35]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	108
[표 4-36]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109
[표 4-37]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110
[표 4-38]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	112
[표 4-39]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3순위)	113
[표 4-40] 응답자 특성	114
[표 4-41] 이용기관 현황(복수응답)	115
[표 4-42] 은둔 생활 기간	115
[표 4-43]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던 가장 주된 이유(1순위)	116
[표 4-44]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사회단절 및 고립	117
[표 4-45]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회피	117
[표 4-46]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불규칙한 생활방식	118
[표 4-47]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119

[표 4-48]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3순위)	119
[표 4-49] 하루 식사 횟수	120
[표 4-50] 평소 식사 방식	120
[표 4-51] 하루 평균 수면시간	121
[표 4-52]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	121
[표 4-53]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2
[표 4-54]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	122
[표 4-55] 현재 행복수준	129
[표 4-56]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무기력하다	129
[표 4-57]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130
[표 4-58]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	130
[표 4-59]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131
[표 4-60]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	131
[표 4-61] [현재 본인 상태] 나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132
[표 4-62]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132
[표 4-6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순위)	133
[표 4-64]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	136
[표 4-65]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여부 ..	136
[표 4-66] 상담 후 변화 정도	137
[표 4-67] 현재의 삶과 생활 정도	138
[표 4-68]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39
[표 4-69]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	139
[표 4-70]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	144
[표 4-71]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3순위)	144
 [표 5-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6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8
[그림 3-1]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여성가족부)	42
[그림 3-2]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46
[그림 3-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	51
[그림 3-4]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54
[그림 4-1] 은둔 경험 기간	61
[그림 4-2]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특성	63
[그림 4-3]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평소 식사 방식	70
[그림 4-4]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가족관련 어려움	72
[그림 4-5] 연령, 조사지,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직업관련 어려움	74
[그림 4-6]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77
[그림 4-7]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78
[그림 4-8]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의 경험	81
[그림 4-9]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82
[그림 4-10]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91
[그림 4-11]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93
[그림 4-12]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다	95
[그림 4-13]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	96
[그림 4-14]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여부 ..	97
[그림 4-15] 힘든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 정도	101
[그림 4-16]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	107
[그림 4-17] 가족관련 어려움(가족 갈등, 부모 이혼, 사망 등)	123
[그림 4-18] 학업관련 어려움(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123
[그림 4-19] 직업관련 어려움(취업실패, 실직 등)	124
[그림 4-20]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	124

[그림 4-21] 외로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125
[그림 4-22]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125
[그림 4-23]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126
[그림 4-24] 경제적 어려움(용돈의 부족, 생활비 부족 등)	126
[그림 4-25] 일상생활의 어려움	127
[그림 4-26] 은둔 성향의 청소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127
[그림 4-27]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그렇다 응답)	128
[그림 4-2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	133
[그림 4-29]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134
[그림 4-30]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134
[그림 4-31]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35
[그림 4-32]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다	135
[그림 4-33]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	137
[그림 4-34] 힘든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 정도	138
[그림 4-35]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140
[그림 4-36] 학업, 가족, 상담에 대한 욕구	141
[그림 4-37] 취미활동, 모임,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	142
[그림 4-38] 청소년 정책욕구	142
[그림 4-39] 학령기와 청년기 집단별 정책욕구	143
 [그림 6-1] 서비스 대상자의 판별과 층화	 22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적 관계의 단면과 특성을 보여주는 ‘은둔’ 혹은 ‘고립’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과거 사회적 고립을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상황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노인층의 문제로 인식하던 관점을 벗어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문정화, 2020; 이은영, 2018; 김숙향·맹진영, 2019; 김운민·김은정 2023에서 재인용).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대부터 사회적인 현상(hikikomori)으로 이슈가 되어 왔는데, 내각부에서 2016년 발간한 「청년 생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만 15-39세의 청년 가운데 541,000명(1.57%)이 은둔형 외톨이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시기는 24세 이하라는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내각부가 2019년 발표한 40-65세의 중장년층 집단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구가 610,000명(1.45%)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제세령 외, 2022).

은둔형 외톨이라는 삶의 현상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저하와 관계되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은둔형 외톨이 현상으로의 생애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단계에서 부적응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기술되고 있다(제세령 외, 2022). Kondo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들은 은둔이 시작된 후 치료를 받는 시점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 제세령 외(2022)는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 수준이 심화되기 이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선별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둔형 외톨이의 평가 과정에서 절단점은 민감도가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 청소년,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은둔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이들의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김춘남 외(2018)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관계망이 감소하며, 중국에는 외부 세계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외로움,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원인은 생애주기별로 다르며,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로 ‘은둔형 외톨이’를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춘남 외, 2018).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과업과 특성에 주안을 둔 ‘은둔형 부적응’의 개념도 있다. 이는 부적응 유형 중 비사회적이고, 위축된 형태를 일컫는 개념적 특성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세상을 피해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숨어버리는 이들이다. 자신들에게 있어 상처를 주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대상은 친구,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해당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단절 등 관계적 철회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가족들조차 청소년의 등교 거부 후 은둔 기간이 장기화된 이후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지승희 외, 2007; 양미진 외, 2007에서 재인용).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장기화되며, 문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집안이라는 자신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와 대인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지연된다는 사실이며, 청소년의 고립된 상황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발견과 지원이 어려운 점이다.

전국 최초로 은둔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던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은둔 생활을 청소년기에 시작했을 경우 성인기에 은둔 생활을 시작한 경우보다 더 빨리 은둔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역으로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고립 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고립 직전 혹은 초기에 어떻게 해서든 집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년 이상으로 장기화 되면 깊은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고립 및 은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3년 11월 현재 총 35건이 시행 중이며, 거제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입법예고의 상태에 있다. 조례 명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화성시 같은 경우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라는 명칭

을 사용하였다.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로 대상자를 청년으로 제한하였고, 경기도는 유일하게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하여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시행계획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자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 ‘은둔형 청소년’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은둔은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은둔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에 의한 판별 개념이다. 청소년기의 고립 및 은둔의 경험은 청년기로의 생애적 이행과 과업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미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련 연구와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둔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연구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 연구에서 다루는 은둔형 청소년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면, 은둔 및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척도와 변수를 마련하였다.

둘째,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고립 및 은둔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를 조사하였고,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 조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양적 조사는 경기도의 14~24세 청소년 중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쿼터 할당으로 구성된 1,200명을 목표 대상으로 하였고, 질적 조사는 은둔의 경험을 과거에 가졌었거나, 혹은 은둔의 성향을 현재 보이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연구내용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도출에 기초하여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학술지,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자료 등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 및 분석은 연구의 진행 방향과 실태조사의 체계를 구성하는 토대를 이루게 된다.

둘째, 양적 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의 14~24세 청소년 1,200명을 목표 대상으로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의 표본을 목표로 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기존의 타 연구들과는 달리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은둔형 청소년의 양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은둔 경험 및 현재의 은둔과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성별, 교급 또는 연령, 지역(도시, 농촌 및 도농복합)을 중심으로 쿼터 할당하였다. 이러한 표본 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조사 결과를 경기도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 점은 조사 결과의 해석과 인용 상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고립 및 은둔의 발현, 조사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및 조사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14~24세로 한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웹 서베이 및 1:1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변수 및 척도 [표 1-1]과 같다.

셋째, 청소년의 은둔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잠재적 위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그리고 은둔의 경험 및 잠재적 위험을 지닌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보호자 5명을 목표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한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면접 내용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조사 영역의 큰 틀을 기초로 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실태조사의 척도와 변수를 설정하였고, 조사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다. 자문과 간담회는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았고, 총 14회의 회의 및 서면자문 형태를 취하였다.

다섯째, 최종 보고서의 마무리 이전에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현장과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정책 수립 이후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표 1-1] 조사 영역 및 변수

조사 영역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역, 현재 소속, 주관적인 경제수준
은둔 경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은둔의 경험, 은둔 경험 기간, 은둔의 이유, 은둔성향 ¹ 은둔 스크리닝 ²
일상생활	집에서의 주된 활동, 식사 횟수 및 패턴, 수면 시간,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대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외부 연결망	친구, 의논 상대
주관적 삶의 질	행복감, 트라우마 경험, 죽고 싶다는 생각과 원인, 도움 요청 가능성, 여가 상대
상담과 지원	상담 경험과 변화, 현재의 상담 욕구, 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
정책욕구	경제활동, 훈련 및 학업, 가족 지원, 의논 및 상담, 취미활동, 자조 모임, 건강검진, 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주 1 : 은둔으로 인한 생활 특성

2 : 차주환 외(2023),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에서 개발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13문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설계	⇔	- 연구계획 수립 - 연구계획보고회, 보고회 결과의 반영	2023년 11월
2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회의	⇔	-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2023년 12월 ~ 2024년 2월
3단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사전준비	⇔	- 설문지 작성 - 조사기관 선정 - 심층면접 대상자 모집	2월
4단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 양적 및 질적 조사 결과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1~5월
5단계	포럼	⇔	- 중간보고회 및 회의 결과 반영 - 포럼 의견 수렴 및 반영 - 보고서 최종 집필	6월
6단계	보고서 완료	⇔	보고서 최종본 제출	6월



II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은둔 및 고립의 개념 정의 및 원인
2. 은둔 및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은둔 및 고립 관련 사업을 위한 연구
4. 대규모 실태조사
5. 시사점

1. 은둔 및 고립의 개념 정의 및 원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개입을 위한 가이드」를 펴내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의는 윤철경 외(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라 함은 정신질환 혹은 장애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이 3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 및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1명 이하로 둔 9~24세 청소년으로서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윤철경 등, 2021,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고 명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4가지로서 i) 현재 은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ii)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른다 iii)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을 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 iv) 은둔 요인이 지적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구성되며, 이상의 4개 문항에 대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둔의 계기 및 원인에 대해서는 i)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ii)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iii) 가정 내의 갈등 및 돌봄의 부재 혹은 부모의 과잉 통제·과잉 간섭, iv) 개인적 성향(수줍음이 많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에 민감한 청소년이, 충분한 지지 자원 없이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을 부딪혔을 때 은둔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v) 사회적 요인(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보편화, 외부 활동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불편함 및 거부감 감소,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들고 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조작적 정의로 가늠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생활을 3개월 이상 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첫째,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면서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둘째,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고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으며, 셋째,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간혹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하고, 넷째,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에는 외출한다. 또한 은둔생활의 계기가 신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춘남 외(2018)의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배경 및 원인을 살펴보면서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정책연구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 지역사회,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외로움,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

김춘남 외(2018)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생애주기별로 다르며, 아동·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고립의 형태로 ‘은둔형 외톨이’를 제시하였다. 국내외의 다수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 원인을 정리하였다.

① 부모의 원인 : 가족 간의 대화 및 감정적 교류 단절이 발생할 경우, 반대로 부모의 과잉보호 혹은 과잉통제가 있을 경우 내성적 성향이 강화되거나 자존감의 저하, 또는 위기 대처전략의 부족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심리적 요인 : i) 낮은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강하다. ii) 공격적 성향 : 공격적 성향과 사회적 고립 간의 인과적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두 변인 간에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경우 자기 방어 성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연구가 많다. iii) 우울 : 은둔형 외톨이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③ 또래 문제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 집단괴롭힘(bullying, 이지메)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분노, 불안, 외로움, 우울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으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어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민상 외(2021)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보편적 합의에 기초한 정의가 아직 없고,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 사회적 고립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를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보았다. 고립이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외적인 단절 및 내적인 단절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외적인 단절은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서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내적인 단절은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서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Zavaleta, Samuel, & Mills, 2017; 유민상 외, 2021에서 재인용).

박찬웅 외(2020)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로 개념화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적 고립을 생활 차원, 정서적 차원,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 가지 차원에서 고립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고립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양미진 외(2007)는 연구에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하지만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에 대하여 비사회적으로 위축된 부적응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기 보다는 상처 주는 세상을 피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고, 가족과의 대화 단절, 부등교, 친구들과의 교류 단절 등 관계적 철회를 보이며, 가족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상태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미진(2007)은 은둔형 부적응의 정도를 ‘사회성’ 개념 즉,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는 특성으로 평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은둔형 부적응의 수준을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 가능한 사회성 척도로 개발하였다. 한편 황순길 외(2005)는 ‘은둔형 부적응’에 대해 사회적 철회 성향을 보이며,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하며,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는 특히 더 청소년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등교거부, 은둔 등과 같이 부적응의 방식으로 가시화될 때에서야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들은 밖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른 세상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며,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고립된 현실적 상황에 있으므로 외적인 압력 없이는 통찰력을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립되어 살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는 기술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경험을 다루기 위해 실시된 류주연 외(2023)의 연구에서는 외부와의 관계가 축소 및 단절된 경험이 있는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이해하기 위해 19~34세 청년 11명을 인터뷰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5개의 대주제와 16개의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고립의 시작으로 보았다. 둘째, 청년에게 있어서 고립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며, 취업 실패 등에서 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셋째,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고립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의식하지 못하

는 사이에 서서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고립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섯째, 이러한 고립의 굴레를 끊기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형·고아라(2022)는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 명명해야 하는 청년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시작으로, 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저소득·구직 단념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척도 개발 연구」 자료 중 7명의 심층면접 자료와 137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시작된 시기, 사회적 고립에 이르게 된 이유, 고립된 상황에서 지내는 현재의 일상생활 모습, 이들 청년에게 일이 가지는 의미 등으로 범주화시켰고, 이를 통해 고립 청년들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기도 하였는데 학교 중퇴/졸업 이후부터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이들은 사회(가족, 직장, 친구)의 일원이지만 소속감 없이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취업 준비 부족, 건강하지 않은 신체 및 정신 등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자 결과였다. 연구자는 일을 통해서 규칙적인 일상이 생기고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노가빈 외(2021)는 청년층에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고립 및 은둔생활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 및 고립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고립 청년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은둔 및 고립 배경’, ‘사회·심리적 고립’, ‘은둔 및 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라는 총 3개의 주제와 더불어 하위 9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노동시장 및 경제구조 변화에 동반되는 노동 소외 현상이 청년들의 은둔 및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량해고, 저성장, 노동시장 유연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시대의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동시에 저임금 및 단기계약의 노동환경, 부당해고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이충한, 2018). 더불어 가정·학교·사회 전반에 만연한 경쟁주의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소진(burn-out)’이 누적되고,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와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철회하여 고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사회·심리적 고립이 은둔 생활을 유발한 원인으로 나타났

다. 양육자의 비공감적 태도, 학교 부적응, 친구들과 유대관계 형성 어려움 등으로 동질감 형성이 힘들고 가정과 학교에서 배제됨을 느꼈다.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은 금전적 이유로 인해 잦은 거주지 이동을 해야 했고,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기회 박탈로 이어졌으며, 정부지원금이 끊어지면 생존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들 5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은둔 기간 이후 장기간의 고립을 탈피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했지만, 다시 또 고립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은둔-사회활동’의 되풀이가 최초 은둔 이후부터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 되었다.

‘은둔-사회활동’이 되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및 진로 발견 등을 이유로 은둔을 탈피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 불합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육체적 소진되어 고립생활을 또 시작하고, 가족과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시 노동소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은둔-사회활동’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은둔 및 고립 현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철회로 인한 은둔 및 고립 생활은 그 특성상 한 번 시작되면 장기화·만성화로 이어지기 쉬웠다. 은둔 및 고립 생활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의 어려움은 자신의 은둔생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각하더라도 교류 및 관계 단절로 인해 고민을 토로할 상대가 부재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공포감이 내부적으로 확대되어 탈피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면서 은둔생활이 장기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둔 및 고립 생활로 형성된 부정적 자아상이 현재의 상황을 장기화·만성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홀로 은둔 생활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좌절과 자책이 증폭되어 자기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하였다. 무기력, 좌절감, 우울감, 불안감, 자책감이 지속·강화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은둔 및 고립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의 확대는 은둔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촉발점이 되었으며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노가빈 외, 2021).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립과 은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으로,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으로 정의내렸다. 보건복지부의 정의에서 고립 청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상 중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은둔 청년은 공간적 제약이 추가되어 마주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2. 은둔 및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여진·강혜영(2023)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문제중심 대처에 의해 조절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상에서 문제중심대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상에서 문제중심대처에 의해 조절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대답을 제외한 총 31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상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상에서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상에서 문제중심대처에 의해 조절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고립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 상담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고, 더불어 취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문제중심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강수현 외(2022)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과 외로움의 관계상에서 사회적 고립이 매개효과를 동반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매개효과를 지각된 학교풍토가 조절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B와 U광역시, G도에 소재한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822명을 대상으로 연구 변수들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반응적 공격성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 상에는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학교풍토는 반응적 공격성,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각각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외로움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사회적 고립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교풍토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여 긍정적으로 학교풍토를 지각할 수

록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로움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학교풍토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고립의 매개효과는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반응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청소년이 사회적 고립을 통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풍토를 긍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의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김은영·한승우(2023)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우울, 객관적·사회적 고립,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객관적·사회적 고립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객관적·사회적 고립과 회복탄력성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객관적·사회적 고립이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우울에 완전 매개 효과를 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객관적·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로나에 수발되는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울을 저감시키고, 회복탄력성처럼 긍정적 대처 효과를 보이는 요인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정인(2023)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30대 조사 표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은 감정적 고립, 외로움 등을 강조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지된 사회적 고립’으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사회적 고립’은 고립에 대한 감정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자살 생각, 외로움,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련된 3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자본,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20~30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대 청년들보다 20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대부분의 네트워크와 호혜성 변인들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는 20~30대 청년들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2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 형태 보다는 주관적인 경제 상황 안정성 인식이, 30대 청년들에게는 주관적인 경제 상황 안정성 인식 보다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취업 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30대 청년 모두의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는데 영향력을 보였다.

박찬웅 외(2020)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치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3세 이상, 163,33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 차원의 고립에는 가구원 수와 혼인상태가, 경제적 차원의 고립에서는 소득과 학력이, 정서적 차원의 경우 성별, 경제활동 여부,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응답자들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차원별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둘째, 고립의 차원별 요인에서 연령이 많고 사별 혹은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생활 차원의 고립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컸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 경제적 고립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컸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이 정서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진아·서미아(2022)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 되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성인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경험을 조명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 전통에 근거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간헐적으로 잠시 외출이나 일은 하지만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9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성인 자녀를 둔 50~60대 중반의 어머니 3인이었다.

총 6~7회의 심층면담을 연구 참여자와 진행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의미는 ‘비밀의 섬에 갇혀서’, ‘영킨 실타래’, ‘낯선 곳에서 방황’, ‘자녀에게 휘둘리는 삶’, ‘고달픈 순례길 위에서’로 집약되었다.

3. 은둔 및 고립 관련 사업을 위한 연구

양미진 외(2007)는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에서 은둔형부적응 문제의 예방과 개입전략 개발을 위하여 은둔형부적응 청소년들의 부적응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1차적으로는 문헌고찰과 면접조사, 히키코모리 행동 체크리스트(HBCL)에 근

거하여 총 97문항 척도를 구성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에 수정된 58문항 척도를 가지고 일반 재학생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 1,072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공격성, 대인예민성의 5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성척도를 마련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규명하기 위해 불안 척도와 사회적 회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표준화 절차를 통해 부적응 수준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를 가지고 총 4,540명의 자발적 응답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은둔형 부적응 수준별 현황을 파악하였다(양미진 외, 2009). 더불어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중 위험군 이상의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시키고 유지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이 위험군 이상에서 은둔형부적응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 부적응의 위험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는 학교부적응, 빈약한 친구관계, 가족 간의 갈등이며, 은둔형 부적응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철회, 가족의 지지 부족, 낮과 밤이 바뀐 생활, 공격성, 무력함 등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윤철경(2021)은 문헌조사와 질적연구 방법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한 인간관계로부터의 상처와 고립, 학교폭력 등 갈등 발생 시에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해 쌓인 분노와 답답함 등으로 학교생활의 활력이 저하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어느 시점에 중퇴를 하게 되고 이후 20대까지 은둔의 상태가 이어지며, 20대에 갑자기 촉발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연구자는 은둔형 외톨이 가족이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맞벌이 가정, 부모의 정신질환 등 자녀의 방치와 방임,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을 못 기울이는 가족의 특성을 보이며, 억압적 의사소통, 부부간 폭력 등으로 가족 간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가족, 자녀의 욕구를 수용하지 않는 가족 문화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Wee클래스 상담사와 교육복지사의 적극적 개입,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과 지역자원 연계 등이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회피와 무관심,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에 대한 성급한 종료 과정, 부실한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 등의 실패로 상처 받은 경험이 잔존하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의 직접적 지원은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자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지원은 현금 및 현물지원,

상담 및 멘토링, 부모교육,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이 부모들에게 유용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지원기관으로서 두 기관 모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안과 밖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기능이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자는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완화 사업을 위한 주요 영역과 성과지표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한 김운민·김은정(2023)의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검토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고립은 관계적, 정보적, 심리적, 공간적 고립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되고, 개인적, 제도적, 커뮤니티적 원인 등과 같은 다층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다층적 위험 요소들 모두에 대처해야 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업이 최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및 실행, 관리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최종 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 수행의 나침반 역할을 적절히 해야함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완화 사업과 관련한 유사 사업의 실천적, 정책적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고립완화 사업의 핵심 영역과 성과지표들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완화 사업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 개인적 고립 위험 요인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고립 대상 개입 사업, ②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에 주안을 두는 지역 공동체성 강화 사업, ③ 고립 문제 해결의 지속 가능성을 겨냥하는 제도적 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 영역에 대해 궁극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까지 제시하였다.

문정화(2020)는 상담을 거부하는 은둔형 학업중단 청소년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치료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상담사례를 수집하여, 치료 효과와 개입전략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16회기의 가족상담 과정에서 가족들이 진술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자는 대상관계 모델, Bowen 모델, 이마고 대화법, MRI의 의사소통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미해결된 정서 문제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개입 효과로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부모), 인지적 자각을 통한 관점 전환(모), 자기 개방성 향상(모, IP), 감정 반사적 반응 감소(부모), 남편과 정서적 거리 좁히기(모),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향상(IP), 정서적 안정감 회복(둘째 딸), 병리적 증상 완화(IP, 둘째 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당사자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상담 거부 시에 다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 개입을 통해서, 부부관계 개선 및 가족구성원 개인의 변화가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자녀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치료 개입 전략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4. 대규모 실태조사

가.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2023년 7~8월에 걸쳐 전국의 19~39세 청년 중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링크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33,570명이었고, 응답 완료자는 21,360명이었다. 1차 위험군을 식별한 결과 응답 완료자 중 56.7%에 해당하는 12,105명이 객관적인 위험을 지닌 응답자들로 판별되었다. 2차 심층조사에서는 12,105명 중 8,874명이 최종 응답하였고, 이 중 1,903명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다.

여성 비중(72.3%)이 남성의 약 2.6배였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75.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18.2%, 대학원 이상 5.6%, 중학교 졸업 이하 0.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5.7%였고, 가족전체를 하층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54.3%였다. 가족은 중상층이지만 본인은 하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24.2%였다. 삶의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나 청년실태조사의 전체 청년 평균인 6.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외부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 매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3.2%),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OTT 등의 동영상 시청(23.2%)과 온라인 활동(15.6%)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 및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9.9%였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는 30.1%였다. 응답자의 89.5%가 미혼이고, 유배우자는 8.6%, 이혼이 1.1%, 별거 0.6%, 사별 0.1% 순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5%가 20대라고 응답하였으며,

23.8%는 10대, 15.7%는 30대에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고립·은둔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 관련 어려움이 24.1%이었고, 대인관계 23.5%, 가족관계 12.4%, 건강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대인관계 27.1%, 가족관계 18.4%,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고, 3~5년 미만이 16%, 3개월 미만 15.4%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도 6.1%로 나타나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45.6%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 복귀 시도 후에 다시 재고립·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립·은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응답자들은 재고립·은둔의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재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시간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힘들고 지쳐서가 25.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2.9%의 순으로 응답했다. 돈과 시간의 부족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에서는 교통비 및 식사비 등 외출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서비스 대기시간 및 기관까지 이동거리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지난 1주일 간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7.2%가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질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 청년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물류센터 등에서 간헐적인 일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타인과 실질적 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생활 중 식사생활은 불규칙하게 나타난 경우가 72.4%였고, 매번 식사 때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80.3%였으며, 과반수인 52.3%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은둔과 고립의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였고, 실제로 67.2%의 응답자는 탈 고립·은둔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립과 은둔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 부재가 28.5%로 가장 많았고, 비용부담이 11.9%, 지원기관이 없어서가 10.5%로 나타났다. 정책적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 88.7%, 취업 및 일경험 지원 82.2%, 혼자 하는 활동 지원 81.7%, 일상생활 회복지원 80.7%의 영역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

서울시에서 2022년에 수행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사이다. 본 조사는 고립·은둔청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조사,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심층인

터뷰의 3종 조사로 이루어졌다.

고립·은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나, 고립·은둔 청년은 특성상 외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 및 교류가 단절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의 발굴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개인 대상이 아닌 가구 단위의 온라인 조사를 거쳐 그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거주지역(구),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서울시 가구 분포에 맞추어 표집하였고, 만 19~39세의 해당 연령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거주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가구 중 본인의 가정에 고립·은둔 성향을 가진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를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 전체 모집단 중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실태조사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단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한 조사이다. 앞서 기술한 규모 추정 조사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해당 집단의 대상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 링크를 배포하여 유효 분석량을 확보하였다.

고립·은둔청년 관련 심층 인터뷰는 고립·은둔 문제를 현재 겪고 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그 가족, 관련 지원기관의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n-Depth Interview 혹은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5,221가구의 6,926명의 청년을 조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 집단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4.5%가 고립 또는 은둔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 48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들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으로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인 관계 자본의 회복을 궁극적인 지향과 목표로 삼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과 동시에 취업을 등 정량적 성과지표는 지양해야 할 사항임을 기술하였다. 회복은 연속적인 과정에 근거하므로 '2개년 사업'처럼 단발적이거나 기간 제한적 지원사업이 아닌 장기적이면서 단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수혜 청년이 직접 사업이나 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고립·은둔을 극복 및 회복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다년간의 기간에

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과 도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고립·은둔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고립·은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거쳐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 과정을 전담하여 관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어필하였다.

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유민상·신동훈(2021)의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유민상·신동훈, 2021)」는 통계청 승인통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을 활용한 연구로서 전국의 만 18~34세 청년 2,0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과정, 결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2차분석)를 수행하였고, 더불어 고립 청년 당사자 11명을 포함 가족과 서비스 실무자 면담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다각도로 측정하였다. 대표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하라고 응답한 청년은 18.1%였고, ② 타인과의 전반적인 교류 횟수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8.5%(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였다. ③ 사회적 지원이 없다고 대답한 청년은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였고, ④ 은둔 청년은 조사대상자의 5.1%를 차지하였으며, ⑤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3.4%(단일 문항), 외로운 감정들을 일정 수준 이상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5.0%(종합 문항)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중 2.5%는 총 9개의 지표 중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취약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차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양육자가 아동·청소년기에 얼마만큼 자녀의 건강 및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6개 정책영역과 22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정책영역은 ‘법 제도적 근거 및 기반’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영역이다. 두 번째 정책영역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생애주기 중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촉발하는 고립 위험에 대한 대응 영역이다. 세 번째 정책영역은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학교, 가족,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과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이다. 네 번째 정책영역은 ‘서비스 연결망 강화’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아웃리치를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이다. 다섯 번째 정책영역은 ‘새로

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로 정체감과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영역이다. 여섯 번째 정책영역은 '코로나19에의 대응'으로 2019년부터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을 다루는 영역이다.

라.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한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연구」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에 따라 미취업청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안을 두고 미취업청년의 고립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고립의 기준을 설정하고 고립 청년의 발굴 전략을 모색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청년을 지원하고자 수행한 연구였다. 2020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청년특화 진로정서 자가진단에 관한 결과, 청년고립 실태파악 설문조사의 3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20,285명의 데이터를 분석 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졸업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몸이 아플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수준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률'이 높은 성향을 보였고, 사회적 고립 수준이 심화될수록, '심리정서/진로구직 취약성'은 높게 나타났다. 가족보다는 친구나 그 외 지인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심리정서 취약성'은 더 높았다. 사회적 고립 집단은 남성, 30대, 가구 형태 중에서는 1인 가구, 저학력과 저소득층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았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과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이 고위험군에 속할 비율이 높았다.

연구를 통해 청년수당과 같이 대표적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 및 확인했고, 예방적 접근을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고립을 보는 관점의 확대 및 새로운 접근 방식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년 고립의 완화 혹은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 전달 체계를 근간으로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국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규모 추정과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광주시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당사자 237명과 가족 112명, 총 349명의 유효 표본을 찾았다.

은둔형 외톨이 237명 중 여성은 38.4%, 남성이 61.6%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6.6%, 40대 11.0%, 50대 4.6% 60대 이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의 학력 수준은 대졸 이상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1.1%, 대학교 중퇴가 14.3%, 대학교 재학이 9.3%의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와 관련하여서는 79.7%의 응답자가 종교가 없었으며, 20.3%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가장 주된 계기로는 취업 실패였으며(27.8%),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26.6%), 대인관계의 어려움(17.3%),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13.5%), 실직(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53.2%으로 가장 많았고, PC사용·인터넷게임이 50.2%, 잠·수면이 41.8%, TV보기가 16.9%, 아무것도 안하기가 12.7%, 음악 듣기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의 42.9%는 가족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며, 은둔 생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3%였고, 그 중 현재까지 상담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6.8%였다. 상담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25.7%였고,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자는 74.3%였다.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 중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였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8%였다.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응답자 중 40.3%는 취업을 하면서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되어졌다. 은둔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29.1%), 이어서 취업지원이 13.5%, 상담·정서적 공감 등 심리적 지원이 12.2%,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의 서비스와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전문 인재 양성,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원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제안하였고, 그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사의 양성 및 운영, 비대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 은둔형 외톨이 가족 지원 서비스, 은둔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은둔형 외톨이의 용어 변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5. 시사점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서 혹은 사회적 현상의 일환으로 은둔 및 고립이 회자되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만큼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 고찰을 기초로 우리는 은둔과 고립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과 특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은둔과 고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이 부재함이 드러났으며, 연구자마다 은둔과 고립의 개념을 제각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개입을 위한 가이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정의하기 위해, 은둔의 전제 조건, 기간, 장소, 활동, 친구상태, 심리적 상태까지를 담고 있었다.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은둔의 개념 정의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에 해당하였으며,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명시도 두었고, 자신의 방이나 집 안으로 공간을 한정하며, 친구는 1명 이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있었다. 학업이나 직업 등의 활동은 없어야 하고,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첨부되었다.

연구의 과정에서 은둔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정의 내리면서 외출을 허용하되, 그 전제 조건을 명시한 연구도 있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에서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간혹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하고,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에는 외출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외출’까지는 허용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의한 연구에서는 (김춘남 외, 2018) 이러한 비자발성의 원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의 배제되는 상태’로 개념을 차별화하기도 하였다. 연구가 누적되어 가면서 은둔과 고립이 생기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유민상 외(2021)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교류가 불가능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고립을 개념화함에 따라 박찬웅 외(2020)는 한 가지 차원에서 고립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고립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은둔과 고립의 개념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였기 때문에 은둔과 고립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차주환 외(2023)은 공간적 고립(은둔)과 사회적 고립(관계)의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거나 또는 하나의 개념만 활용되고 있어 통합적인 차원에서 은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가 없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유민상 외(2021)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은둔형이라는 단어가 자의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용어 자체가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둔형 외톨이 용어는 고립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매우 사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은둔과 고립에 대한 개념을 보는 시각은 다채로웠으며, 연구자마다 각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으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한편 은둔과 고립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 등이 은둔과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는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경험, 학업 및 진학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부모의 과잉 보호 및 방임 등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이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청년 대상 연구인 경우 특히 취업 변인은 은둔 및 고립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은둔-사회활동-재은둔’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촉발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진로의 발견으로 은둔을 탈피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위에서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면서 다시 고립생활로 들어가고, 가족과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청년을 내보내는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형성하게 하였다.

은둔과 고립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대규모 실태 조사에 근거하였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가구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들 조사 대상자 중 고립·은둔 성향의 청년과 부스터 샘플조사를 통해 과거 고립·은둔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고립·은둔의 상태에 있는 청년 486명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이들의 실태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유민상·신동훈(2021))」는 승인 통계의 표본을 사용한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고, 양적연구 외에 문헌연구, 질적연구,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한 기본계획 성격의 정밀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한편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연구」는

미취업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청년 20,285명이라는 대규모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9)」는 전국 최초로 유효 표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실태조사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다른 대규모 조사들과는 달리 특정 연령이나 집단을 겨냥하지 않은 채 그 현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지자체의 조사보다도 늦었다는 한계점을 갖지만, 고립·은둔 청년만을 타겟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첫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실시된 대규모의 조사들은 은둔과 고립의 개념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두 다양하게 총화되었지만, 결과의 일반화에서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를 유도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개발은 단순히 은둔과 고립의 특성을 파악하는 학문적 영역에서 더 나아가 은둔과 고립의 예방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III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1. 은둔 관련 조례
2. 고립 관련 조례
3. 은둔(고립)에 관한 정책

1. 은둔 관련 조례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17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중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은둔’에 관련한 조례는 현재 총 11개가 공포된 상태로서, 이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2개의 조례를 공포하였다. 2023년 10월에 공포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4년 3월에 공포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해당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경기도, 경상북도가 해당되며, 경상남도 조례는 청소년 및 청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생애주기 상의 특정 시기 및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8개의 조례에서는 명칭에 ‘은둔형 외톨이’를 명시하고 있다. 은둔의 상태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톨이’라는 지칭은 타인적 시각에서의 부정적 판별과 호명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법규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 광역자치단체 ‘은둔’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경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20.	
경기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1.	청소년(9~24세 이하)
경남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2024. 4. 3.	청소년(9~18세 이하) 청년(19~39세 이하)
경북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2. 19.	청소년(9~24세 이하)
광주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19. 10. 15.	
대전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7. 14.	
부산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7. 14.	
인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4. 17.	
전남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9. 3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2. 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2. 2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파트에서 ‘은둔’ 검색 (검색일, 2024.4.4.)

은둔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19년에 제정되었다.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치단체로서 유효 표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을 시도한 업적이 있다. 이후 다른 시·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매우 유사한 상태로 제정되었다.

은둔에 관한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 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몇 개의 조례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향과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 조례의 목적이 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법규에서의 용어 사용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제할 때,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성장’을 발달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지향할 수 있으나 은둔 상태의 성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작업을 ‘성장’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지가 있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들어간 성인을 ‘성장’이 부족하여 은둔의 상태로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적절한 목적인지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 지금 현재 은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제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교류 및 관계가 해소된 사람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상황으로 단정 짓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삶을 인간 이하의 삶으로 규정짓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제2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회 활동이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분류의 근거를 무엇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활동과 비정상적인 활동의 분류를 시장이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인간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 우리는 관습, 제도, 법 등에 근거하여 그러한 행동을 제재하고자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명확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되지 않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 행동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 및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제3조 시장의 책무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조례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노력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실태조사, ○○센터, 복지서비스, 자립지원, 평생교육 지원에서부터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발전된 조문을 갖춘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2023년에 제정된 「△△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조례에 속고가 필요한 조문들이 남아 있다. 아래 조항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부분을 비교한 예시이다.

△△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도 내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명시하여 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시의 조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대상자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책적 방향과 목적이 표현되어 있다. 반면 ▽▽도의 조례에서는 은둔형 청

소년과 그 가족의 정상적 삶의 영위에 목적을 두고 있어 앞서 살펴본 ○○시의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 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 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시가 사용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시 조문에서는 삭제되었으나 ○○○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부분에서는 △△시의 조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가 사용했던 조문과 유사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정책의 지향점이 여타의 시·도와는 차별화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제3조(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반면, △△시의 조례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보인다.

△△시에서 제시한 시장의 책무는 앞서 살펴보았던 은둔 및 고립의 개념에서, 김춘남 외(2018)가 제시한 조작적 정의의 맥락에서 되짚어볼 수 있다. 김춘남 외(2018)는 연구에서 고

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비자발성의 원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상태’로 개념을 차별화하였다. △△시의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가 ‘은둔형 외톨이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은둔자가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 조례

은둔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총 41개가 제정되었다. 그 중 청년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조례는 4개였다. 조례 내용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3-2] 기초자치단체 ‘은둔’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경기 고양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2. 21.	
경기 광명시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5.	
경기 부천시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2023. 9. 27.	청년(19~34세 이하)
경기 안산시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4. 3.	청년(15~39세 이하)
경기 의왕시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1. 22.	
경기 하남시	하남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4. 9	청년(19~39세 이하)
경남 진주시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1.	
경북 경산시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경북 안동시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5. 6.	
경북 포항시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27.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 11. 4.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3. 24.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7.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4.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20.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1. 10.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0.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0. 6.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7.	.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1. 10.	.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0. 10.	.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15.	.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7.	.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7. 6.	.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2. 28.	.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14.	.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8.	.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9.	청년(19~45세 이하)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8.	.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2. 28.	.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12. 30.	.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2. 28.	.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 9. 30.	.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5. 4.	.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12. 26.	.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2. 10. 17.	.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4. 3. 25.	.
전남 순천시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0. 4.	.
전남 장성군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1. 17.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파트에서 '은둔' 검색.(검색일: 2024.4.4.)

2. 고립 관련 조례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고립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 사회적 고립 청년¹⁾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총 5개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법령에 고립과 은둔이 모두 포함되어 이는 앞의 [표 3-1]에 포함되어졌다.

[표 3-3] 광역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1.	청년(19~39세 이하)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9.	청년(19~39세 이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5.	청년(19~39세 이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5.20.	청년(19~39세 이하)
충남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9.	청년(19~39세 이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소년 및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조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법규를 제정한 곳은 제주도로 2021년에 공포하였다. 본 조례는 청년의 고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1조 참조).

그러나 본 조례 역시 타 지역의 조례를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제2조(정의)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조문을 통해 드러난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비정상의 분류와 정상의 기준을 도지사가 정한다는 조문,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숙고와 논쟁의 여지가 있다.

1) 경상남도의 경우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이 힘이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고립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도 살펴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인간다운 삶과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6개의 조례 중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시와 세종시로서 이들의 조문은 예외적이었다.

나. 기초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고립에 관한 조례는 현재 총 22개가 공포된 상태이다. 은둔과 고립을 함께 다룬 조례는 앞의 [표 3-2]에 포함되어있다.

[표 3-4] 기초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강원 원주시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2.11.	청년(18~39세 이하)
강원 태백시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19.	청년(18~49세 이하)
경기 광주시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1.	청년(19~39세 이하)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4.4.	청년(19~39세 이하)
경기 부천시	부천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조례	2023.9.27.	청년(19~34세 이하)
경기 성남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4.1.	청년(19~34세 이하)

[표 3-5] 기초자치단체 ‘고립’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대상
경기 안양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2023.10.10.	청년(19~39세 이하)
경남 창원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6.	청년(19~39세 이하)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2023.12.27.	청년(19~39세 이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9.22.	청년(19~39세 이하)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9.22.	청년(19~39세 이하)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청년(19~39세 이하)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29.	청년(19~34세 이하)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7.	청년(19~39세 이하)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15.	청년(18~39세 이하)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2.	청년(19~39세 이하)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6.	청년(19~39세 이하)
전남 고흥군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7.	청년(18~49세 이하)
전남 나주시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2.24.	청년(18~45세 이하)
전북 고창군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3.12.	청년(18~45세 이하)
충남 서산시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2024.3.25.	청년(18~39세 이하)
충북 청주시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5.13.	청년(19~39세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구의 지원 조례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가장 최근 공포된 ◇◇시의 조례를 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여전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둔과 고립에 대한 정책적 지향과 접근 방식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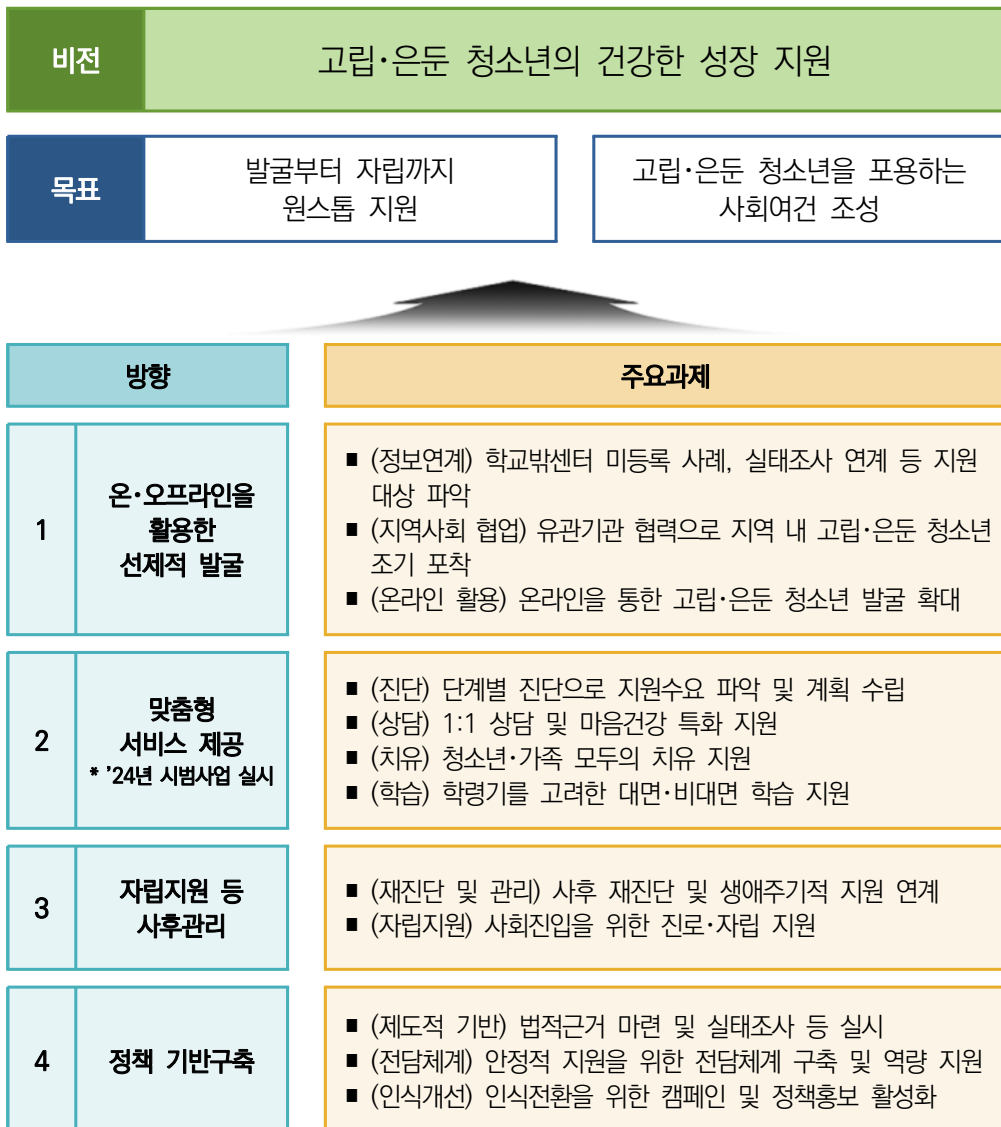
3. 은둔(고립)에 관한 정책

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4년 2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에 관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의결하였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정책적 지원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고립·은둔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립·은둔 현상의 장기화는 개인의 건강과 의욕저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안을 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적 손실로도 연결됨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립의 개념을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은둔의 개념은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학업 중단 등의 사유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었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례를 확인하고,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상에서 고립·은둔의 상태에 있으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지자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 등 청소년안전망을 통해서도 확인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에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제공하며, 활용방안 안내 등 수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편의점, 병원 등 지역사회 시설과 기존 민간 지원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발굴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을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지원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1388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운영한다. 고립·은둔 자가진단 메뉴를 포털에 탑재하여 대상자가 직접 위기 징후를 점검하고, 조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더불어 SNS, 온라인 포털 등 상담자가 청소년 친화적 매체콘텐츠로 직접 찾아가는 사이버아웃리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기반으로 심리·정서 상담 등을 우선 지원한다.

본 서비스는 스크리닝 척도를 이용한 진단과 기초상담 결과 등에 기초하고, 고립·은둔 실태 및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 따라 기초상담에서부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사례관리사를 1:1로 매칭하고, 정기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고립·은둔 경험에서 갖게 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상호지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회복을 지원하며, 미디어 과의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청소년 가족들의 감정소진을 예방하고 심리적 치유를 위해 부모상담, 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학령기라는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개인별 역량 진단에 기초한 학습계획 수립에서부터 콘텐츠의 지원, 모의고사 응시 등 단계별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 메타버스에 기반한 서비스 플랫폼 “꿈드림ON”을 통해서도 교육 콘텐츠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 이후의 변화 확인과 점검을 위해 고립·은둔 수준을 재진단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지원 계획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 이후 탈고립 또는 탈은둔한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이나 학교 복귀 등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연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년 지원사업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생애주기적 연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진입 시에 자신감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의 탐색 기회제공 및 역량강화 등의 진로지원을 실시한다.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그리고 고용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4) 정책 기반 구축

현재 은둔형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지원’ 외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정의와 지원근거는 부재한 상태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명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체계를 운영한다. 2024년 1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전담체계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표준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며, 특화 지원모형의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사회

적 인식 전환을 위하여, 고립·은둔 현상이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홍보에 주력한다.

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은둔 및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2023.12.13.).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은 [그림 3-2]와 같다.

2024년부터 19~34세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굴과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 등으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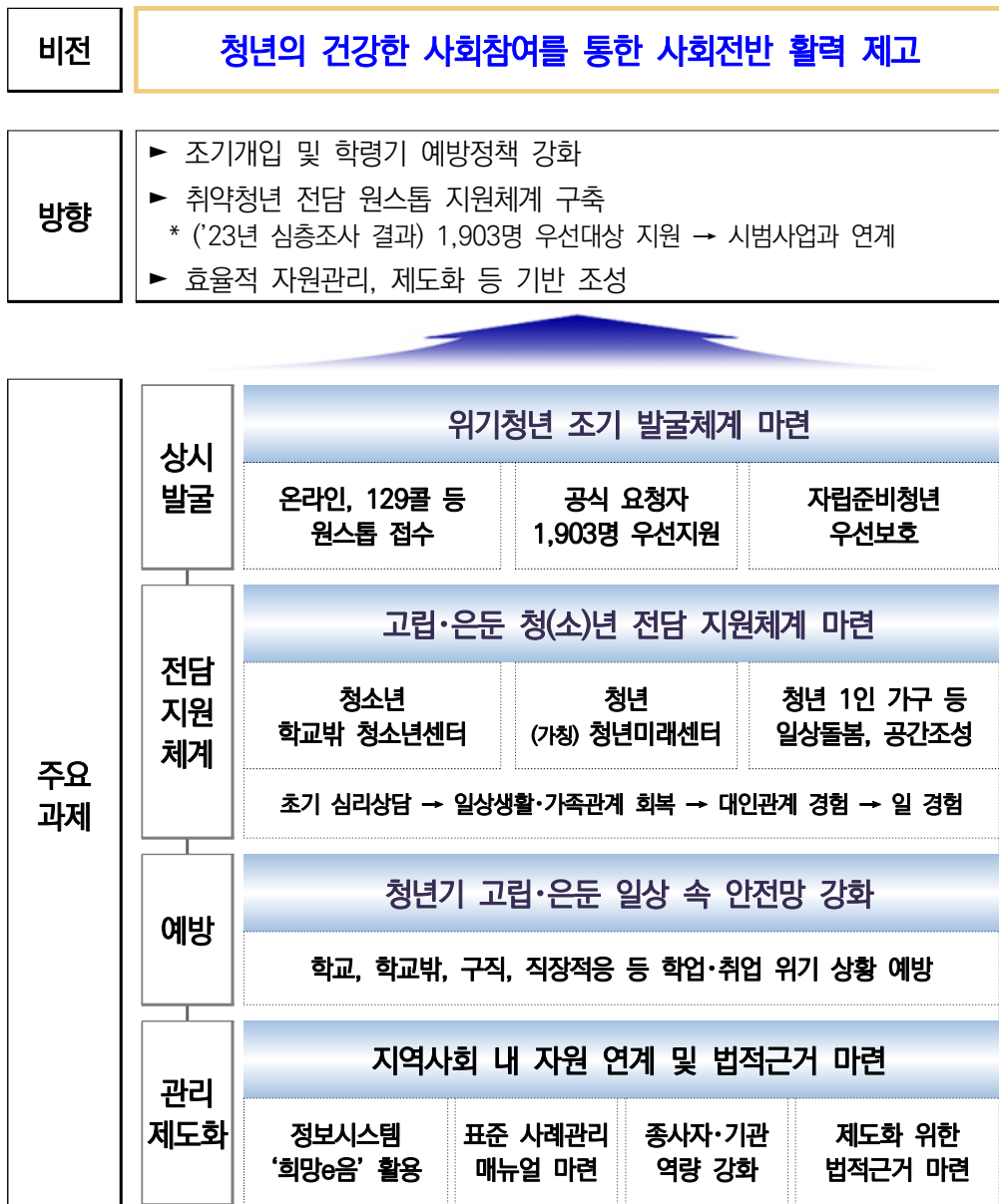
중앙 차원의 일원화된 접수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129콜 등과 같은 원스톱 도움창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청년이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자가진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129 콜센터를 통해 도움 요청을 접수받고 해당지역의 청년미래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우울증, 폐인 갤러리 등)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소방·경찰·지역주민(고시원, 편의점, 원룸촌 등) 등의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굴되면 즉시 지원에 주력하기 위하여 2023년 복지부 심층 조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식별된 청년 12,105명 중 개인정보에 동의하고 공식 지원을 원하는 청년 1,903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4개 시도의 경우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의 경우 표준사업 지침과 시범사업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적 대화가 힘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초기 접근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는 일반청년 대비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고립·은둔 위험도가 약 3배 더 높다는 자가

[그림 3-2]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별도 전담인력(2023년 10월 기준 6개 시도(서울2, 울산2, 경기2, 전남 2, 경남1, 제주1)에 10명을 배치 완료하였음)을 통한 특화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개인동의를 전제로 하여 정기적인 자가진단, 자조모임 및 마음건강서비스 우선 이용, 심리

지원 등 특화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지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2) 전담체계

전담체계 마련을 위해 청년의 경우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청년미래센터)를 가동하게 되는데, 지역 공모를 통한 4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및 강화에 주안을 둔다. 129콜 또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청년미래센터(가칭)을 통해 체계적 전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최초 발굴과 사례관리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맞춤 지원에 있어서는 경제력에 따른 비용 차등화 원칙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마련한다. 전담인력인 사례관리사가 과학적 척도(K-SAD 및 HQ-25; 한국판 사회적 회피·불안척도, 은둔척도로서 연구를 통해 개발) 활용하여 현장방문 후 판단하여 대상자를 판별하게 된다.

전담인력이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 선정 및 유형을 분류하며, 상태에 따른 단계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사례관리를 통해 유형 분류에 따라 마음건강서비스 바우처(3개월간 10회 이용, 본인부담 있음)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을 주대상으로 하던 일상돌봄 혜택을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 청년에게도 본인부담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지자체-민간 협업에 기초하여 특화형 매입임대(민간의 운영계획 수립을 근거로 입주자 특성 중심의 특화된 주거 커뮤니티 공간 제공의 공공임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하고, 고립·은둔 고위험 청(소)년 위한 커뮤니티·공동생활 등 중장기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여가부가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데이터에 기반하여 주요 위험군으로 감지된 학생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발굴에 주력하고자 한다. 꿈드림정보망 등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1차 발굴하고 → 부모·보호자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동의를 확보(가정방문 등)하며 →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발굴부터 치유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패키지 지원을 수행하고자 한다.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학습·치유프로그램(멘토링, 자조모임, 가족상담, 힐링 글쓰기 등) 등 탈고립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취업지원 서비스에 탈고립 치유 프로그램과 방문학습 등의 지원을 추가하게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등 지속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19세 이후에는 (가칭)청년미래 센터를 통해 성인기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계획이다.

3) 예방

현재의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인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향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고립 및 은둔의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 상태 및 역량 등 데이터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학내 (가칭)통합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학생 지원이력정보 수집·관리·연계를 위한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선 지원 후 통보의 위기 학생 긴급지원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 적합하고 및 수용도 높은 다양한 운영 모델의 마련을 위해 선도학교(2023년 96교→2024년 248교) 및 시범교육지원청(2023년 23개→2024년 46개)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립 및 은둔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생의 사회성·정서적 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수정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전문의 심리치료 자문 등과 같은 전문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부적응을 비롯한 위기 학생들이 고립·은둔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Wee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며, 장기결석 등으로 대면상담이 곤란한 학생을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랜선 Wee클래스)을 운영하고, 위기 사안별 상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위기 시 초·중학생까지로 한정하는 학교-학교밖청소년센터 간 신속한 정보 연계를 향후 학업 중단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학업 중단에 관한 학생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속히 연계하여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취업 실패, 이직 등으로 초기 쉬었음 청년들의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해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여 2024년에 10개 지자체에 224억 원을 지원한다. 구직단념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경직적인 기업문화의 개선 및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24년 44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주 등에게는 MZ 직무관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입직 청년을 대상으로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문체부를 통해서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인문자원을 활용한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서고양 및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 중에서 고립 및 은둔 성향이 강한 청년을 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4) 관리·제도화

사례관리 플랫폼(희망e음 시스템)의 활용 확대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지원한다. 민간 사례관리사에게도 희망e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행정부담 완화 및 기록 전산화를 통해 사례관리 업무를 고도화한다. 희망e음 내 사례관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대상자의 발굴의뢰를 접수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간 통합발굴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대상자 유형별로 표준 케어플랜 수립을 의무화하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형분류에 기초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연계, 희망e음 등록·사용법 등에 관한 체계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미선정 지자체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 자체 사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더불어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대상 정기적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례관리 제공기관 기관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법적체계 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립과 은둔, 가족돌봄청년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 정의(고립과 은둔의 개념, 상태, 연령 등)와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여 취약청년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전담인력,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추구한다. 또한 대상자 지원을 공공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추구한다.

다.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

서울시는 2020년부터 취업실패,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2021년 12월에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고립청년이란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 고립 상태인 청년을 말한다. 은둔청년은 집 안에서만 지내면서 6개월 이상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채, 최근 한 달 내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하여 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해온 점을 주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 개별 특성에 맞추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전략을 토대로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은 2020년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에서 → 2021년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 2022년 고립청년지원사업, 은둔청년지원사업 → 2023년 종합대책으로 심화·확대되었다. 그간 고립·은둔 사업을 수행해 온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생명전화종합사회복지관, (사)씨즈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은 [그림 3-3]과 같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종합대책의 3가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관리

고립·은둔 청년 본인이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촘촘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고독사 등 복지전달체계 사업,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빅데이터로 도출되는 지역별 위기군 분포 현황 분석 자료, 아동·청소년 사업과 연계한 예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상시적으로 신청·상담·의뢰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 청년이 발굴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와 은둔 성향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은 고립 정도와 개인별 상황을 측정하는 설문과 개별 면담(심층 상담)의 총 2단계로 이뤄진다.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활동형 고립청년, 비활동형 고립청년, 은둔청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연계하여 ‘고립·은둔 청년 회복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그림 3-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



돕기 위한 일 경험, 해외봉사 경험 등의 추가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와 성향을 반영한 일 경험도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귀 이후에는 은둔 고수를 활용한 멘토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활용한 사례관리를 통해 고립 및 은둔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2)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도록 따뜻한 응원 분위기 조성

고립·은둔 청년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걷기 행사, 고립·은둔 청년들의 작품(영상, 웹툰 등)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형성하여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탈피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 접점에 있는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 관계기관,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한다.

3) 2025년부터 지역단위 대응 집행 로드맵 마련

지역사회 대응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4년까지 서울청년센터 내에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기능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 인프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별도의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운영 결과에 기반한 추가 설치 필요성, 기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은둔 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향하고, 고립·은둔 극복에 관한 성공사례 확산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는 유인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민관 정책협의체의 내실을 다지고, 고립·은둔 청년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 등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를 제고한다. 분야별 민간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서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한다.

라.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들의 일상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은 경기복지재단(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으로 규명하였고,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으로 설명하였다. 주요 지원으로는 실태조사 및 연구, 일상회복을 위한 정서·관계·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모 교육·상담·자조모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있다.

사업은 2024년 1년 동안 수행하며, 도내 19~39세의 고립·은둔청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 통한 체계적 진단 도구(고립·은둔청년의 정의, 특성 및 유형별 지원방안 등)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 전달체계와 민간기관을 연계하고, 홍보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활용하여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고립·은둔청년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한다. 축적된 성과와 사례 모니터링을 거쳐 정책 환류를 추진한다.

마.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2019년 광주광역시의회는 ‘은둔형 외톨이’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으로서 이들의 문제가 곧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2019년 10월 전국 최초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졌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국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2020년 실시하여 그 규모 추정과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을 세웠고, 2022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정책 추진 과정이 체계적이었으며, 중앙의 정책보다 앞선 선협적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중앙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시킨 지방정책의 우수사례이다.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그림 3-4]에 제시되었으며, 추진과제는 [표 3-6]과 같다. 선협적으로 추진한 조례제정과 사업수행은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그림 3-4]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비전	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				
목표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은둔형 외톨이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은둔형 외톨이 전문 교육과정 운영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표 3-6]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 과제

전략	전략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1-1. 은둔형 외톨이 발굴	1-1-1. 전화, 내방자 확대 전략 수립
		1-1-2.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1-2. 종합지원체계 구축	1-2-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2. 비대면 지원 플랫폼 구축
	1-3. 전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1-3-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제도 운영
		1-3-2. 방문지원서비스 제공
		1-3-3.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은둔형 외톨이 전문 교육과정 운영	2-1.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 양성	2-1-1.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 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2-2.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양성	2-2-1.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양성 교육 및 활동지원
전략 3.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3-1.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거버넌스 구축	3-1-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은둔형 외톨이 교류 강화	3-2-1. 은둔형 외톨이 포럼 개최
전략 4.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4-1.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활동 기반 구축	4-1-1.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4-1-2.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4-1-3. 은둔형 외톨이 활동 공간 지원
	4-2. 은둔형 외톨이 친화형 일자리 양성	4-2-1. 은둔형 외톨이 취업 인큐베이팅 지원
		4-2-2. 은둔형 외톨이 친화 사업장 발굴 및 운영
	4-3. 은둔형 외톨이 독립생활 지원	4-3-1. 은둔형 외톨이 주거 독립 공간 운영
전략 5.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5-1.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확대	5-1-1.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보급
		5-1-2.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활동강화



IV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일반적 특성
3. 은둔의 경험
4. 일상생활
5. 일상생활의 어려움
6.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7. 주관적인 행복감
8. 관계, 교류, 지지 자원
9. 상담과 지원
10. 정책욕구
11.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한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
12. 소결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양적 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의 14~24세 청소년 1,200명을 목표 대상으로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과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600명의 표본을 목표로 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결과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은 총 1,242명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기존의 타 연구들과는 달리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은둔형 청소년의 양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은둔 경험 및 현재의 은둔과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성별, 교급 또는 연령, 지역(도시, 농촌 및 도농복합)을 중심으로 쿼터 할당하였다. 이러한 표본 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조사 결과를 경기도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 점은 조사 결과의 해석과 인용 상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고립 및 은둔의 발현, 조사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및 조사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14~24세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둔의 개념과 측정은 2가지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자기 보고식에 의한 경험 유무를 뜻한다. 은둔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고, 친구를 1명 이하로 두고 있다는 포괄 관계의 설정 역시 두지 않았다. 다수가 등교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연령의 특성 때문에 3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서도 심각한 은둔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서도 은둔의 특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은둔의 개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사용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이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척도이다.

이러한 은둔의 개념을 포함하여 조사 영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둔과 관련한 경험 및 특성, 일상생활, 일상생활상의 어려움,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 주관적인 행복감, 가족 및 외부인과의 관계·교류·지지 자원, 상담과 지원, 정책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웹서베이 및 1:1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2.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응한 1,24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59.4%가 여자청소년으로 남자청소년 응답자(40.6%)보다 많았고, 연령 집단별로는 17~19세 청소년(54.4%), 20~24세 청소년(26.4%), 14~16세 청소년(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청소년이 76.4%였고,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이 23.6%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716명(57.6%)였고,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526명(42.4%)이었다.

[표 4-1] 응답자 특성

(N= 1,242,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율
전체		1,242	100.0
성별	남성	504	40.6
	여성	738	59.4
연령	14-16세	238	19.2
	17-19세	676	54.4
	20-24세	328	26.4
지역	도시	949	76.4
	도농/농촌	293	23.6
조사지	학교	716	57.6
	센터	526	42.4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소속 및 이용 시설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59.4%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31.6%였으며, 아무 곳에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였다. 그 밖에도 소수이지만, 쉼터, 대안학교, 사설 상담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4-2] 이용기관 현황(복수응답)

(N= 1,242,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학교밖 지원센터	상담 복지센터	쉼터	학교	복지관	가족센터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시설 상담기관	아무 곳에도 다닌 않음
전체		393(31.6)	52(4.2)	8(0.6)	738(59.4)	13(1.0)	7(0.6)	29(2.3)	4(0.3)	22(1.8)	87(7.0)
성별	남성	123(24.4)	15(3.0)	6(1.2)	317(62.9)	6(1.2)	5(1.0)	12(2.4)	3(0.6)	9(1.8)	47(9.3)
	여성	270(36.6)	37(5.0)	2(0.3)	421(57.0)	7(0.9)	2(0.3)	17(2.3)	1(0.1)	13(1.8)	40(5.4)
연령	14~16세	79(33.2)	8(3.4)	0(0.0)	143(60.1)	0(0.0)	0(0.0)	19(8.0)	0(0.0)	5(2.1)	5(2.1)
	17~19세	261(38.6)	31(4.6)	6(0.9)	341(50.4)	6(0.9)	4(0.6)	10(1.5)	3(0.4)	14(2.1)	64(9.5)
	20~24세	53(16.2)	13(4.0)	2(0.6)	254(77.4)	7(2.1)	3(0.9)	0(0.0)	1(0.3)	3(0.9)	18(5.5)
지역	도시	328(34.6)	47(5.0)	7(0.7)	531(56.0)	10(1.1)	7(0.7)	24(2.5)	4(0.4)	18(1.9)	70(7.4)
	도농/농촌	65(22.2)	5(1.7)	1(0.3)	207(70.6)	3(1.0)	0(0.0)	5(1.7)	0(0.0)	4(1.4)	17(5.8)
조사지	학교	5(0.7)	5(0.7)	3(0.4)	716(100.0)	5(0.7)	1(0.1)	0(0.0)	1(0.1)	5(0.7)	0(0.0)
	센터	388(73.8)	47(8.9)	5(1.0)	22(4.2)	8(1.5)	6(1.1)	29(5.5)	3(0.6)	17(3.2)	87(16.5)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223(48.2)	42(9.1)	4(0.9)	181(39.1)	8(1.7)	1(0.2)	6(1.3)	4(0.9)	18(3.9)	53(11.4)
	은둔경험 없음	170(21.8)	10(1.3)	4(0.5)	557(71.5)	5(0.6)	6(0.8)	23(3.0)	0(0.0)	4(0.5)	34(4.4)

3. 은둔의 경험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던’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7.3%에 해당하는 463명의 청소년들이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의 은둔 경험은 기간적 설정을 주지 않은 포괄적인 질문이었으며, 본인이 인식한 순수한 주관적인 개념임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은둔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비율을 은둔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타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러한 은둔의 경험과 힘든 시기를 가졌다고 기술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4-3]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

(N= 1,242,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χ^2
전체		463(37.3)	779(62.7)	-
성별	남성	148(29.4)	356(70.6)	22.717***
	여성	315(42.7)	423(57.3)	
연령	14-16세	58(24.4)	180(75.6)	24.949**
	17-19세	287(42.5)	389(57.5)	
	20-24세	118(36.0)	210(64.0)	
지역	도시	382(40.3)	567(59.7)	15.220***
	도농/농촌	81(27.6)	212(72.4)	
조사지	학교	175(24.4)	541(75.6)	119.156***
	센터	288(54.8)	238(45.2)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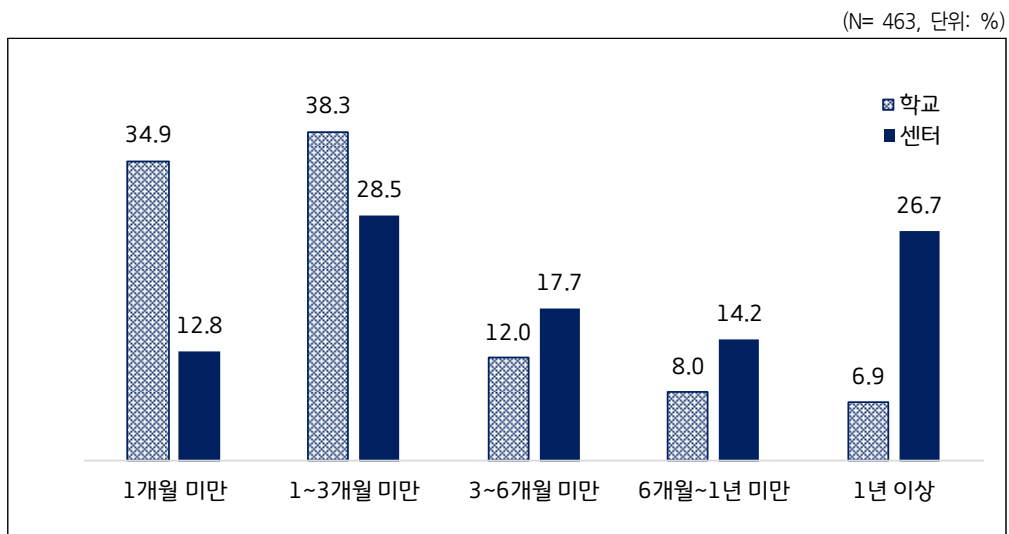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을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4-3] 참조), 성별, 연령, 지역, 조사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여자청소년 중 42.7%가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29.4%가 은둔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청소년의 은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고, 연령 집단 중에서는 17~19세 청소년, 지역상으로는 도시 거주 청소년의 은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 중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54.8%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은둔 경험 비율(2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은둔의 경험이 있는 463명을 대상으로 은둔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21.2%), 3~6개월 미만(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9.2%나 되었다.

은둔 기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조사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그림 4-1] 참조), 학교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은둔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73.2%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응답은 과반이 안되는 41.3%였다. 1년 이상 은둔했다는 응답자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은둔 경험 청소년의 경우 6.9%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은둔 경험 청소년의 경우 26.7%에 이르렀다. 센터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은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은둔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은둔 경험 기간



은둔의 경험을 갖게 된 주된 이유 1순위로는 3명 중 1명 꼴로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응답(33.3%)하였다([표 4-4] 참조). 그 뒤를 이어서는 대인관계 어려움(19.7%), 학업관련 어려움(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빈도가 작은 셀이 많아서 카이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몇 개의 두드러진 특성을 살

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의 경험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28.4%)은 여자청소년의 응답(14.3%)의 2배 가까이 많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응답(37.8%)이 남자청소년의 응답(23.6%)보다 1.6배 많았다. 은둔을 경험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은둔의 경험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은둔 경험의 가장 주된 이유(1순위)

(N=463, 단위: 명, %)

구분		가족관련 어려움 ¹	학업관련 어려움 ²	직업관련 어려움 ³	대인관계 어려움 ⁴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유 없음 ⁵	귀찮음 ⁶	기타
전체		38(8.2)	87(18.8)	14(3.0)	91(19.7)	154(33.3)	7(1.5)	22(4.8)	29(6.3)	21(4.5)
성별	남성	14(9.5)	42(28.4)	4(2.7)	32(21.6)	35(23.6)	2(1.4)	7(4.7)	6(4.1)	6(4.1)
	여성	24(7.6)	45(14.3)	10(3.2)	59(18.7)	119(37.8)	5(1.6)	15(4.8)	23(7.3)	15(4.8)
연령	14~16세	8(13.8)	8(13.8)	0(0.0)	12(20.7)	15(25.9)	1(1.7)	5(8.6)	3(5.2)	6(10.3)
	17~19세	17(5.9)	54(18.8)	5(1.7)	59(20.6)	107(37.3)	3(1.0)	13(4.5)	18(6.3)	11(3.8)
	20~24세	13(11.0)	25(21.2)	9(7.6)	20(16.9)	32(27.1)	3(2.5)	4(3.4)	8(6.8)	4(3.4)
지역	도시	35(9.2)	71(18.6)	11(2.9)	70(18.3)	132(34.6)	6(1.6)	16(4.2)	23(6.0)	18(4.7)
	도농/농촌	3(3.7)	16(19.8)	3(3.7)	21(25.9)	22(27.2)	1(1.2)	6(7.4)	6(7.4)	3(3.7)
조사지	학교	15(8.6)	41(23.4)	7(4.0)	29(16.6)	34(19.4)	0(0.0)	17(9.7)	20(11.4)	12(6.9)
	센터	23(8.0)	46(16.0)	7(2.4)	62(21.5)	120(41.7)	7(2.4)	5(1.7)	9(3.1)	9(3.1)

주 1 : 가족과의 갈등, 부모의 이혼, 가족원의 사망 등

2 :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3 : 취업실패, 실직 등

4 : 친구, 직장동료, 따돌림, 폭력 등

5 : 이유 없음, 할 게 없음, 방학 등

6 : 귀찮음, 나가기 싫음, 집이 편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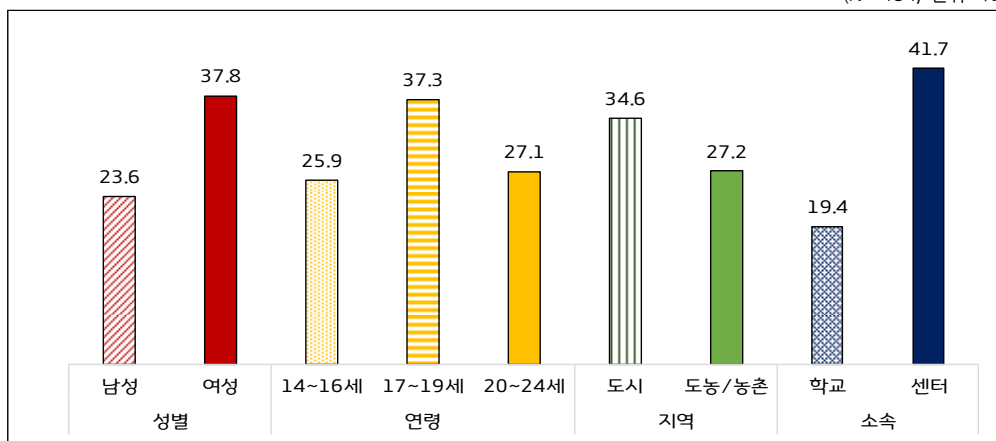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14~16세 청소년이 타 연령 집단에 비하여 가족 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어린 연령 집단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17~19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타 연령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9.2%)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3.7%)과 비교하여 가족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도시 34.6%, 도농/농촌 27.2%). 반면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인관계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25.9%)이 도시 거주 청소년(18.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인구가 적고 동시에 인구 밀도가 낮은 도농 및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대인관계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학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응답(19.4%) 2배 이상 월등히 많았다. 한편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 역시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는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특성

(N= 154, 단위: %)



[표 4-5]는 은둔 경험의 주된 이유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정신적인 어려움(75.4%), 대인관계 어려움(71.1%), 학업관련 어려움(66.1%)의 순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들이 모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예상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련 어려움은 순위를 종합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3%에

이르러 3명 중 1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은둔 경험의 가장 주된 이유(1~3순위)

(N=463, 단위: 명, %)

구분		가족관련 어려움 ¹	학업관련 어려움 ²	직업관련 어려움 ³	대인관계 어려움 ⁴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유 없음 ⁵	귀찮음 ⁶	기타
전체		145(31.3)	306(66.1)	98(21.2)	329(71.1)	349(75.4)	51(11.0)	32(6.9)	37(8.0)	25(5.4)
성별	남성	44(29.7)	109(73.6)	48(32.4)	101(68.2)	92(62.2)	11(7.4)	14(9.5)	9(6.1)	10(6.8)
	여성	101(32.1)	197(62.5)	50(15.9)	228(72.4)	257(81.6)	40(12.7)	18(5.7)	28(8.9)	15(4.8)
연령	14~16세	23(39.7)	35(60.3)	2(3.4)	44(75.9)	43(74.1)	10(17.2)	7(12.1)	4(6.9)	6(10.3)
	17~19세	90(31.4)	202(70.4)	49(17.1)	206(71.8)	217(75.6)	28(9.8)	20(7.0)	23(8.0)	15(5.2)
	20~24세	32(27.1)	69(58.5)	47(39.8)	79(66.9)	89(75.4)	13(11.0)	5(4.2)	10(8.5)	4(3.4)
지역	도시	121(31.7)	251(65.7)	78(20.4)	269(70.4)	296(77.5)	39(10.2)	24(6.3)	30(7.9)	22(5.8)
	도농/농촌	24(29.6)	55(67.9)	20(24.7)	60(74.1)	53(65.4)	12(14.8)	8(9.9)	7(8.6)	3(3.7)
조사지	학교	58(33.1)	125(71.4)	52(29.7)	114(65.1)	112(64.0)	5(2.9)	18(10.3)	24(13.7)	13(7.4)
	센터	87(30.2)	181(62.8)	46(16.0)	215(74.7)	237(82.3)	46(16.0)	14(4.9)	13(4.5)	12(4.2)

주 1 : 가족과의 갈등, 부모의 이혼, 가족원의 사망 등

2 :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3 : 취업실패, 실직 등

4 : 친구, 직장동료, 따돌림, 폭력 등

5 : 이유 없음, 할 게 없음, 방학 등

6 : 귀찮음, 나가기 싫음, 집이 편함 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별로 눈에 띄는 점들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관련 어려움과 직업관련 어려움이 여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무려 81.6%까지 이르러 남자 청소년의 응답 62.2%와는 2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4~16세 집단에 속하는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관련 어려움이 은둔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어린 집단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0~24세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 직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9.8%에

이르러, 청년들의 은둔 경험 실태조사에서 보여졌던 특성이 본 조사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어졌던 특성 즉, 청소년기의 은둔 경험이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3순위를 합산하게 되면, 조사지가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및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의 상대적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2.3%에 달해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응답(64%)과 상대적인 격차를 보였다.

4. 일상생활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스마트폰(31.6%)이었으며, 수면(15.5%), 동영상 보기(13%), 인터넷 게임(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참조). 남자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 이상이 인터넷 게임이라고 응답(22%)하여 여성의 응답(3.4%)과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여자청소년(36.7%)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NS를 남자청소년(24%)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어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더 많이 하였다. 지역별로 나타나 는 가시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17.4%)은 도시 거주 청소년들(9%)보다 인터넷 게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였고, 도시 거주 청소년들(17.1%)은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10.6%)보다 집에서 하는 활동 중 수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의 1순+2순위+3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NS(67.6%)였으며, 수면(48.4%), 동영상 보기(43.2%), 인터넷 게임(29.3%)의 순으로 나타나 1순위만을 살펴본 결과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더 많이 하였고, 도시거주 청소년들이 집에서 수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73.3%)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59.7%)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NS를 훨씬 더 많이 하였고, 은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30.6%)이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14.9%)보다 집에서 공부 및 독서 활동을 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일정 수준의 학업 및 독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은둔 유경험 청소년들이 집에서 혼자 학습 및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6]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SNS)	동영상 보기	잠자기 (수면)	음악 듣기	TV 보기	공부, 독서	관심있는 정보 찾아보기	관심있는 활동 혼자 하기 ¹⁾	아무것도 안하기	생각하기	기타
전체		136(11.0)	392(31.6)	161(13.0)	193(15.5)	89(7.2)	28(2.3)	95(7.6)	32(2.6)	71(5.7)	18(1.4)	24(1.9)	3(0.2)
성별	남성	111(22.0)	121(24.0)	64(12.7)	64(12.7)	37(7.3)	11(2.2)	39(7.7)	16(3.2)	17(3.4)	9(1.8)	12(2.4)	3(0.6)
	여성	25(3.4)	271(36.7)	97(13.1)	129(17.5)	52(7.0)	17(2.3)	56(7.6)	16(2.2)	54(7.3)	9(1.2)	12(1.6)	0(0.0)
연령	14~16세	36(15.1)	77(32.4)	21(8.8)	27(11.3)	14(5.9)	2(0.8)	28(11.8)	2(0.8)	23(9.7)	2(0.8)	6(2.5)	0(0.0)
	17~19세	73(10.8)	206(30.5)	99(14.6)	110(16.3)	49(7.2)	12(1.8)	57(8.4)	12(1.8)	36(5.3)	9(1.3)	11(1.6)	2(0.3)
	20~24세	27(8.2)	109(33.2)	41(12.5)	56(17.1)	26(7.9)	14(4.3)	10(3.0)	18(5.5)	12(3.7)	7(2.1)	7(2.1)	1(0.3)
지역	도시	85(9.0)	298(31.4)	130(13.7)	162(17.1)	71(7.5)	22(2.3)	68(7.2)	25(2.6)	53(5.6)	12(1.3)	21(2.2)	2(0.2)
	도농/농촌	51(17.4)	94(32.1)	31(10.6)	31(10.6)	18(6.1)	6(2.0)	27(9.2)	7(2.4)	18(6.1)	6(2.0)	3(1.0)	1(0.3)
조사지	학교	80(11.2)	240(33.5)	102(14.2)	113(15.8)	46(6.4)	21(2.9)	51(7.1)	15(2.1)	24(3.4)	12(1.7)	10(1.4)	2(0.3)
	센터	56(10.6)	152(28.9)	59(11.2)	80(15.2)	43(8.2)	7(1.3)	44(8.4)	17(3.2)	47(8.9)	6(1.1)	14(2.7)	1(0.2)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48(10.4)	151(32.6)	67(14.5)	73(15.8)	38(8.2)	11(2.4)	16(3.5)	17(3.7)	22(4.8)	10(2.2)	9(1.9)	1(0.2)
	은둔경험 없음	88(11.3)	241(30.9)	94(12.1)	120(15.4)	51(6.5)	17(2.2)	79(10.1)	15(1.9)	49(6.3)	8(1.0)	15(1.9)	2(0.3)

주 : 악기연습, 그림그리기, 음식만들기 등

[표 4-7]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3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SNS)	동영상 보기	잠자기 (수면)	음악듣기	TV보기	공부, 독서	관심있는 정보 찾아보기	관심있는 활동 혼자 하기 ¹⁾	아무것도 안하기	생각하기	기타
전체		364(29.3)	839(67.6)	537(43.2)	601(48.4)	363(29.2)	97(7.8)	307(24.7)	154(12.4)	250(20.1)	104(8.4)	93(7.5)	17(1.4)
성별	남성	259(51.4)	292(57.9)	230(45.6)	192(38.1)	130(25.8)	36(7.1)	127(25.2)	77(15.3)	76(15.1)	43(8.5)	43(8.5)	7(1.4)
	여성	105(14.2)	547(74.1)	307(41.6)	409(55.4)	233(31.6)	61(8.3)	180(24.4)	77(10.4)	174(23.6)	61(8.3)	50(6.8)	10(1.4)
연령	14~16세	88(37.0)	155(65.1)	88(37.0)	91(38.2)	64(26.9)	21(8.8)	82(34.5)	18(7.6)	62(26.1)	21(8.8)	20(8.4)	4(1.7)
	17~19세	201(29.7)	451(66.7)	288(42.6)	333(49.3)	213(31.5)	41(6.1)	171(25.3)	83(12.3)	136(20.1)	49(7.2)	53(7.8)	9(1.3)
	20~24세	75(22.9)	233(71.0)	161(49.1)	177(54.0)	86(26.2)	35(10.7)	54(16.5)	53(16.2)	52(15.9)	34(10.4)	20(6.1)	4(1.2)
지역	도시	251(26.4)	639(67.3)	411(43.3)	483(50.9)	278(29.3)	73(7.7)	226(23.8)	124(13.1)	192(20.2)	78(8.2)	79(8.3)	13(1.4)
	도농/농촌	113(38.6)	200(68.3)	126(43.0)	118(40.3)	85(29.0)	24(8.2)	81(27.6)	30(10.2)	58(19.8)	26(8.9)	14(4.8)	4(1.4)
조사지	학교	203(28.4)	525(73.3)	338(47.2)	366(51.1)	199(27.8)	64(8.9)	173(24.2)	71(9.9)	104(14.5)	57(8.0)	43(6.0)	5(0.7)
	센터	161(30.6)	314(59.7)	199(37.8)	235(44.7)	164(31.2)	33(6.3)	134(25.5)	83(15.8)	146(27.8)	47(8.9)	50(9.5)	12(2.3)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39(30.0)	298(64.4)	213(46.0)	232(50.1)	149(32.2)	30(6.5)	69(14.9)	61(13.2)	98(21.2)	56(12.1)	40(8.6)	4(0.9)
	은둔경험 없음	225(28.9)	541(69.4)	324(41.6)	369(47.4)	214(27.5)	67(8.6)	238(30.6)	93(11.9)	152(19.5)	48(6.2)	53(6.8)	13(1.7)

주 : 악기연습, 그림그리기, 음식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건강과 밀접한 식사생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일 3회 식사를 모두 먹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명 중 1명(33%)에 불과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식사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하루 식사 횟수

(N= 1,242, 단위: 명, %)

구분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배고플 때 식사 ¹	χ^2
전체		56(4.5)	605(48.7)	410(33.0)	171(13.8)	-
성별	남성	11(2.2)	244(48.4)	201(39.9)	48(9.5)	33.419***
	여성	45(6.1)	361(48.9)	209(28.3)	123(16.7)	
연령	14~16세	6(2.5)	101(42.4)	106(44.5)	25(10.5)	34.528***
	17~19세	32(4.7)	312(46.2)	224(33.1)	108(16.0)	
	20~24세	18(5.5)	192(58.5)	80(24.4)	38(11.6)	
지역	도시	42(4.4)	450(47.4)	314(33.1)	143(15.1)	6.391
	도농/농촌	14(4.8)	155(52.9)	96(32.8)	28(9.6)	
조사지	학교	27(3.8)	377(52.7)	256(35.8)	56(7.8)	54.714***
	센터	29(5.5)	228(43.3)	154(29.3)	115(21.9)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38(8.2)	216(46.7)	100(21.6)	109(23.5)	103.38***
	은둔경험 없음	18(2.3)	389(49.9)	310(39.8)	62(8.0)	

* p<0.05, ** p<0.01, *** p<0.001

주 :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

남자청소년(39.9%)의 경우 3회 식사를 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청소년(28.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 청소년은 1일 1회 식사만 하거나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이 어린 14~16세 청소년들의 규칙적인 식사 횟수가 44.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 청소년들은 과반수(58.5%)가 1일 2회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1일 2~3회 식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5명 중 1명 이상(21.9%)이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거나 1일 1회만 식사한다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31.7%)이 은둔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10.3%)의 3배 이상 많았다. 남자청소년, 연령이 어린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 규칙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은둔 경험은 현재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1일 1회만 식사하거나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남긴 것으로 가

높았다. 성별, 연령, 조사지, 은둔경험 유무가 식사 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소의 식사 방식은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55.8%였으며,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 31.9%, 혼자 방에서 먹는다 12.3%로 나타났다([표 4-9] 및 [그림 4-3]참조).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59.5%)이 여자청소년(53.3%)보다 많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방에서 혼자 먹는다는 응답(14.1%)이 남자청소년(9.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4~16세 청소년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 거주 청소년들(52.9%)보다는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65.2%)이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 식사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식사 방식에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58.9% vs 51.5%),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과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방에서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9] 평소 식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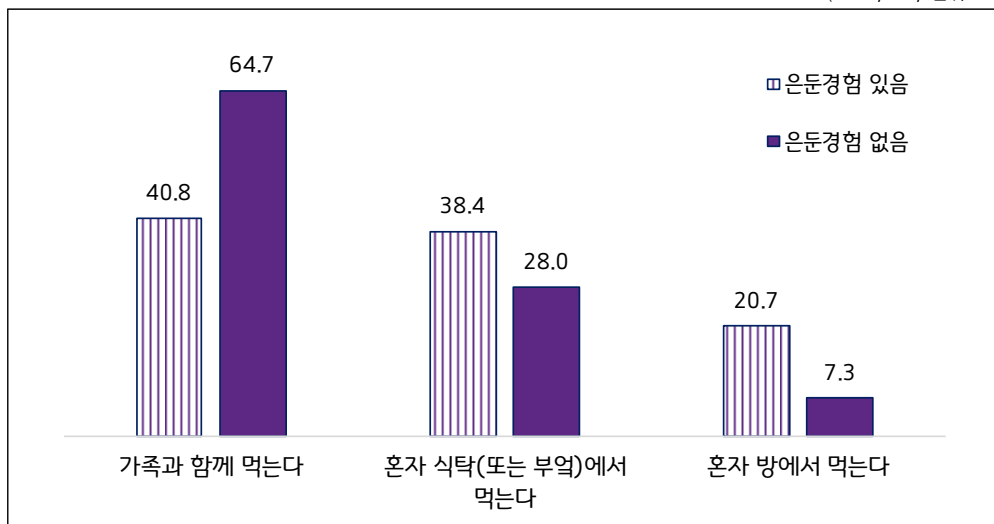
(N= 1,242, 단위: 명, %)

구분		가족과 함께 먹는다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	혼자 방에서 먹는다	χ^2
전체		693(55.8)	396(31.9)	153(12.3)	-
성별	남성	300(59.5)	155(30.8)	49(9.7)	7.093*
	여성	393(53.3)	241(32.7)	104(14.1)	
연령	14~16세	163(68.5)	51(21.4)	24(10.1)	23.129***
	17~19세	369(54.6)	220(32.5)	87(12.9)	
	20~24세	161(49.1)	125(38.1)	42(12.8)	
지역	도시	502(52.9)	323(34.0)	124(13.1)	13.727**
	도농/농촌	191(65.2)	73(24.9)	29(9.9)	
조사지	학교	422(58.9)	224(31.3)	70(9.8)	12.051**
	센터	271(51.5)	172(32.7)	83(15.8)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89(40.8)	178(38.4)	96(20.7)	82.077***
	은둔경험 없음	504(64.7)	218(28.0)	57(7.3)	

* $p<0.05$, ** $p<0.01$, *** $p<0.001$

[그림 4-3]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평소 식사 방식

(N= 1,242, 단위: %)



[표 4-10] 하루 평균 수면시간

(N= 1,242, 단위: 명, %, 시간)

구분		7시간 미만	7~9시간 미만	9~11시간 미만	평균	t/F 검증
전체		388(31.2)	620(49.9)	234(18.8)	7.4	-
성별	남성	146(29.0)	281(55.8)	77(15.3)	7.3	-2.003*
	여성	242(32.8)	339(45.9)	157(21.3)	7.5	
연령	14~16세	60(25.2)	129(54.2)	49(20.6)	7.5	0.929
	17~19세	234(34.6)	309(45.7)	133(19.7)	7.4	
	20~24세	94(28.7)	182(55.5)	52(15.9)	7.3	
지역	도시	314(33.1)	450(47.4)	185(19.5)	7.4	0.038
	도농/농촌	74(25.3)	170(58.0)	49(16.7)	7.4	
조사지	학교	286(39.9)	374(52.2)	56(7.8)	6.9	-11.818***
	센터	102(19.4)	246(46.8)	178(33.8)	8.1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28(27.6)	195(42.1)	140(30.2)	7.8	5.657***
	은둔경험 없음	260(33.4)	425(54.6)	94(12.1)	7.1	

* p<0.05, ** p<0.01, *** p<0.00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7.4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여자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7.5시간으로 남자청소년들의 수면시간(7.3시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으나,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평균 수면시간이 6.9시간이었으나 센터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평균 8.1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7.8시간 잔다고 응답한 반면,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7.1시간 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의 경험은 식사 및 수면과 같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식사와 수면은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기초가 되므로, 은둔의 경험 여부는 청소년들의 현재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11]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

(N= 1,242, 단위: 명, %)

구분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거의 매일 대화한다	χ^2
전체		12(1.0)	155(12.5)	290(23.3)	785(63.2)	-
성별	남성	5(1.0)	82(16.3)	124(24.6)	293(58.1)	13.788**
	여성	7(0.9)	73(9.9)	166(22.5)	492(66.7)	
연령	14-16세	2(0.8)	36(15.1)	54(22.7)	146(61.3)	2.693
	17-19세	7(1.0)	78(11.5)	164(24.3)	427(63.2)	
	20-24세	3(0.9)	41(12.5)	72(22.0)	212(64.6)	
지역	도시	10(1.1)	110(11.6)	216(22.8)	613(64.6)	4.691
	도농/농촌	2(0.7)	45(15.4)	74(25.3)	172(58.7)	
조사지	학교	4(0.6)	85(11.9)	169(23.6)	458(64.0)	3.609
	센터	8(1.5)	70(13.3)	121(23.0)	327(62.2)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7(1.5)	86(18.6)	140(30.2)	230(49.7)	60.622***
	은둔경험 없음	5(0.6)	69(8.9)	150(19.3)	555(71.2)	

* p<0.05, ** p<0.01, *** p<0.001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3.2%가 거의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대화한다 23.3%,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12.5%,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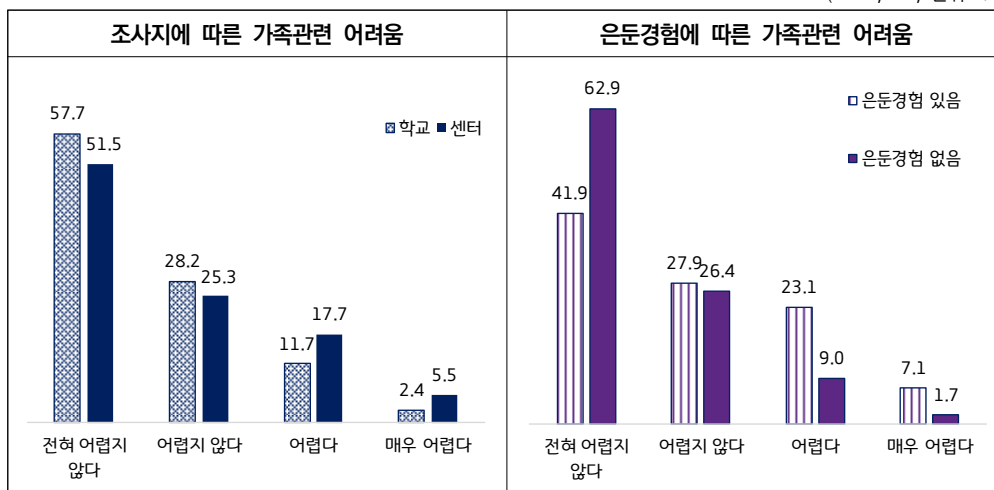
가족과의 대화 정도는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 대화한다는 응답자가 66.7%로 남자청소년(58.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거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17.3%로 여자청소년(10.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1%) 꼴로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거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9.5%)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이었다.

5. 일상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에 해당하는 223명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어렵다'+ '매우 어렵다'의 합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가족관련 어려움

(N= 1,242, 단위: %)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14.1%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관련 어려움을 느낀다(‘어렵다’+‘매우 어렵다’의 합산)고 응답한 반면,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23.2%의 청소년들이 가족관련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조사지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10.7%가 일상생활에서 가족관련 어려움을 느낀다(‘어렵다’+‘매우 어렵다’의 합산)고 응답한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약 3배 가까이 많은 30.2%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관련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는 성적, 학업중단, 진학 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전혀 어렵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어렵다’의 4점 척도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2.31점이며, 이러한 평균은 지역을 제외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2] 학업관련 어려움(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t/F 검증
전체		304(24.5)	379(30.5)	435(35.0)	124(10.0)	2.31	-
성별	남성	148(29.4)	163(32.3)	153(30.4)	40(7.9)	2.17	-4.214***
	여성	156(21.1)	216(29.3)	282(38.2)	84(11.4)	2.40	
연령	14-16세	64(26.9)	75(31.5)	77(32.4)	22(9.2)	2.24	6.349**
	17-19세	148(21.9)	190(28.1)	264(39.1)	74(10.9)	2.39	
	20-24세	92(28.0)	114(34.8)	94(28.7)	28(8.5)	2.18	
지역	도시	216(22.8)	303(31.9)	334(35.2)	96(10.1)	2.33	1.437
	도농/농촌	88(30.0)	76(25.9)	101(34.5)	28(9.6)	2.24	
조사지	학교	176(24.6)	236(33.0)	253(35.3)	51(7.1)	2.25	-2.357*
	센터	128(24.3)	143(27.2)	182(34.6)	73(13.9)	2.38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62(13.4)	115(24.8)	199(43.0)	87(18.8)	2.67	10.980***
	은둔경험 없음	242(31.1)	264(33.9)	236(30.3)	37(4.7)	2.09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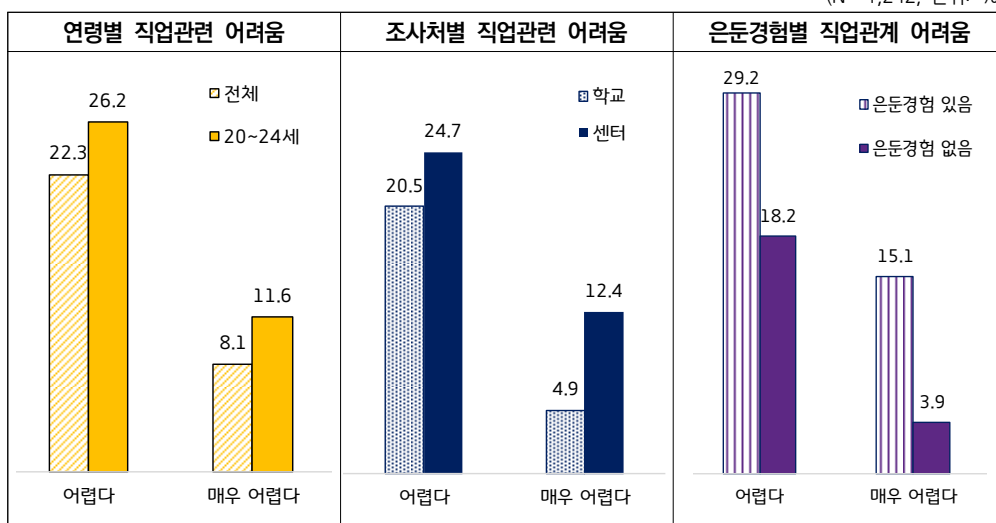
여자청소년인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학업관련 어려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느끼고 있었으며, 비율로 본다면 49.6%의 여자청소년이 어렵다고 인식(‘어렵다’+‘매우 어렵다’)한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38.3%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진학을 앞둔 17~19세 청소년들이 평균 2.39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p<.01$), 조사지별로는 센터 청소년인 경우 평균 2.38점으로 학교 조사지인 청소년(2.25점)보다 학업관련 어려움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p<.05$).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업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평균 2.67점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2.09점)과 평균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여주었다($p<.001$). 모든 변수의 범주를 망라하여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어려움 인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실패 또는 실직 등과 같은 직업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령, 조사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연령, 조사지,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직업관련 어려움

(N= 1,242, 단위: %)



20~24세 응답자의 3명 중 1명 이상(37.8%)이 일상생활에서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어렵다'+ '매우 어렵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25.4%,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37.1%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44.3%가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22.1%)의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26.4%)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표 4-13]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t/F 검증
전체		530(42.7)	384(30.9)	241(19.4)	87(7.0)	1.91	-
성별	남성	251(49.8)	147(29.2)	79(15.7)	27(5.4)	1.77	-4.394***
	여성	279(37.8)	237(32.1)	162(22.0)	60(8.1)	2.00	
연령	14~16세	97(40.8)	74(31.1)	52(21.8)	15(6.3)	1.94	3.143*
	17~19세	272(40.2)	213(31.5)	143(21.2)	48(7.1)	1.95	
	20~24세	161(49.1)	97(29.6)	46(14.0)	24(7.3)	1.80	
지역	도시	406(42.8)	283(29.8)	191(20.1)	69(7.3)	1.92	0.769
	도농/농촌	124(42.3)	101(34.5)	50(17.1)	18(6.1)	1.87	
조사지	학교	312(43.6)	254(35.5)	123(17.2)	27(3.8)	1.81	-4.073***
	센터	218(41.4)	130(24.7)	118(22.4)	60(11.4)	2.04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04(22.5)	135(29.2)	154(33.3)	70(15.1)	2.41	14.860***
	은둔경험 없음	426(54.7)	249(32.0)	87(11.2)	17(2.2)	1.61	

* p<0.05, ** p<0.01, *** p<0.001

4점 척도로 어려움을 분석하였을 때, 성별, 연령, 조사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들 평균의 차이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변수별 응답자의 분포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21.1%가 어렵다고 인지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30.1%가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17~19세 연령 청소년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28.3%) 있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21%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33.8%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조사지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가 확연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은둔경험의 변수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8.4%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13.4%)의 3.6배 이상 많음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외로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하고,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표 4-14 참조), 연령을 제외한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보였던 변수들을 분포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4] 외로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t/F 검증
전체		452(36.4)	371(29.9)	280(22.5)	139(11.2)	2.09	-
성별	남성	217(43.1)	163(32.3)	89(17.7)	35(6.9)	1.88	-5.950***
	여성	235(31.8)	208(28.2)	191(25.9)	104(14.1)	2.22	
연령	14~16세	97(40.8)	71(29.8)	47(19.7)	23(9.7)	1.98	1.709
	17~19세	235(34.8)	200(29.6)	163(24.1)	78(11.5)	2.12	
	20~24세	120(36.6)	100(30.5)	70(21.3)	38(11.6)	2.08	
지역	도시	336(35.4)	269(28.3)	224(23.6)	120(12.6)	2.13	3.313**
	도농/농촌	116(39.6)	102(34.8)	56(19.1)	19(6.5)	1.92	
조사지	학교	299(41.8)	235(32.8)	144(20.1)	38(5.3)	1.89	-7.902***
	센터	153(29.1)	136(25.9)	136(25.9)	101(19.2)	2.35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70(15.1)	114(24.6)	160(34.6)	119(25.7)	2.71	17.929***
	은둔경험 없음	382(49.0)	257(33.0)	120(15.4)	20(2.6)	1.72	

* p<0.05, ** p<0.01, *** p<0.001

남자청소년의 24.6%가 어려움을 느낀다(‘어렵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40%가 정신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성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정신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외로움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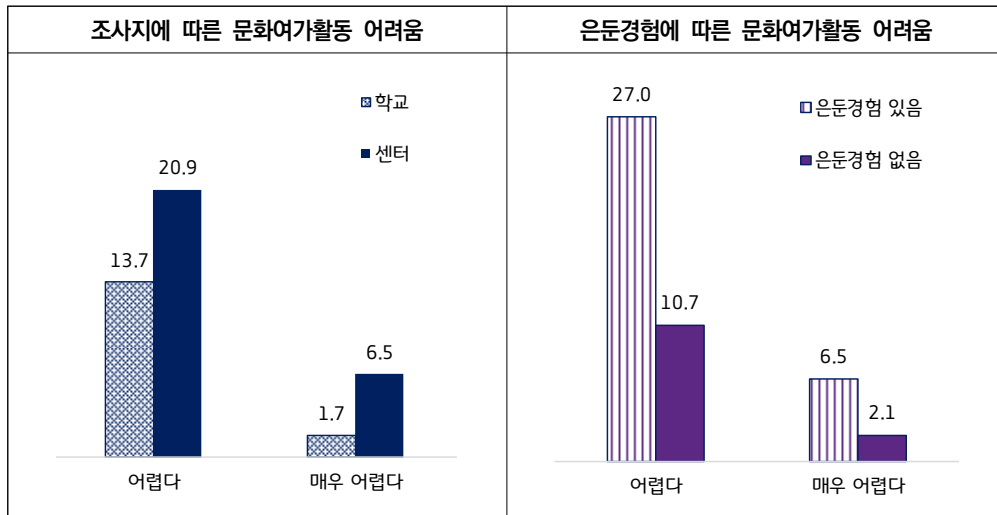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36.2%가 정신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은 25.6%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25.4%,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45.1%로 나타나 조사지에 따른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과반인 60.3%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비율은 18%에 머물러 3.4배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모든 변수 중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이 2.71점으로 가장 현저하게 높았다.

문화·여가활동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에서는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만이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 정도(4점 척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6]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N= 1,242, 단위: %)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15.4%가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27.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6] 참조).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12.8%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배가 넘는 27.4%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와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특별히 취약할 수 있는 집단 대상의 사업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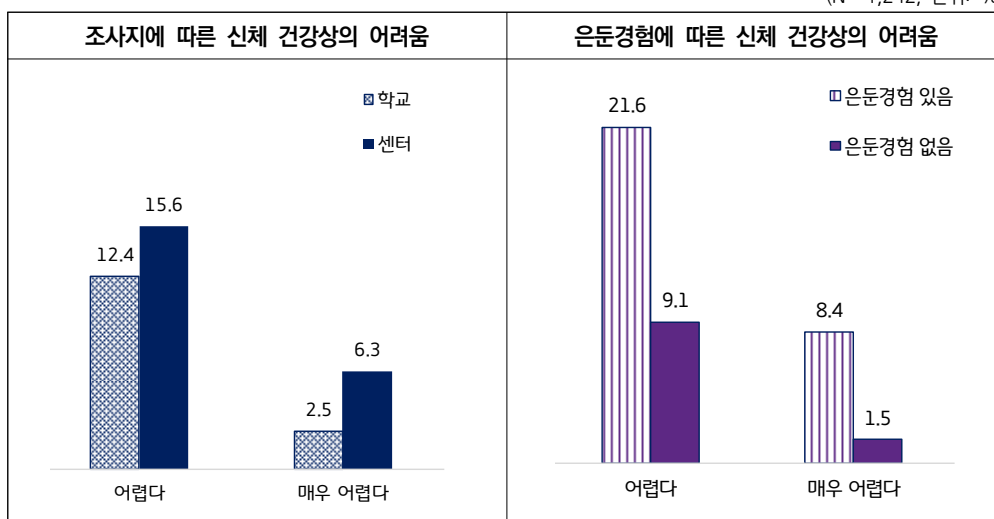
[그림 4-7]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해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앞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처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이 더 큰 크게 나타났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다. 이러한 특성을 응답 분포로 살펴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14.9%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21.9%로 나타났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0%가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10.6%로 나타나 이들 응답 분포에 있어서 3배 가까운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단절되었던 은둔의 경험은 현재 체감하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조사지 및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N= 1,242, 단위: %)



용돈 및 생활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5]와 같다.

남성(2.02점)보다는 여성(2.17점)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p<.01$), 응답의 분포로 보면, 여자청소년의 36.3%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29.3%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가장 많은 20~24세 집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2.16점으로 가장 컸고,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 어려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작았다($p<.01$).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2.25점)가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2.0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고($p<.001$),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2.45점)가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1.9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

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모든 변수의 항목 중 가장 큰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응답의 분포로 본다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반수 가까운 49.1%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 24.2%와 큰 격차를 보였다.

[표 4-15] 경제적 어려움(용돈의 부족, 생활비 부족 등)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t/F 검증
전체		409(32.9)	417(33.6)	287(23.1)	129(10.4)	2.11	-
성별	남성	177(35.1)	179(35.5)	110(21.8)	38(7.5)	2.02	-2.765**
	여성	232(31.4)	238(32.2)	177(24.0)	91(12.3)	2.17	
연령	14~16세	86(36.1)	96(40.3)	40(16.8)	16(6.7)	1.94	4.368*
	17~19세	221(32.7)	208(30.8)	175(25.9)	72(10.7)	2.14	
	20~24세	102(31.1)	113(34.5)	72(22.0)	41(12.5)	2.16	
지역	도시	317(33.4)	303(31.9)	224(23.6)	105(11.1)	2.12	0.927
	도농/농촌	92(31.4)	114(38.9)	63(21.5)	24(8.2)	2.06	
조사지	학교	247(34.5)	263(36.7)	158(22.1)	48(6.7)	2.01	-4.112***
	센터	162(30.8)	154(29.3)	129(24.5)	81(15.4)	2.25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06(22.9)	130(28.1)	141(30.5)	86(18.6)	2.45	9.307***
	은둔경험 없음	303(38.9)	287(36.8)	146(18.7)	43(5.5)	1.91	

* p<0.05, ** p<0.01, *** p<0.001

6.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과거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1명(24.2%)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16] 참조). 과거의 친구들로부터 겪은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의 17.3%가 친구들에게 왕따라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29.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p<.001$).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서 왕따나 괴롭힘의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3 집단의 응답 분포가 유의미하였는데($p<.001$), 연령이 가장 낮은 14~16세의 경우 왕따나 괴롭힘의 경험은 14.3%였지만 연령이 가장 많은 20~24세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29.3%까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8%였으나 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25.6%로 격차를 보였으며($p<.05$),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17%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34%의 응답을 보여 2배의 격차를 보였다($p<.001$).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2.8%가 왕따나 괴롭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3.4%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상처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이 은둔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선행연구(이영식 외, 2022; 차주환 외, 2023에서 재인용)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표 4-16]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N= 1,242,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χ^2
전체		301(24.2)	941(75.8)	-
성별	남성	87(17.3)	417(82.7)	22.462***
	여성	214(29.0)	524(71.0)	
연령	14~16세	34(14.3)	204(85.7)	17.770***
	17~19세	171(25.3)	505(74.7)	
	20~24세	96(29.3)	232(70.7)	
지역	도시	243(25.6)	706(74.4)	4.117*
	도농/농촌	58(19.8)	235(80.2)	
조사지	학교	122(17.0)	594(83.0)	47.678***
	센터	179(34.0)	347(66.0)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201(43.4)	262(56.6)	147.854***
	은둔경험 없음	100(12.8)	679(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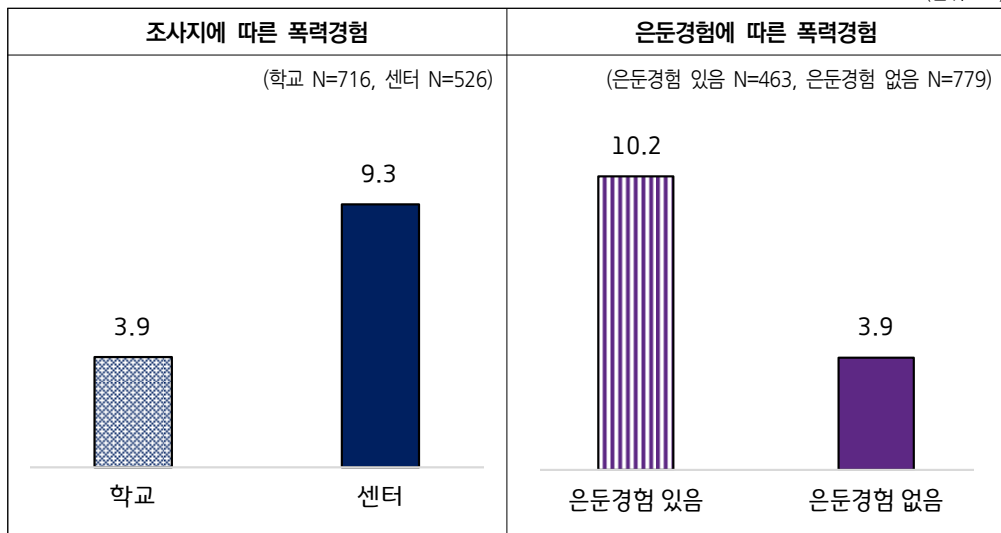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왕따 및 괴롭힘에서 더 나아가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심각한 폭력의 경험은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각한 폭력의 경험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3.9%가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9.3%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0명 중 1명(10.2%)은 그러한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3.9%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림 4-8]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의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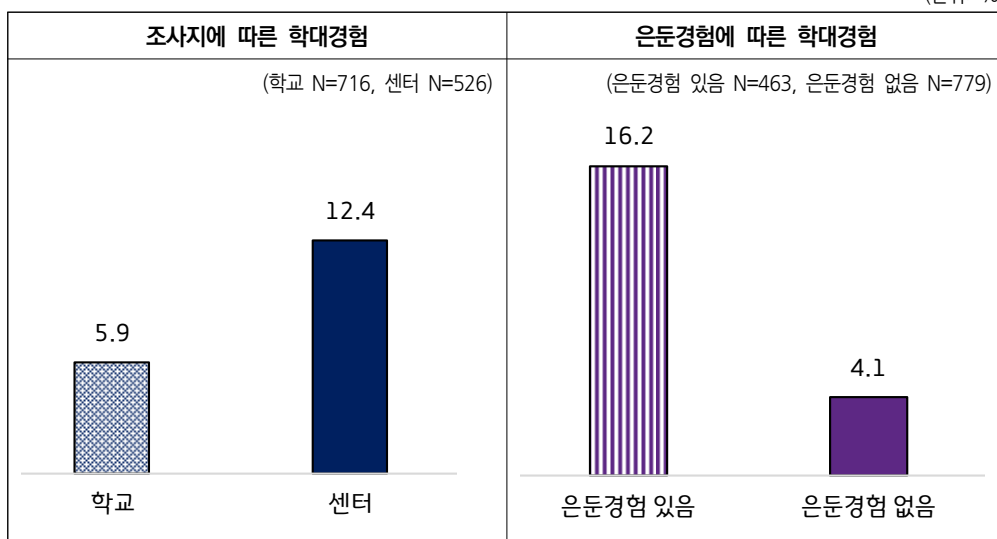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은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5.9%가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의 경우 12.4%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6.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4.1%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림 4-9]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7. 주관적인 행복감

현재의 행복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4점 척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2.83점이었고, 응답의 분포 상에서는 행복하다는 응답(‘행복한 편이다’+‘매우 행복하다’)이 73.6%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행복 수준 평균을 차이 검증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자청소년의 행복 수준(2.89점)이 여자청소년의 행복 수준(2.79점)보다 높았으며($p < .05$), 연령별로는 14~16세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2.95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4세 집단이 2.85점, 그리고 17~19세 집단의 행복 수준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p < .01$). 도시 거주 청소년들(2.79점)보다는 농촌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2.99점)의 행복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p < .001$).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2.92점)은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2.72점)보다 높았다($p < .001$).

은둔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은 2.52점으로 나타나 은둔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 3.02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은둔경험의 여부는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항목 중 행복 수준의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의 특성을 보였다. 응답의 분포를 비율로 살펴보면, 은둔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은 54.6%인 반면, 은둔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나 은둔 경험 여부에 따라 30%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과거 혹은 현재의 은둔 경험은 청소년들의 현재 행복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4-17] 현재 행복수준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평균	t/F 검증
전체		45(3.6)	282(22.7)	748(60.2)	167(13.4)	2.83	-
성별	남성	15(3.0)	107(21.2)	298(59.1)	84(16.7)	2.89	2.524*
	여성	30(4.1)	175(23.7)	450(61.0)	83(11.2)	2.79	
연령	14~16세	7(2.9)	47(19.7)	134(56.3)	50(21.0)	2.95	5.215**
	17~19세	28(4.1)	165(24.4)	406(60.1)	77(11.4)	2.79	
	20~24세	10(3.0)	70(21.3)	208(63.4)	40(12.2)	2.85	
지역	도시	39(4.1)	228(24.0)	578(60.9)	104(11.0)	2.79	-4.378***
	도농/농촌	6(2.0)	54(18.4)	170(58.0)	63(21.5)	2.99	
조사지	학교	15(2.1)	131(18.3)	467(65.2)	103(14.4)	2.92	4.917***
	센터	30(5.7)	151(28.7)	281(53.4)	64(12.2)	2.72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38(8.2)	172(37.1)	227(49.0)	26(5.6)	2.52	-12.539***
	은둔경험 없음	7(0.9)	110(14.1)	521(66.9)	141(18.1)	3.02	

* $p<0.05$, ** $p<0.01$, *** $p<0.001$

[표 4-18]은 무기력감의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점 척도 상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2.62점이며, 나는 무기력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산)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모두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였는데,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2.36점)보다는 여자청소년(2.80점)가 무기력감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있었고, 연령별

로는 17~19세(2.74점) 집단의 무기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2.68점)이 응답한 무기력감의 정도가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2.42점)보다 높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2.42점)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2.89점)의 무기력감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무기력감 정도는 2.14점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의 모든 범주 내에서 가장 낮았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무기력감 정도는 3.43점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의 모든 범주 내에서 가장 높았다.

[표 4-18]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무기력하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308(24.8)	308(24.8)	290(23.3)	221(17.8)	115(9.3)	2.62	-
성별	남성	143(28.4)	155(30.8)	115(22.8)	65(12.9)	26(5.2)	2.36	-6.179***
	여성	165(22.4)	153(20.7)	175(23.7)	156(21.1)	89(12.1)	2.80	
연령	14~16세	73(30.7)	67(28.2)	47(19.7)	35(14.7)	16(6.7)	2.39	7.610**
	17~19세	142(21.0)	163(24.1)	169(25.0)	133(19.7)	69(10.2)	2.74	
	20~24세	93(28.4)	78(23.8)	74(22.6)	53(16.2)	30(9.1)	2.54	
지역	도시	229(24.1)	219(23.1)	222(23.4)	185(19.5)	94(9.9)	2.68	3.116**
	도농/농촌	79(27.0)	89(30.4)	68(23.2)	36(12.3)	21(7.2)	2.42	
조사지	학교	199(27.8)	198(27.7)	179(25.0)	100(14.0)	40(5.6)	2.42	-6.398***
	센터	109(20.7)	110(20.9)	111(21.1)	121(23.0)	75(14.3)	2.89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42(9.1)	65(14.0)	112(24.2)	142(30.7)	102(22.0)	3.43	18.771***
	은둔경험 없음	266(34.1)	243(31.2)	178(22.8)	79(10.1)	13(1.7)	2.14	

* p<0.05, ** p<0.01, *** p<0.001

장애에 대한 생각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 비관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4-19] 참조),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2.52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적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2.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2.36점)보다 여자청소년(2.63점)들이 보다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7~19세 집단의 청소년들(2.63점)이 가장 비관적이었고, 도시 거주 청소년들(2.58점)이 도농

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2.31점)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2.37점)보다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2.72점)이 장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3.23점)이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2.10점)보다 장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4-19]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324(26.1)	327(26.3)	313(25.2)	178(14.3)	100(8.1)	2.52	-
성별	남성	149(29.6)	144(28.6)	122(24.2)	60(11.9)	29(5.8)	2.36	-3.872***
	여성	175(23.7)	183(24.8)	191(25.9)	118(16.0)	71(9.6)	2.63	
연령	14~16세	81(34.0)	62(26.1)	55(23.1)	27(11.3)	13(5.5)	2.28	7.251**
	17~19세	154(22.8)	172(25.4)	183(27.1)	106(15.7)	61(9.0)	2.63	
	20~24세	89(27.1)	93(28.4)	75(22.9)	45(13.7)	26(7.9)	2.47	
지역	도시	245(25.8)	228(24.0)	239(25.2)	150(15.8)	87(9.2)	2.58	3.628***
	도농/농촌	79(27.0)	99(33.8)	74(25.3)	28(9.6)	13(4.4)	2.31	
조사지	학교	191(26.7)	218(30.4)	188(26.3)	87(12.2)	32(4.5)	2.37	-4.761***
	센터	133(25.3)	109(20.7)	125(23.8)	91(17.3)	68(12.9)	2.72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52(11.2)	83(17.9)	126(27.2)	112(24.2)	90(19.4)	3.23	16.307***
	은둔경험 없음	272(34.9)	244(31.3)	187(24.0)	66(8.5)	10(1.3)	2.10	

* p<0.05, ** p<0.01, *** p<0.001

앞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행복감, 무기력감, 장래의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었다.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청소년, 그리고 은둔 유경험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가장 극단의 평균 점수를 보이는 변수는 은둔경험의 유무였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고 그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4.9%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11.1%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33.2%)보다는 여자청소년(54.9%)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가끔 생각한

다+‘자주 생각한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서도 자살 생각의 경험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 거주 청소년들 중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반수인 50%인 반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 중에서는 33.5%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과반이 못되는 40.5%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과반수인 53.6%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33.1%의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7.8%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인 22.2%의 청소년들이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자살위험을 높이는 주요 변수(이수비 외, 2022; Daniel and Goldston, 2012; 조미형·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20]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

(N= 1,242, 단위: 명, %)

구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χ^2
전체		670(53.9)	434(34.9)	138(11.1)	-
성별	남성	337(66.9)	141(28.0)	26(5.2)	65.076***
	여성	333(45.1)	293(39.7)	112(15.2)	
연령	14-16세	135(56.7)	81(34.0)	22(9.2)	5.806
	17-19세	345(51.0)	251(37.1)	80(11.8)	
	20-24세	190(57.9)	102(31.1)	36(11.0)	
지역	도시	475(50.1)	350(36.9)	124(13.1)	29.461***
	도농/농촌	195(66.6)	84(28.7)	14(4.8)	
조사지	학교	426(59.5)	240(33.5)	50(7.0)	36.568***
	센터	244(46.4)	194(36.9)	88(16.7)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149(32.2)	211(45.6)	103(22.2)	171.056***
	은둔경험 없음	521(66.9)	223(28.6)	35(4.5)	

* $p<0.05$, ** $p<0.01$, *** $p<0.001$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4-21] 참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부담, 학업중단, 성적 등과 같은 학업문제(21.9%), 가족 간의 갈등(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을 간추려 보면, 20~24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연령 집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느끼는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입직의 시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가장 어린 집단인 14~16세 집단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갈등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 및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연령임을 보여주었다.

[표 4-21]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N=572, 단위: 명, %)

구분		학업문제 ¹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²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³	정신적 문제 ⁴	기타
전체		125(21.9)	90(15.7)	41(7.2)	50(8.7)	173(30.2)	46(8.0)	47(8.2)
성별	남성	36(21.6)	25(15.0)	11(6.6)	21(12.6)	50(29.9)	8(4.8)	16(9.6)
	여성	89(22.0)	65(16.0)	30(7.4)	29(7.2)	123(30.4)	38(9.4)	31(7.7)
연령	14~16세	30(29.1)	24(23.3)	12(11.7)	5(4.9)	19(18.4)	6(5.8)	7(6.8)
	17~19세	81(24.5)	49(14.8)	19(5.7)	20(6.0)	102(30.8)	34(10.3)	26(7.9)
	20~24세	14(10.1)	17(12.3)	10(7.2)	25(18.1)	52(37.7)	6(4.3)	14(10.1)
지역	도시	95(20.0)	77(16.2)	32(6.8)	42(8.9)	148(31.2)	40(8.4)	40(8.4)
	도농/농촌	30(30.6)	13(13.3)	9(9.2)	8(8.2)	25(25.5)	6(6.1)	7(7.1)
조사지	학교	84(29.0)	48(16.6)	22(7.6)	21(7.2)	86(29.7)	16(5.5)	13(4.5)
	센터	41(14.5)	42(14.9)	19(6.7)	29(10.3)	87(30.9)	30(10.6)	34(12.1)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43(13.7)	47(15.0)	21(6.7)	33(10.5)	106(33.8)	33(10.5)	31(9.9)
	은둔경험 없음	82(31.8)	43(16.7)	20(7.8)	17(6.6)	67(26.0)	13(5.0)	16(6.2)

주 1 : 학업부담, 학업중단, 성적 등

2 : 선후배·또래·동료와의 갈등, 학교폭력, 기타폭력 등

3 : 진로, 취업 등

4 : 우울, 무기력 등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30.6%) 응답자들은 도시지역(20.0%)과 비교하여 학업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들의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지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4-22] 참조), 27.6%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잘사는 편이다’+‘매우 잘산다’)하였고, 17.9%의 응답자들이 부정적(‘매우 어렵다’+‘어려운 편이다’)인 인식을 보였다. 5점 척도 상에서 남자청소년의 인식은 3.19점으로 여자청소년의 인식(3.02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별 이외에도 지역, 조사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 인식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변수 중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3.20점으로 모든 변수의 범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3점이 안되는 2.91점으로 모든 변수의 범주를 통틀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표 4-22]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매우 잘산다	평균	t/F 검증
전체		45(3.6)	178(14.3)	677(54.5)	305(24.6)	37(3.0)	3.09	-
성별	남성	11(2.2)	62(12.3)	277(55.0)	130(25.8)	24(4.8)	3.19	3.537***
	여성	34(4.6)	116(15.7)	400(54.2)	175(23.7)	13(1.8)	3.02	
연령	14-16세	7(2.9)	30(12.6)	126(52.9)	65(27.3)	10(4.2)	3.17	1.573
	17-19세	23(3.4)	109(16.1)	362(53.6)	163(24.1)	19(2.8)	3.07	
	20-24세	15(4.6)	39(11.9)	189(57.6)	77(23.5)	8(2.4)	3.07	
지역	도시	34(3.6)	126(13.3)	517(54.5)	240(25.3)	32(3.4)	3.12	2.098*
	도농/농촌	11(3.8)	52(17.7)	160(54.6)	65(22.2)	5(1.7)	3.00	
조사지	학교	13(1.8)	87(12.2)	402(56.1)	201(28.1)	13(1.8)	3.16	3.592***
	센터	32(6.1)	91(17.3)	275(52.3)	104(19.8)	24(4.6)	2.99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27(5.8)	99(21.4)	241(52.1)	82(17.7)	14(3.0)	2.91	-6.257***
	은둔경험 없음	18(2.3)	79(10.1)	436(56.0)	223(28.6)	23(3.0)	3.20	

* p<0.05, ** p<0.01, *** p<0.001

[표 4-2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	기타
전체		174(14.0)	216(17.4)	415(33.4)	68(5.5)	10(0.8)	10(0.8)	315(25.4)	6(0.5)	26(2.1)	2(0.2)
성별	남성	64(12.7)	112(22.2)	151(30.0)	19(3.8)	8(1.6)	3(0.6)	142(28.2)	4(0.8)	1(0.2)	0(0.0)
	여성	110(14.9)	104(14.1)	264(35.8)	49(6.6)	2(0.3)	7(0.9)	173(23.4)	2(0.3)	25(3.4)	2(0.3)
연령	14-16세	35(14.7)	38(16.0)	72(30.3)	13(5.5)	5(2.1)	4(1.7)	69(29.0)	0(0.0)	2(0.8)	0(0.0)
	17-19세	103(15.2)	122(18.0)	221(32.7)	33(4.9)	4(0.6)	3(0.4)	166(24.6)	4(0.6)	18(2.7)	2(0.3)
	20-24세	36(11.0)	56(17.1)	122(37.2)	22(6.7)	1(0.3)	3(0.9)	80(24.4)	2(0.6)	6(1.8)	0(0.0)
지역	도시	143(15.1)	167(17.6)	320(33.7)	51(5.4)	6(0.6)	4(0.4)	231(24.3)	4(0.4)	21(2.2)	2(0.2)
	도농/농촌	31(10.6)	49(16.7)	95(32.4)	17(5.8)	4(1.4)	6(2.0)	84(28.7)	2(0.7)	5(1.7)	0(0.0)
조사지	학교	84(11.7)	136(19.0)	241(33.7)	39(5.4)	8(1.1)	7(1.0)	191(26.7)	5(0.7)	3(0.4)	2(0.3)
	센터	90(17.1)	80(15.2)	174(33.1)	29(5.5)	2(0.4)	3(0.6)	124(23.6)	1(0.2)	23(4.4)	0(0.0)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115(24.8)	56(12.1)	135(29.2)	28(6.0)	3(0.6)	5(1.1)	97(21.0)	1(0.2)	22(4.8)	1(0.2)
	은둔경험 없음	59(7.6)	160(20.5)	280(35.9)	40(5.1)	7(0.9)	5(0.6)	218(28.0)	5(0.6)	4(0.5)	1(0.1)

[표 4-24]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3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아웃/ 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	기타
전체		174(14.0)	589(47.4)	898(72.3)	446(35.9)	88(7.1)	60(4.8)	814(65.5)	80(6.4)	134(10.8)	31(2.5)
성별	남성	64(12.7)	281(55.8)	372(73.8)	174(34.5)	51(10.1)	32(6.3)	333(66.1)	26(5.2)	32(6.3)	9(1.8)
	여성	110(14.9)	308(41.7)	526(71.3)	272(36.9)	37(5.0)	28(3.8)	481(65.2)	54(7.3)	102(13.8)	22(3.0)
연령	14~16세	35(14.7)	97(40.8)	176(73.9)	85(35.7)	32(13.4)	24(10.1)	147(61.8)	16(6.7)	19(8.0)	5(2.1)
	17~19세	103(15.2)	331(49.0)	476(70.4)	212(31.4)	50(7.4)	23(3.4)	444(65.7)	46(6.8)	87(12.9)	19(2.8)
	20~24세	36(11.0)	161(49.1)	246(75.0)	149(45.4)	6(1.8)	13(4.0)	223(68.0)	18(5.5)	28(8.5)	7(2.1)
지역	도시	143(15.1)	447(47.1)	683(72.0)	333(35.1)	57(6.0)	35(3.7)	613(64.6)	62(6.5)	108(11.4)	27(2.8)
	도농/농촌	31(10.6)	142(48.5)	215(73.4)	113(38.6)	31(10.6)	25(8.5)	201(68.6)	18(6.1)	26(8.9)	4(1.4)
조사지	학교	84(11.7)	372(52.0)	545(76.1)	265(37.0)	68(9.5)	51(7.1)	499(69.7)	31(4.3)	30(4.2)	9(1.3)
	센터	90(17.1)	217(41.3)	353(67.1)	181(34.4)	20(3.8)	9(1.7)	315(59.9)	49(9.3)	104(19.8)	22(4.2)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115(24.8)	164(35.4)	270(58.3)	134(28.9)	19(4.1)	20(4.3)	258(55.7)	36(7.8)	92(19.9)	17(3.7)
	은둔경험 없음	59(7.6)	425(54.6)	628(80.6)	312(40.1)	69(8.9)	40(5.1)	556(71.4)	44(5.6)	42(5.4)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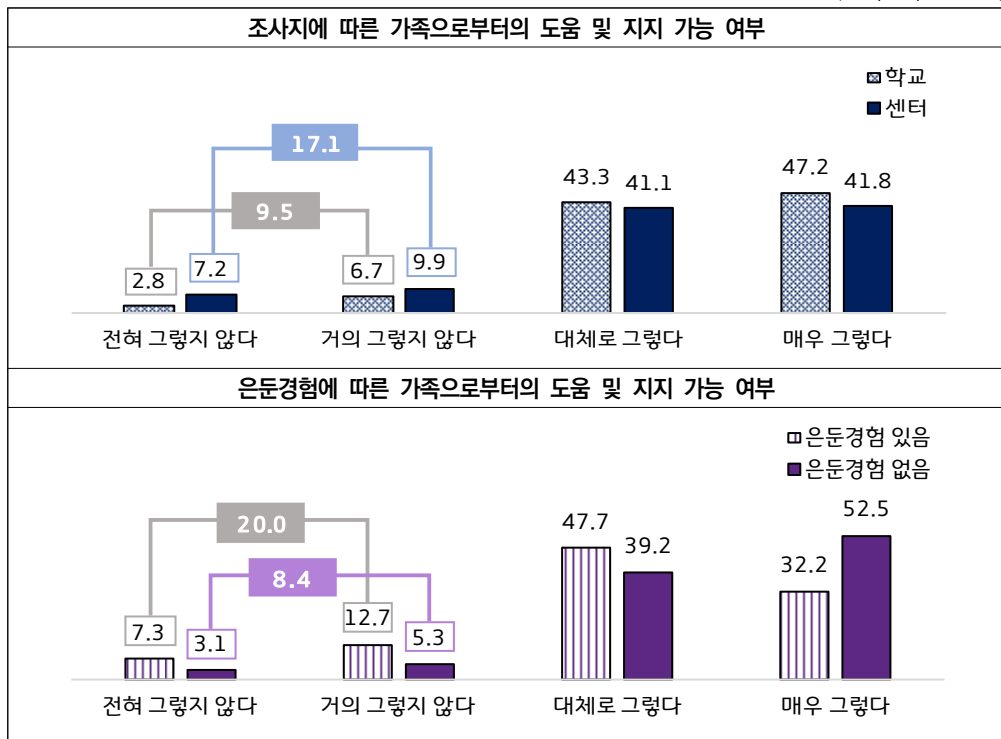
8. 관계, 교류, 지지 자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3] 및 [표 4-24]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4%)이 1순위로 어머니를 꼽았고, 친구(25.4%), 아버지(1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174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명 중 1명(24.8%)이 주변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6.3%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을 1순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3순위 응답을 합산하면,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선생님이라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그림 4-10]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N=1,242, 단위: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87.3%의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0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하는 12.8%의 응답자들은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의 도움과 지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4-10] 참조).

[그림 4-1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가족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9.5%인 반면, 센터인 경우 17.1%로 나타났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8.4%인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0%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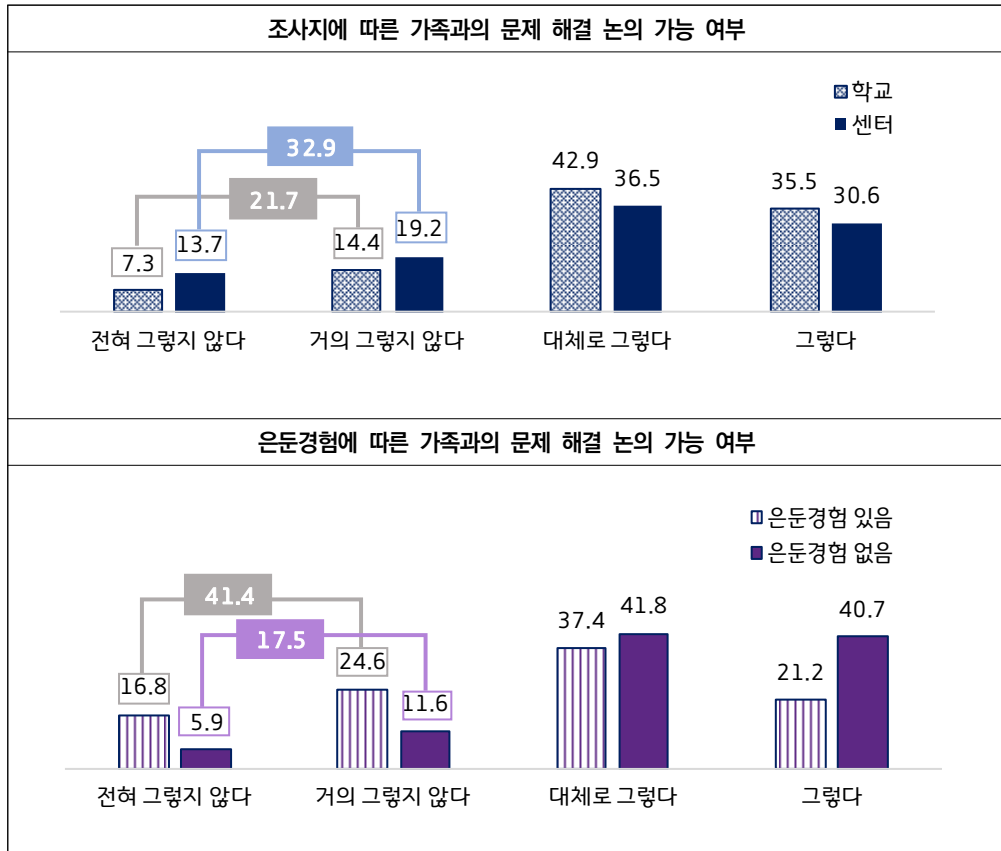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73.6%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였던 87.3%보다는 많이 감소한 수치였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화두로 가족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명제에 대한 응답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앞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림 4-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청소년들은 21.7%인 반면,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에는 32.9%에 이르렀고,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17.5%인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응답은 41.4%에 이르렀다. 가족은 청소년들의 첫 번째 보호망이자 지지 자원이 되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미시적인 환경인 양육자와 가족이 청소년의 지지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육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양육자 및 가족을 자신들의 보호망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과 체계의 촘촘한 구성 및 기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그림 4-11]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N=1,242, 단위: %)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25]와 같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 78.3%의 청소년들이 긍정의 응답(‘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을 하였다.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인 14~16세 청소년들이 3.05점으로 가장 낮았고, 17~19세 3.09점, 20~24세 3.23점으로 나타나 연령별 친구에 대한 응답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사지가 학교(3.28점)인 경우 센터(2.90점)보다 점수가 높았고,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3.33점)가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2.7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보이며 높았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는 다른 모든 특성 변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족의 지지 자원에서 보여주었던 특성처럼 또래 지지 자원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25]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93(7.5)	177(14.3)	464(37.4)	508(40.9)	3.12	-
성별	남성	42(8.3)	67(13.3)	180(35.7)	215(42.7)	3.13	0.326
	여성	51(6.9)	110(14.9)	284(38.5)	293(39.7)	3.11	
연령	14-16세	20(8.4)	37(15.5)	93(39.1)	88(37.0)	3.05	3.522*
	17-19세	54(8.0)	100(14.8)	255(37.7)	267(39.5)	3.09	
	20-24세	19(5.8)	40(12.2)	116(35.4)	153(46.6)	3.23	
지역	도시	78(8.2)	139(14.6)	340(35.8)	392(41.3)	3.10	-1.067
	도농/농촌	15(5.1)	38(13.0)	124(42.3)	116(39.6)	3.16	
조사지	학교	26(3.6)	81(11.3)	278(38.8)	331(46.2)	3.28	7.079***
	센터	67(12.7)	96(18.3)	186(35.4)	177(33.7)	2.90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62(13.4)	106(22.9)	180(38.9)	115(24.8)	2.75	-10.836***
	은둔경험 없음	31(4.0)	71(9.1)	284(36.5)	393(50.4)	3.3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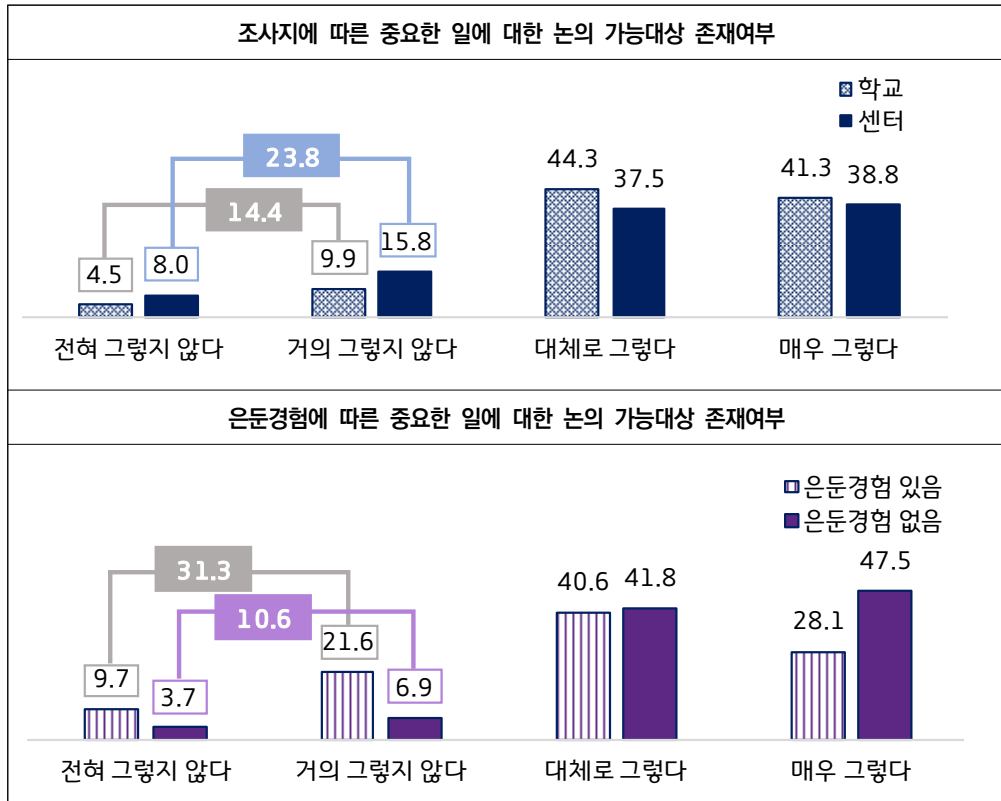
[그림 4-12]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81.7%가 의논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응답을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명제에 대해 14.4%의 청소년들이 부정의 응답을 보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23.8%의 청소년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 10.6%의 청소년들이 부정의 응답을 보인 반면,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 31.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부정의 응답을 보여 2.9배의 응답률 격차를 보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앞에서 가족의 지지 자원과 또래의 지지 자원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준 바 있다. 위기 시 혹은 긴급 시에 자신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할 상대를 갈구할 때,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안에서 지지 자원을 전혀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들이 적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4-12]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다

(N=1,2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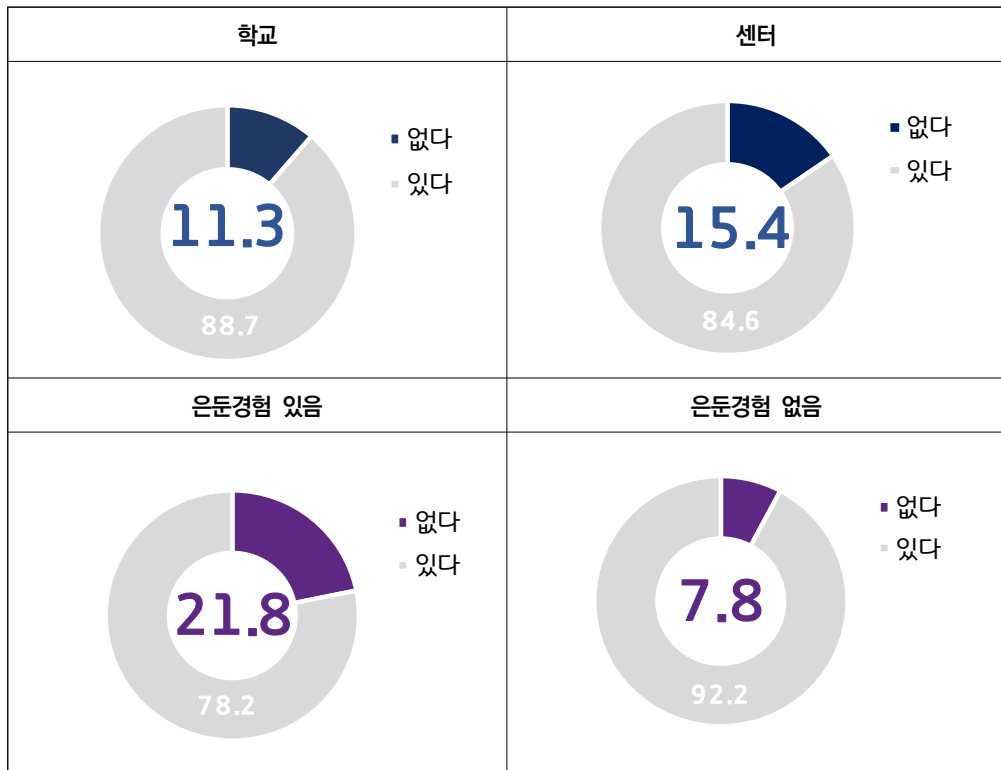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응답의 분포를 카이검증한 결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응답자의 11.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15.4%의 청소년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21.8%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 7.8%가 없다고 응답하여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그림 4-13]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N=1,2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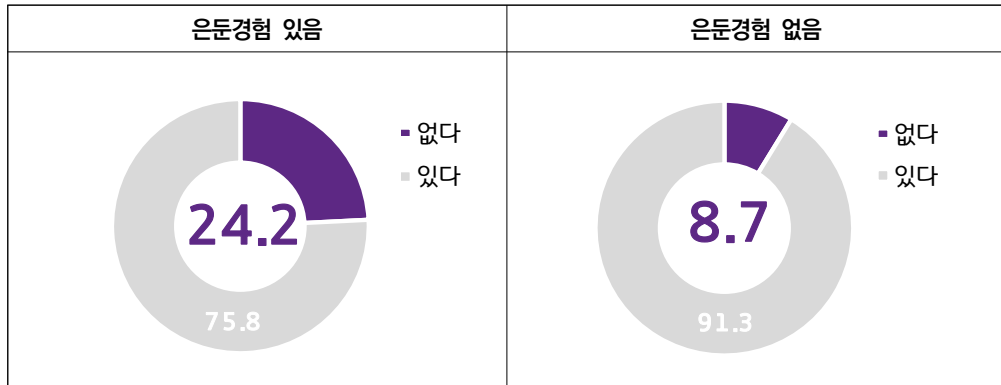


[그림 4-14]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85.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4.5%의 응답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p < .001$).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75.8%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4명 중 1명(24.2%) 정도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위기 시 손을 내밀 사람이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 91.3%의 청소년들이 위기 시 지지 자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14]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여부

(N=1,242, 단위: %)



9. 상담과 지원

과거에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4-26] 참조) 전체 응답자의 34%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경험은 모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였음).

남자청소년의 22.4%가 상담의 경험이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2배에 가까운 41.9%가 상담의 경험이 있었다. 연령 집단별로는 17~19세 집단에서 상담 받은 경험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상담 경험은 37%로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경험 24.2%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22.3%의 청소년들이 상담의 경험이 있었고, 센터인 경우 반수에 가까운 49.8%의 청소년들이 상담의 경험이 있었다. 은둔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과반수인 55.7%가 상담을 경험하였고, 이는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상담 경험률 21.1%보다 2.6배 높은 비율이었다.

은둔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4.3%의 청소년들은 상담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숙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많은 조사 결과에서 은둔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및 주관적인 행복감이 일관되게 저조한 상태였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표 4-26]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

(N= 1,242, 단위: 명,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χ^2
전체		422(34.0)	820(66.0)	-
성별	남성	113(22.4)	391(77.6)	50.500***
	여성	309(41.9)	429(58.1)	
연령	14-16세	61(25.6)	177(74.4)	17.992***
	17-19세	264(39.1)	412(60.9)	
	20-24세	97(29.6)	231(70.4)	
지역	도시	351(37.0)	598(63.0)	16.234***
	도농/농촌	71(24.2)	222(75.8)	
조사지	학교	160(22.3)	556(77.7)	101.954***
	센터	262(49.8)	264(50.2)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258(55.7)	205(44.3)	155.612***
	은둔경험 없음	164(21.1)	615(78.9)	

* p<0.05, ** p<0.01, *** p<0.001

[표 4-27]은 상담을 받은 청소년 422명을 대상으로 상담 이후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상담 이후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많이 좋아졌다’ 합산)는 응답이 60.9%였고, 변화가 없다(‘전혀 없다’+‘거의 없다’ 합산)는 응답은 39.1%였다.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유의미한 변인의 응답을 분포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상담의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p<.05$). 남자청소년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은 68.1%인 반면 여자청소년은 58.2%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많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2.1%에 이르고 있어 상담 이후에 남자청소년들의 변화가 보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은 53.8%였으며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72%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반수 정도인 55.7%의 학생들이 상담을 받았고,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53.8%가 좋아졌다는 응답을 보였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상담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는 1차적인 경험의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7] 상담 후 변화 정도

(N= 42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약간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평균	t/F 검증
전체		40(9.5)	125(29.6)	184(43.6)	73(17.3)	2.69	-
성별	남성	7(6.2)	29(25.7)	52(46.0)	25(22.1)	2.84	2.209*
	여성	33(10.7)	96(31.1)	132(42.7)	48(15.5)	2.63	
연령	14~16세	3(4.9)	22(36.1)	33(54.1)	3(4.9)	2.59	1.165
	17~19세	28(10.6)	81(30.7)	105(39.8)	50(18.9)	2.67	
	20~24세	9(9.3)	22(22.7)	46(47.4)	20(20.6)	2.79	
지역	도시	36(10.3)	96(27.4)	157(44.7)	62(17.7)	2.70	0.568
	도농/농촌	4(5.6)	29(40.8)	27(38.0)	11(15.5)	2.63	
조사지	학교	14(8.8)	46(28.7)	70(43.8)	30(18.8)	2.73	0.699
	센터	26(9.9)	79(30.2)	114(43.5)	43(16.4)	2.66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31(12.0)	88(34.1)	102(39.5)	37(14.3)	2.56	-3.849***
	은둔경험 없음	9(5.5)	37(22.6)	82(50.0)	36(22.0)	2.88	

* p<0.05, ** p<0.01, *** p<0.001

상담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삶과 생활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표 4-28] 참조). 힘들다(‘많이 힘들다’+‘조금 힘들다’ 합산)는 응답자가 36%였고 힘들지 않다(‘별로 힘들지 않다’+‘전혀 힘들지 않다’ 합산)는 응답자가 32.2%였다.

이들이 느끼는 힘든 정도를 5점 척도로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의 범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17~19세 집단에서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더 힘들게 느끼고 있었고, 조사지가 학교 중심인 청소년보다는 센터 중심인 청소년들이 더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은둔경험 여부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변수의 범주를 통틀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힘들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과반수(51.9%)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18.6%의 청소년들은 많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표 4-28] 현재의 삶과 생활 정도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많이 힘들다	조금 힘들다	보통이다	별로 힘들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	평균	t/F 검증
전체		103(8.3)	344(27.7)	395(31.8)	307(24.7)	93(7.5)	2.95	-
성별	남성	27(5.4)	119(23.6)	166(32.9)	136(27.0)	56(11.1)	3.15	5.336***
	여성	76(10.3)	225(30.5)	229(31.0)	171(23.2)	37(5.0)	2.82	
연령	14-16세	17(7.1)	58(24.4)	63(26.5)	70(29.4)	30(12.6)	3.16	7.479**
	17-19세	61(9.0)	209(30.9)	214(31.7)	149(22.0)	43(6.4)	2.86	
	20-24세	25(7.6)	77(23.5)	118(36.0)	88(26.8)	20(6.1)	3.00	
지역	도시	87(9.2)	272(28.7)	308(32.5)	221(23.3)	61(6.4)	2.89	-3.717***
	도농/농촌	16(5.5)	72(24.6)	87(29.7)	86(29.4)	32(10.9)	3.16	
조사지	학교	29(4.1)	203(28.4)	241(33.7)	187(26.1)	56(7.8)	3.05	3.736***
	센터	74(14.1)	141(26.8)	154(29.3)	120(22.8)	37(7.0)	2.82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86(18.6)	154(33.3)	131(28.3)	75(16.2)	17(3.7)	2.53	-10.968***
	은둔경험 없음	17(2.2)	190(24.4)	264(33.9)	232(29.8)	76(9.8)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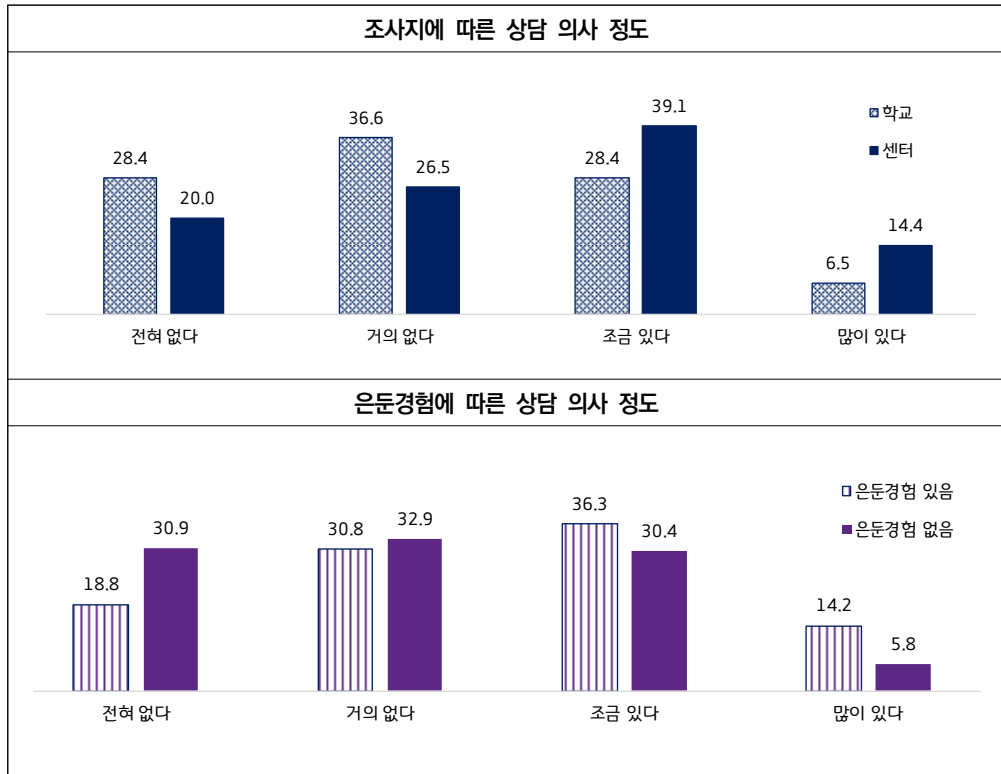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앞선 조사에서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힘든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변수의 응답 분포는 [그림 4-15]와 같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34.9%,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과반인 53.5%의 응답자가 상담을 받을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14.4%의 청소년들은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담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보여주었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50.5%의 청소년들이 상담 받을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응답 비율은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비율보다는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현재의 삶과 생활은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었으나, 이들의 상담에 대한 욕구는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욕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상담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5] 힘든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 정도

(N=447, 단위: %)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25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수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29]와 같다. 가장 많은 중복응답을 보인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62.5%가 답변한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범주였다. 현재의 문제와 상태의 호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57%)’,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37.8%)’의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5명 중 1명(21.1%)은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고 응답하였고, 14.7%의 응답자는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보의 부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29]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N= 251, 단위: 명, %)

구분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쑥스럽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	상담을 어디서 받는지 모른다
전체		157(62.5)	143(57.0)	95(37.8)	65(25.9)	53(21.1)	37(14.7)
성별	남성	58(64.4)	44(48.9)	29(32.2)	23(25.6)	19(21.1)	17(18.9)
	여성	99(61.5)	99(61.5)	66(41.0)	42(26.1)	34(21.1)	20(12.4)
연령	14-16세	18(47.4)	22(57.9)	19(50.0)	12(31.6)	5(13.2)	6(15.8)
	17-19세	102(64.6)	92(58.2)	60(38.0)	43(27.2)	35(22.2)	26(16.5)
	20-24세	37(67.3)	29(52.7)	16(29.1)	10(18.2)	13(23.6)	5(9.1)
지역	도시	124(63.3)	114(58.2)	71(36.2)	48(24.5)	43(21.9)	28(14.3)
	도농/농촌	33(60.0)	29(52.7)	24(43.6)	17(30.9)	10(18.2)	9(16.4)
조사지	학교	88(58.3)	82(54.3)	64(42.4)	48(31.8)	32(21.2)	27(17.9)
	센터	69(69.0)	61(61.0)	31(31.0)	17(17.0)	21(21.0)	10(10.0)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92(77.3)	75(63.0)	51(42.9)	31(26.1)	26(21.8)	17(14.3)
	은둔경험 없음	65(49.2)	68(51.5)	44(33.3)	34(25.8)	27(20.5)	20(15.2)

상담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 4-30] 참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본인이 담당 센터로 찾아가는 센터방문(49%)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상담(31.1%)을 원하였다.

센터 방문이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었지만,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별로는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센터 방문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였던 온라인 비대면의 경우 남자청소년,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비대면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센터의 방문 경험이 있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것들이 용이한 반면, 교통환경이 수월하지 않은 곳, 센터 방문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비대면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4-30]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N= 1,242, 단위: 명, %)

구분		내가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 (센터 방문)	온라인 비대면	상담사가 내 집으로 오는 방법 (가정 방문)	상담사가 집 근처 장소로 오는 방법 (카페, 공용 회의실 등)	χ^2
전체		609(49.0)	386(31.1)	56(4.5)	191(15.4)	-
성별	남성	235(46.6)	172(34.1)	31(6.2)	66(13.1)	11.484**
	여성	374(50.7)	214(29.0)	25(3.4)	125(16.9)	
연령	14-16세	113(47.5)	82(34.5)	8(3.4)	35(14.7)	4.890
	17-19세	346(51.2)	196(29.0)	32(4.7)	102(15.1)	
	20-24세	150(45.7)	108(32.9)	16(4.9)	54(16.5)	
지역	도시	487(51.3)	282(29.7)	40(4.2)	140(14.8)	8.479*
	도농/농촌	122(41.6)	104(35.5)	16(5.5)	51(17.4)	
조사지	학교	320(44.7)	268(37.4)	30(4.2)	98(13.7)	31.967***
	센터	289(54.9)	118(22.4)	26(4.9)	93(17.7)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250(54.0)	117(25.3)	25(5.4)	71(15.3)	13.021**
	은둔경험 없음	359(46.1)	269(34.5)	31(4.0)	120(15.4)	

* p<0.05, ** p<0.01, *** p<0.001

10. 정책욕구

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도를 조사한 결과([표 4-31] 참조), 전체 응답자의 73.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68.4%, 여자청소년의 77.1%가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31.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아르바이트에 대한 희망의사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24세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희망의사가 가장 높아 입직을 앞둔 후기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희망비율은 76.7%로 나타나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희망

비율 71.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지역과 조사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희망 정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4-31]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106(8.5)	222(17.9)	580(46.7)	334(26.9)	2.92	-
성별	남성	56(11.1)	103(20.4)	246(48.8)	99(19.6)	2.77	-4.946***
	여성	50(6.8)	119(16.1)	334(45.3)	235(31.8)	3.02	
연령	14-16세	35(14.7)	60(25.2)	88(37.0)	55(23.1)	2.68	11.720***
	17-19세	53(7.8)	113(16.7)	328(48.5)	182(26.9)	2.95	
	20-24세	18(5.5)	49(14.9)	164(50.0)	97(29.6)	3.04	
지역	도시	73(7.7)	166(17.5)	454(47.8)	256(27.0)	2.94	1.475
	도농/농촌	33(11.3)	56(19.1)	126(43.0)	78(26.6)	2.85	
조사지	학교	61(8.5)	130(18.2)	333(46.5)	192(26.8)	2.92	-0.152
	센터	45(8.6)	92(17.5)	247(47.0)	142(27.0)	2.92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34(7.3)	74(16.0)	216(46.7)	139(30.0)	2.99	2.292*
	은둔경험 없음	72(9.2)	148(19.0)	364(46.7)	195(25.0)	2.88	

* p<0.05, ** p<0.01, *** p<0.001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취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정식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선 아르바이트에 대한 조사와는 다르게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는 변수였다([표 4-32] 참조).

예상대로 후기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가장 강했고, 응답 분포 상에서는 88.4%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취업 욕구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앞서 살펴본 아르바이트 욕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그리고 조사지에 따라 욕구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욕구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색적이다. 취업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도시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추측되며, 센터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경쟁의식을 보다 민감하게 체감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4-32]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취업을 하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115(9.3)	245(19.7)	417(33.6)	465(37.4)	2.99	-
성별	남성	55(10.9)	102(20.2)	154(30.6)	193(38.3)	2.96	-0.878
	여성	60(8.1)	143(19.4)	263(35.6)	272(36.9)	3.01	
연령	14-16세	44(18.5)	77(32.4)	66(27.7)	51(21.4)	2.52	60.216***
	17-19세	61(9.0)	140(20.7)	235(34.8)	240(35.5)	2.97	
	20-24세	10(3.0)	28(8.5)	116(35.4)	174(53.0)	3.38	
지역	도시	77(8.1)	162(17.1)	342(36.0)	368(38.8)	3.05	3.904***
	도농/농촌	38(13.0)	83(28.3)	75(25.6)	97(33.1)	2.79	
조사지	학교	55(7.7)	126(17.6)	259(36.2)	276(38.5)	3.06	2.677**
	센터	60(11.4)	119(22.6)	158(30.0)	189(35.9)	2.90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33(7.1)	98(21.2)	159(34.3)	173(37.4)	3.02	0.769
	은둔경험 없음	82(10.5)	147(18.9)	258(33.1)	292(37.5)	2.98	

* p<0.05, ** p<0.01, *** p<0.001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7%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4-33] 참조).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51.2%, 여자청소년의 62.1%가 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 직업훈련에 대한 희망이 더 강했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욕구 정도(2.76점)는 모든 변수의 범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는 더 강했다.

[표 4-33]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168(13.5)	358(28.8)	494(39.8)	222(17.9)	2.62	-
성별	남성	84(16.7)	162(32.1)	174(34.5)	84(16.7)	2.51	-3.362**
	여성	84(11.4)	196(26.6)	320(43.4)	138(18.7)	2.69	
연령	14-16세	39(16.4)	80(33.6)	73(30.7)	46(19.3)	2.53	2.213
	17-19세	93(13.8)	184(27.2)	289(42.8)	110(16.3)	2.62	
	20-24세	36(11.0)	94(28.7)	132(40.2)	66(20.1)	2.70	
지역	도시	121(12.8)	266(28.0)	393(41.4)	169(17.8)	2.64	1.557
	도농/농촌	47(16.0)	92(31.4)	101(34.5)	53(18.1)	2.55	
조사지	학교	104(14.5)	240(33.5)	268(37.4)	104(14.5)	2.52	-4.475***
	센터	64(12.2)	118(22.4)	226(43.0)	118(22.4)	2.76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48(10.4)	117(25.3)	199(43.0)	99(21.4)	2.75	3.964***
	은둔경험 없음	120(15.4)	241(30.9)	295(37.9)	123(15.8)	2.54	

* p<0.05, ** p<0.01, *** p<0.001

[표 4-34]는 학업적 지원에 대해 청소년들이 생각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응답 분포 상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0.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적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지원 욕구를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조사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들의 학업지원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에게서 학업지원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앞서 조사한 직업훈련과 연관이어서 살펴보자면, 직업훈련이나 학업적 지원이나 모두 여자청소년들의 욕구가 남자청소년보다 더 강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학업적 지원을 더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에 따른 차이는 현재의 자신의 소속이나 상황에 따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된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자청소년들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책적 욕구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4-34] 학업(공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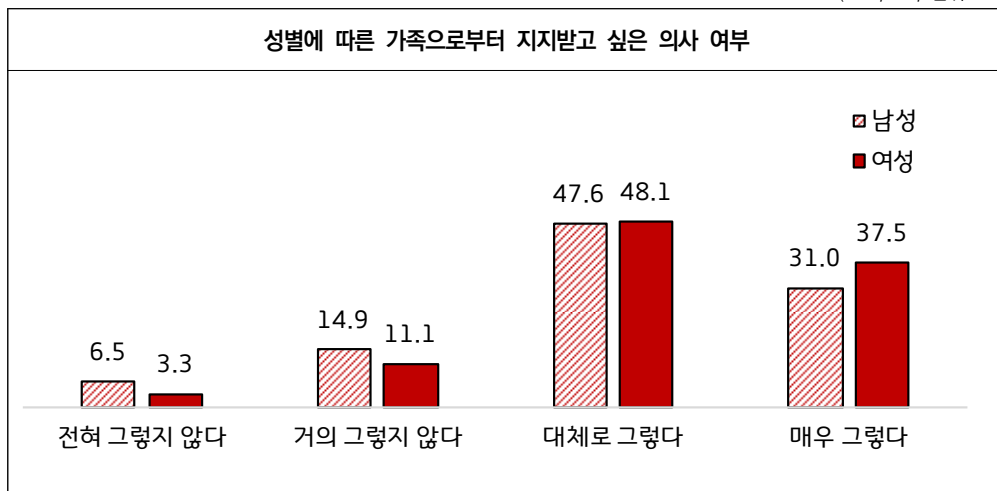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78(6.3)	168(13.5)	496(39.9)	500(40.3)	3.14	-
성별	남성	45(8.9)	84(16.7)	190(37.7)	185(36.7)	3.02	-4.004***
	여성	33(4.5)	84(11.4)	306(41.5)	315(42.7)	3.22	
연령	14-16세	15(6.3)	36(15.1)	80(33.6)	107(45.0)	3.17	0.318
	17-19세	46(6.8)	88(13.0)	278(41.1)	264(39.1)	3.12	
	20-24세	17(5.2)	44(13.4)	138(42.1)	129(39.3)	3.16	
지역	도시	64(6.7)	126(13.3)	387(40.8)	372(39.2)	3.12	-1.256
	도농/농촌	14(4.8)	42(14.3)	109(37.2)	128(43.7)	3.20	
조사지	학교	28(3.9)	90(12.6)	304(42.5)	294(41.1)	3.21	2.978**
	센터	50(9.5)	78(14.8)	192(36.5)	206(39.2)	3.05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28(6.0)	64(13.8)	184(39.7)	187(40.4)	3.14	0.093
	은둔경험 없음	50(6.4)	104(13.4)	312(40.1)	313(40.2)	3.14	

* p<0.05, ** p<0.01, *** p<0.001

[그림 4-16]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

(N=1,242, 단위: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8%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합산)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4-16] 참조) 여자청소년들이 지지 욕구를 표명한 비율은 85.6%인 반면, 남자청소년들이 지지 욕구를 표명한 비율은 78.6%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으로부터 지지 받기 원하는 욕구는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조사지에 상관없이, 은둔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가족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4-35]는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4점 척도로 분석하였을 때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4-35]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141(11.4)	364(29.3)	464(37.4)	273(22.0)	2.70	-
성별	남성	65(12.9)	157(31.2)	190(37.7)	92(18.3)	2.61	-2.699**
	여성	76(10.3)	207(28.0)	274(37.1)	181(24.5)	2.76	
연령	14-16세	32(13.4)	71(29.8)	90(37.8)	45(18.9)	2.62	1.484
	17-19세	73(10.8)	207(30.6)	247(36.5)	149(22.0)	2.70	
	20-24세	36(11.0)	86(26.2)	127(38.7)	79(24.1)	2.76	
지역	도시	113(11.9)	274(28.9)	350(36.9)	212(22.3)	2.70	-0.214
	도농/농촌	28(9.6)	90(30.7)	114(38.9)	61(20.8)	2.71	
조사지	학교	68(9.5)	215(30.0)	283(39.5)	150(20.9)	2.72	0.849
	센터	73(13.9)	149(28.3)	181(34.4)	123(23.4)	2.67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45(9.7)	125(27.0)	174(37.6)	119(25.7)	2.79	2.704**
	은둔경험 없음	96(12.3)	239(30.7)	290(37.2)	154(19.8)	2.64	

* p<0.05, ** p<0.01, *** p<0.001

남자청소년(2.61점)보다는 여자청소년(2.76점)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의논 및 상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2.64점)보다는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2.79점)들의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92%가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표 4-36] 참조). 자연스럽게 정당한 청소년들의 욕구임에 틀림없다. 이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지역, 은둔경험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4-36]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29(2.3)	70(5.6)	493(39.7)	650(52.3)	3.42	-
성별	남성	15(3.0)	38(7.5)	214(42.5)	237(47.0)	3.34	-3.460**
	여성	14(1.9)	32(4.3)	279(37.8)	413(56.0)	3.48	
연령	14-16세	8(3.4)	7(2.9)	104(43.7)	119(50.0)	3.40	0.297
	17-19세	12(1.8)	45(6.7)	270(39.9)	349(51.6)	3.41	
	20-24세	9(2.7)	18(5.5)	119(36.3)	182(55.5)	3.45	
지역	도시	20(2.1)	50(5.3)	361(38.0)	518(54.6)	3.45	2.771**
	도농/농촌	9(3.1)	20(6.8)	132(45.1)	132(45.1)	3.32	
조사지	학교	15(2.1)	42(5.9)	308(43.0)	351(49.0)	3.39	-1.788
	센터	14(2.7)	28(5.3)	185(35.2)	299(56.8)	3.46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10(2.2)	24(5.2)	164(35.4)	265(57.2)	3.48	2.202*
	은둔경험 없음	19(2.4)	46(5.9)	329(42.2)	385(49.4)	3.39	

* $p<0.05$, ** $p<0.01$, *** $p<0.001$

남자청소년(3.34점)보다는 여자청소년(3.48점)의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청소년(3.32점)보다는 도시지역 청소년(3.45점)의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결과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와 시설 조성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외로움 및 우울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현재의 행복수준,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 등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

던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3.48점)의 취미활동 욕구가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3.39점)의 욕구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유사한 맥락에서의 추론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포래 모임 또는 자조 모임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명제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수인 51.5%가 동의하였고, 48.4%가 부동의 하였다. 동의와 부동의에 큰 차이가 없었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37]는 건강검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인 57.7%가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다.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연령 및 조사지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4-37]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N= 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t/F 검증
전체		207(16.7)	319(25.7)	468(37.7)	248(20.0)	2.61	-
성별	남성	86(17.1)	124(24.6)	200(39.7)	94(18.7)	2.60	-0.304
	여성	121(16.4)	195(26.4)	268(36.3)	154(20.9)	2.62	
연령	14-16세	48(20.2)	70(29.4)	82(34.5)	38(16.0)	2.46	10.934***
	17-19세	119(17.6)	187(27.7)	242(35.8)	128(18.9)	2.56	
	20-24세	40(12.2)	62(18.9)	144(43.9)	82(25.0)	2.82	
지역	도시	168(17.7)	231(24.3)	356(37.5)	194(20.4)	2.61	-0.164
	도농/농촌	39(13.3)	88(30.0)	112(38.2)	54(18.4)	2.62	
조사지	학교	94(13.1)	173(24.2)	306(42.7)	143(20.0)	2.70	3.549***
	센터	113(21.5)	146(27.8)	162(30.8)	105(20.0)	2.49	
은둔경험여부	은둔경험 있음	82(17.7)	121(26.1)	155(33.5)	105(22.7)	2.61	0.047
	은둔경험 없음	125(16.0)	198(25.4)	313(40.2)	143(18.4)	2.61	

* p<0.05, ** p<0.01, *** p<0.001

연령 변수에서는 연령이 가장 많은 20~24세 집단(2.82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2.46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정도는 2.7점인 반면, 센터인 경우 2.49점으로 나타나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는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학업과 경쟁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고립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표 4-38] 참조).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7.1%)였고, 그 다음으로는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26.5%)이었다.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2.6%),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12.3%), 또래와 함께하는 모임, 활동지원(11.6%)이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1순위에서 3순위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는 [표 4-39]와 같다.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56.3%),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54.8%),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5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 지원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또래와 함께 하는 모임, 활동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기타
전체		336(27.1)	329(26.5)	94(7.6)	157(12.6)	153(12.3)	144(11.6)	24(1.9)	5(0.4)
성별	남성	131(26.0)	114(22.6)	44(8.7)	65(12.9)	77(15.3)	55(10.9)	14(2.8)	4(0.8)
	여성	205(27.8)	215(29.1)	50(6.8)	92(12.5)	76(10.3)	89(12.1)	10(1.4)	1(0.1)
연령	14~16세	62(26.1)	52(21.8)	13(5.5)	31(13.0)	39(16.4)	31(13.0)	8(3.4)	2(0.8)
	17~19세	176(26.0)	192(28.4)	47(7.0)	85(12.6)	85(12.6)	78(11.5)	11(1.6)	2(0.3)
	20~24세	98(29.9)	85(25.9)	34(10.4)	41(12.5)	29(8.8)	35(10.7)	5(1.5)	1(0.3)
지역	도시	272(28.7)	254(26.8)	64(6.7)	116(12.2)	112(11.8)	110(11.6)	17(1.8)	4(0.4)
	도농/농촌	64(21.8)	75(25.6)	30(10.2)	41(14.0)	41(14.0)	34(11.6)	7(2.4)	1(0.3)
조사지	학교	195(27.2)	182(25.4)	56(7.8)	94(13.1)	94(13.1)	77(10.8)	18(2.5)	0(0.0)
	센터	141(26.8)	147(27.9)	38(7.2)	63(12.0)	59(11.2)	67(12.7)	6(1.1)	5(1.0)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135(29.2)	127(27.4)	23(5.0)	57(12.3)	53(11.4)	55(11.9)	10(2.2)	3(0.6)
	은둔경험 없음	201(25.8)	202(25.9)	71(9.1)	100(12.8)	100(12.8)	89(11.4)	14(1.8)	2(0.3)

[표 4-39]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2순위+3순위)

(N= 1,242, 단위: 명, %)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 지원(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 지원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또래와 함께 하는 모임, 활동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기타
전체		590(47.5)	680(54.8)	442(35.6)	699(56.3)	675(54.3)	520(41.9)	111(8.9)	7(0.6)
성별	남성	220(43.7)	255(50.6)	193(38.3)	277(55.0)	298(59.1)	213(42.3)	50(9.9)	5(1.0)
	여성	370(50.1)	425(57.6)	249(33.7)	422(57.2)	377(51.1)	307(41.6)	61(8.3)	2(0.3)
연령	14~16세	112(47.1)	107(45.0)	64(26.9)	136(57.1)	156(65.5)	112(47.1)	24(10.1)	2(0.8)
	17~19세	320(47.3)	382(56.5)	236(34.9)	373(55.2)	368(54.4)	283(41.9)	62(9.2)	3(0.4)
	20~24세	158(48.2)	191(58.2)	142(43.3)	190(57.9)	151(46.0)	125(38.1)	25(7.6)	2(0.6)
지역	도시	454(47.8)	530(55.8)	338(35.6)	524(55.2)	506(53.3)	405(42.7)	83(8.7)	6(0.6)
	도농/농촌	136(46.4)	150(51.2)	104(35.5)	175(59.7)	169(57.7)	115(39.2)	28(9.6)	1(0.3)
조사지	학교	348(48.6)	398(55.6)	268(37.4)	406(56.7)	365(51.0)	292(40.8)	70(9.8)	1(0.1)
	센터	242(46.0)	282(53.6)	174(33.1)	293(55.7)	310(58.9)	228(43.3)	41(7.8)	6(1.1)
은둔경험 여부	은둔경험 있음	227(49.0)	258(55.7)	142(30.7)	255(55.1)	262(56.6)	197(42.5)	44(9.5)	4(0.9)
	은둔경험 없음	363(46.6)	422(54.2)	300(38.5)	444(57.0)	413(53.0)	323(41.5)	67(8.6)	3(0.4)

11.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한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차주환 외(2023)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은둔 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스크리닝 척도는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문항별 0~4점 범위)이다. 은둔청소년의 판별 기준이 되는 하위요인별 절단점은 사회단절 및 고립 11.5점, 회피 13.5점, 불규칙한 생활방식 5.5점이다. 차주환 외(2023)가 연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든 영역에서 절단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하였다.

[표 4-40]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둔성향 청소년	비율
전체		1,242	83	6.7
성별	남성	504	29	5.8
	여성	738	54	7.3
연령	14~16세	238	8	3.4
	17~19세	676	51	7.5
	20~24세	328	24	7.3
지역	도시	949	73	7.7
	도농/농촌	293	10	3.4
조사지	학교	716	23	3.2
	센터	526	60	11.4

주 : 비율은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각 변수 항목별 비율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총 1,242명 중 83명(6.7%)이 은둔형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40]와 같다. 83명 중 남자청소년이 29명(5.8%), 여자청소년이 54명(7.3%)이었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8명(3.4%), 17~19세가 51명(7.5%), 20~24세가 24명(7.3%)이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73명(7.7%)였고,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10명(3.4%)이었다. 조사지가 학교인 청소년이 23명(3.2%)이었고 조사지가 센터인 청소년이 60명(11.4%)이었다.

83명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41]과 같다.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은 25명(30.1%)이었고,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을 둔 청소년은 과반인 43명(51.8%)이었다. 학교나 시설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2명(14.5%)이었다. 상담복지센터(9명, 10.8%)나 사설 상담기관(4명, 4.8%)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표 4-41] 이용기관 현황(복수응답)

(N=1,242,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복지센터	쉼터	학교	복지관	가족센터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사설 상담기관	어느 곳도 다치지 않음
은둔성향 있음 (N=83)	43(51.8)	9(10.8)	0(0.0)	25(30.1)	2(2.4)	0(0.0)	2(2.4)	0(0.0)	4(4.8)	12(14.5)
은둔성향 없음 (N=1,159)	350(30.2)	43(3.7)	8(0.7)	713(61.5)	11(0.9)	7(0.6)	27(2.3)	4(0.3)	18(1.6)	75(6.5)

가. 과거 은둔의 경험

은둔 성향을 지닌 대상으로 판별된 청소년 83명 중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7.6%(81명)에 이르러, 현재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미 과거에 은둔의 경험을 거친 재은둔의 상태이거나 혹은 과거의 은둔 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 은둔 경험과 관련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은둔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2]과 같다. 은둔 기간에 대해선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3명, 40.7%), 6개월~1년 미만(17명, 21%), 3~6개월 미만(14명,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2] 은둔 생활 기간

(N=463, 단위: 명, %)

구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은둔성향 있음(N=81)	6(7.4)	11(13.6)	14(17.3)	17(21.0)	33(40.7)	81(100.0) ¹
은둔성향 없음(N=382)	92(24.1)	138(36.1)	58(15.2)	38(9.9)	56(14.7)	382(100.0)

주 : 은둔성향을 보인 83명 중 과거 은둔경험이 없는 응답자 2명이 제외되어 81명임.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간(40.7%)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현재 은둔형 청소년이 아닌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3개월 미만의 단기간(60.2%)이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은둔의 기간이 길었던 청소년들이 현재 다시 은둔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은둔을 하였지만 은둔 기간이 단기로 끝났던 청소년들은 현재 은둔의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이 과거에 은둔을 경험했던 가장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표 4-43] 참조), 과반수가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41명, 50.6%), 그 다음으로는 학업관련 어려움(13명, 16%), 대인관계 어려움(12명, 14.8%)을 꼽았다. 반면 과거에 은둔의 경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은둔의 상태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의 응답은 정신적 어려움(29.6%), 대인관계 어려움(20.7%), 학업관련 어려움(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현재 은둔 상태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은둔을 경험한 이유가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간 은둔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다시 은둔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43]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던 가장 주된 이유(1순위)

(N=463, 단위: 명, %)

구분	가족관련 어려움 ¹	학업관련 어려움 ²	직업관련 어려움 ³	대인관계 어려움 ⁴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유 없음 ⁵	귀찮음 ⁶	기타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1)	8(9.9)	13(16.0)	2(2.5)	12(14.8)	41(50.6)	3(3.7)	0(0.0)	2(2.5)	0(0.0)	81(100.0) ⁷
은둔성향 없음 (N=382)	30(7.9)	74(19.4)	12(3.1)	79(20.7)	113(29.6)	4(1.0)	22(5.8)	27(7.1)	21(5.5)	382(100.0)

주 1 : 가족과의 갈등, 부모의 이혼, 가족원의 사망 등

2 :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3 : 취업실패, 실직 등

4 : 친구, 직장동료, 따돌림, 폭력 등

5 : 이유 없음, 할 게 없음, 방학 등

6 : 귀찮음, 나가기 싫음, 집이 편함 등

7 : 은둔성향을 보인 83명 중 과거 은둔경험이 없는 응답자 2명이 제외되어 81명임.

나. 은둔 판별의 하위요인 특성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단절 및 고립’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44]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83명과 나머지 청소년 1,159명(1,242명 중 83명을 제외한 응답자)의 응답 분포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4]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사회단절 및 고립

(N=1,242, 단위: 명, %, 점)

문항	은둔성향 있음 (N=83)	은둔성향 없음 (N=1,159)	평균	
			은둔성향 있음	은둔성향 없음
나는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	57(68.7)	236(20.4)	3.93	2.02
나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73(88.0)	99(8.5)	4.25	1.99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서 인터넷 (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78(94.0)	249(21.5)	4.58	2.51
나는 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	57(68.7)	141(12.2)	3.99	2.09
나는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47(56.6)	65(5.6)	3.65	1.70

주 : 빈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산임. 전체평균은 응답자 1,242명의 5점 척도(0~4점 분포) 응답 평균임.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8.7%였으며,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이른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한다는 응답은 대다수인 94%로 나타났다. 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가 68.7%, 가족이 없을 때에만 움직인다는 응답자도 과반인 56.6%로 나타났다.

[표 4-45]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회피

(N=1,242, 단위: 명, %, 점)

문항	은둔성향 있음 (N=83)	은둔성향 없음 (N=1,159)	평균	
			은둔성향 있음	은둔성향 없음
나는 남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72(86.7)	435(37.5)	4.35	2.89
나는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76(91.6)	261(22.5)	4.55	2.44
나는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72(86.7)	183(15.8)	4.36	2.19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75(90.4)	187(16.1)	4.48	2.26
나는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61(73.5)	141(12.2)	4.04	2.11

주 : 빈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산임. 전체평균은 응답자 1,242명의 5점 척도 응답 평균임.

[표 4-46]은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회피’에 관한 문항이다.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는 문항에 86.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91.6%의 응답자들이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누군가와 연락하는 일이 별로 없고(86.7%), 90.4%의 응답자가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73.5%였다.

[표 4-46]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중 불규칙한 생활방식

(N=1,242, 단위: 명, %, 점)

문항	은둔성향 있음 (N=83)	은둔성향 없음 (N=1,159)	평균	
			은둔성향 있음	은둔성향 없음
나는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62(74.7)	266(23.0)	4.01	2.50
나는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76(91.6)	273(23.6)	4.47	2.47
나는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66(79.5)	227(19.6)	4.19	2.37

주 : 빈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산임. 전체평균은 응답자 1,242명의 5점 척도 응답 평균임.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생활방식’에 관한 문항을 조사한 결과([표 4-46] 참조), 91.6%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다. 방을 정리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응답이 74.7%,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다. 일상생활

은둔형 청소년들이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분석한 결과([표 4-47] 참조),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SNS)이었다(25.3%). 그 다음으로는 수면(21.7%), 동영상 보기(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면과 동영상 보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순위를 합산한 결과([표 4-48] 참조),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수면(59% vs 47.6%)과 아무 것도 안하기(26.5% vs 7.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둔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4명 중 1명(26.5%)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무기력함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무기력함을 야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 4-47]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N=1,242, 단위: 명, %)

구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SNS)	동영상 보기	잠자기 (수면)	음악듣기	TV보기	공부, 독서	관심있는 정보 찾아서 읽거나 보기	관심있는 활동 혼자 하기	아무것도 안하기	생각하기	기타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3)	11(13.3)	21(25.3)	15(18.1)	18(21.7)	5(6.0)	0(0.0)	1(1.2)	3(3.6)	3(3.6)	4(4.8)	2(2.4)	0(0.0)	83(1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125(10.8)	371(32.0)	146(12.6)	175(15.1)	84(7.2)	28(2.4)	94(8.1)	29(2.5)	68(5.9)	14(1.2)	22(1.9)	3(0.3)	1,159(100.0)

[표 4-48]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1~3순위)

(N=1,242, 단위: 명, %)

구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SNS)	동영상 보기	잠자기 (수면)	음악듣기	TV보기	공부, 독서	관심있는 정보 찾아서 읽거나 보기	관심있는 활동 혼자 하기	아무것도 안하기	생각하기	기타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3)	29(34.9)	50(60.2)	40(48.2)	49(59.0)	22(26.5)	3(3.6)	6(7.2)	7(8.4)	14(16.9)	22(26.5)	7(8.4)	0(0.0)	83(1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335(28.9)	789(68.1)	497(42.9)	552(47.6)	341(29.4)	94(8.1)	301(26.0)	147(12.7)	236(20.4)	82(7.1)	86(7.4)	17(1.5)	1,159(100.0)

은둔형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표 4-49] 참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식사를 때를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44.6%)는 응답이었다. 이들의 응답은 다른 청소년들을 응답(11.6%)과 4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생활방식(91.6%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함)과 연관된 생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청소년들은 10%도 채 되지 않아(9.6%) 아직 발달을 멈추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불균형하고,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임을 보여준다.

[표 4-49] 하루 식사 횟수

(N=1,242, 단위: 명, %)

구분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 ¹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3)	10(12.0)	28(33.7)	8(9.6)	37(44.6)	83(1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46(4.0)	577(49.8)	402(34.7)	134(11.6)	1,159(100.0)

주 :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

[표 4-50]은 평소의 식사 방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과반수인 53%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3명 중 1명 이상(33.7%)은 혼자 방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하여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인 86.7%가 혼자 식사하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4-50] 평소 식사 방식

(N=1,242, 단위: 명, %)

구분	가족과 함께 먹는다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	혼자 방에서 먹는다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3)	11(13.3)	44(53.0)	28(33.7)	83(1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682(58.8)	352(30.4)	125(10.8)	1,159(100.0)

장시간의 근로와 학업의 특성을 갖는 현대의 바쁜 일상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은 매우 짧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간과 장소는 식사라는 일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은둔형 청소년들 중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

은 너무 낮다. 가족 안에서의 소통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33.7%)은 혼자 방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면, 식사,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방으로 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집 안에서도 자신의 방을 경계로 하여 그 경계의 넘나들이 매우 한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은둔형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51] 하루 평균 수면시간

(N=1,242, 단위: 명, %, 시간)

구분	7시간 미만	7~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전체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25(30.1)	22(26.5)	36(43.4)	83(100.0)	8.24
은둔성향 없음 (N=1,159)	363(31.3)	598(51.6)	198(17.1)	1,159(100.0)	7.31

은둔형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8.24시간이었다([표 4-51] 참조). 9시간 이상 잠을 잔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 은둔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률 17.1%의 2.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은둔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이 방 안에서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의 선택지에 한계가 있어 과수면을 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과수면의 활동으로 유추된다.

[표 4-52]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15(18.1)	20(24.1)	14(16.9)	25(30.1)	9(10.8)	83(100.0)	2.92
은둔성향 없음 (N=1,159)	807(69.6)	224(19.3)	85(7.3)	39(3.4)	4(0.3)	1,159(100.0)	1.45

[표 4-52]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인 목욕이나 샤워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9%에 이르러 은둔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률 3.7%와는 매우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계의 형성이나 교류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고립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결과이다.

[표 4-53]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14(16.9)	14(16.9)	17(20.5)	21(25.3)	17(20.5)	83(100.0)	3.16
은둔성향 없음 (N=1,159)	727(62.7)	263(22.7)	100(8.6)	58(5.0)	11(0.9)	1,159(100.0)	1.59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45.8%에 이르러 앞서 살펴본 목욕이나 샤워의 생활모습과 매우 흡사하다([표 4-53] 참조). 은둔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85.4%의 응답자가 옷이나 머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시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표 4-54]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

(N=1,242, 단위: 명, %)

구분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 이외에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거의 매일 대화한다	전체
은둔성향 있음 (N=83)	3(3.6)	35(42.2)	25(30.1)	20(24.1)	83(1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9(0.8)	120(10.4)	265(22.9)	765(66.0)	1,159(100.0)

[표 4-54]는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둔형 청소년의 24.1%가 거의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대화한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였으며, 은둔형 청소년의 42.2%가 여기에 해당했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6%)를 포함하여 45.8%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가족 관계의 회복 역시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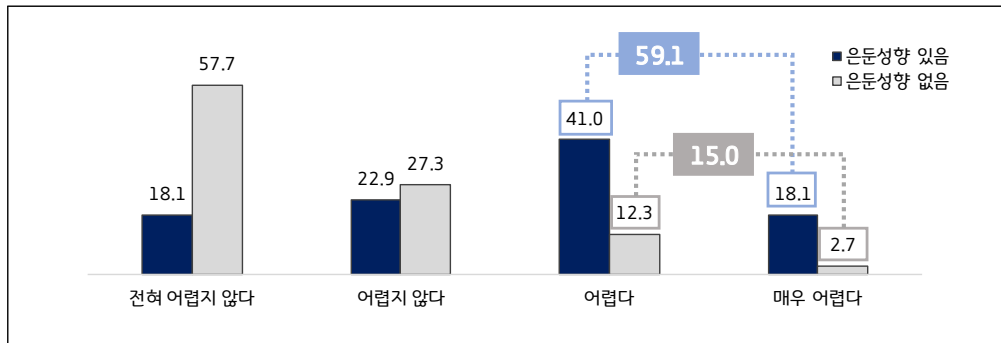
라. 일상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이 있다(‘어렵다’+‘매우 어렵다’의 합산)는 응답자는 59.1%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15%)의 4배 가까운 수치이다. 가족관련 어려

움은 청소년들의 은둔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은둔으로 인해 파생되거나 배가된 결과일 수도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은둔생활에서의 탈피를 도와주고 청소년들을 지지해주어야 할 첫 번째 보호막이자 미시체계인 가족의 환경이 어려움의 대상으로 인지되는 상황이 문제임을 보여준다([그림 4-17] 참조).

[그림 4-17] 가족관련 어려움(가족 갈등, 부모 이혼, 사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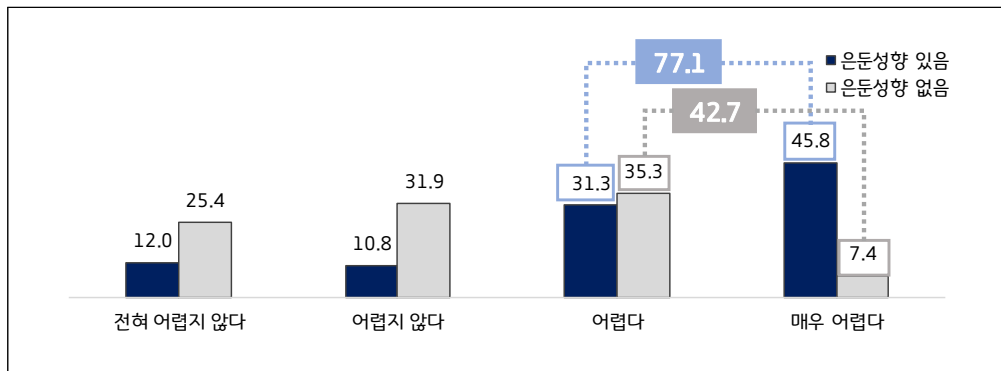
(N=1,242, 단위: %)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77.1%로 나타났고,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63.8%였다. 특히 학업관련 어려움, 직업관련 어려움의 경우 4점 척도 중 '매우 어렵다'로 느끼는 극단치의 값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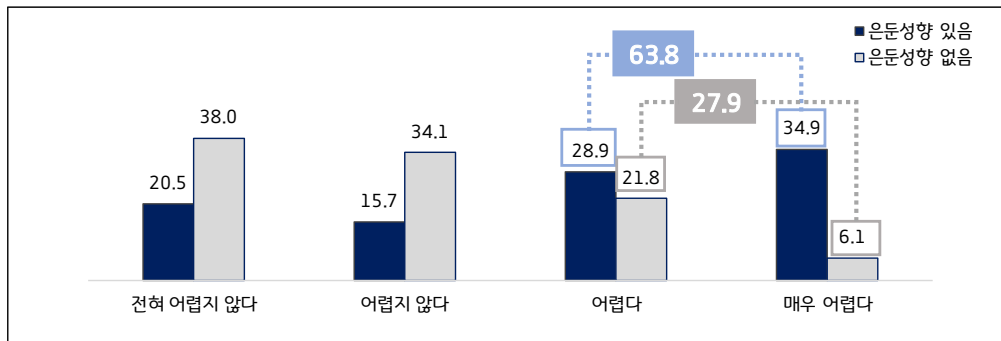
[그림 4-18] 학업관련 어려움(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

(N=1,242, 단위: %)



[그림 4-19] 직업관련 어려움(취업실패, 실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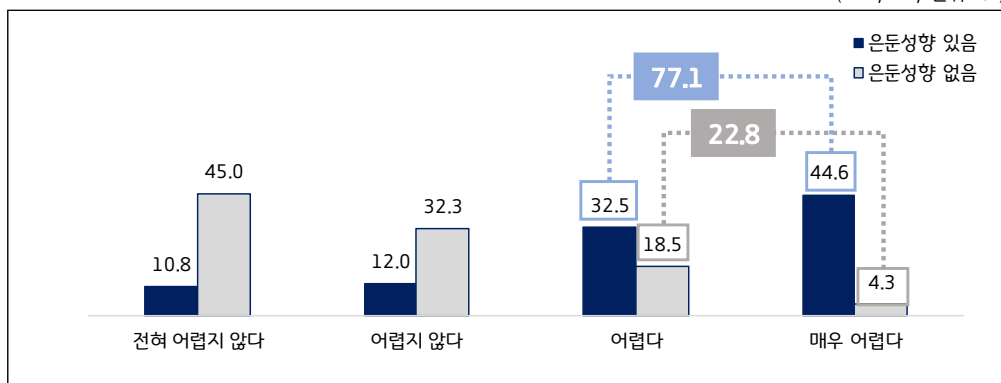
(N=1,242, 단위: %)



[그림 4-2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22.8%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우 어렵다’는 극단치의 응답 빈도가 가장 많았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0]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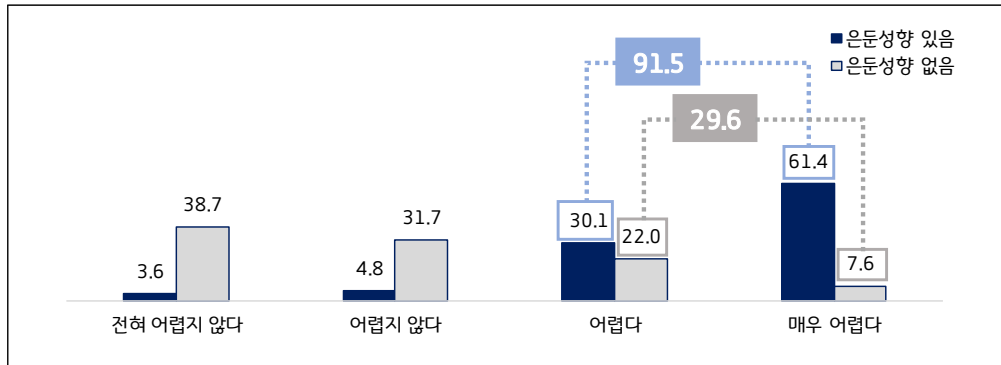
(N=1,242, 단위: %)



외로움, 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은둔형 청소년은 91.5%에 달하였다([그림 4-21] 참조). 거의 모든 은둔형 청소년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매우 어렵다’는 극단치의 응답이 61.4%에 달해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와 서비스가 매우 우선적이고도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1] 외로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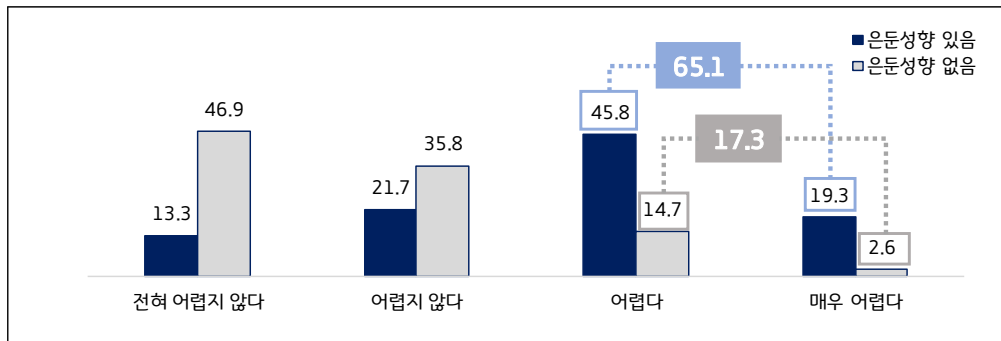
(N=1,242, 단위: %)



[그림 4-22]는 일상생활 중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65.1%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문화와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 17.3%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은둔으로 인한 생활상의 제약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청소년 시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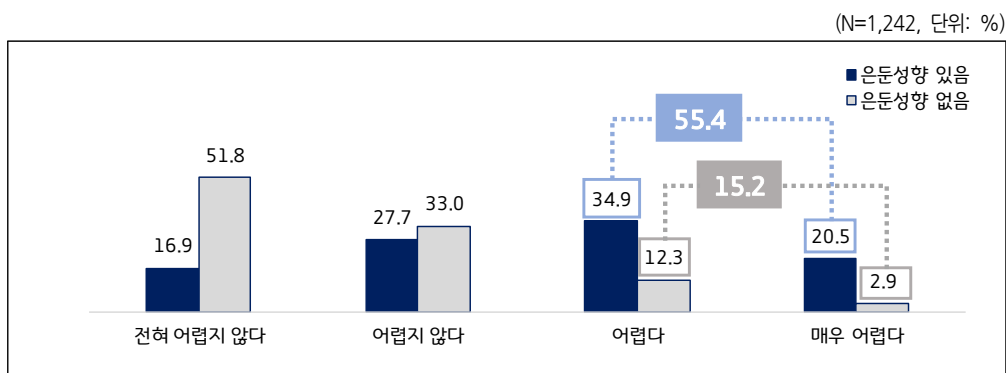
[그림 4-22]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N=1,2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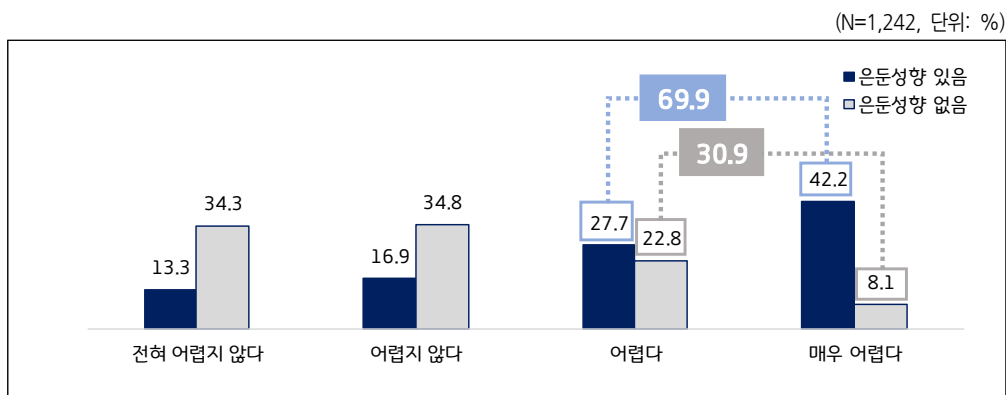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과반인 55.4%로 나타났다([그림 4-23] 참조).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15.2%인 것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신체적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방과 집으로 한정된 생활을 하는 은둔의 성향은 신체적 건강에도 유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4-23]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용돈의 부족이나 생활비의 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은둔형 청소년의 69.9%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을 보였다([그림 4-24] 참조).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은둔의 성향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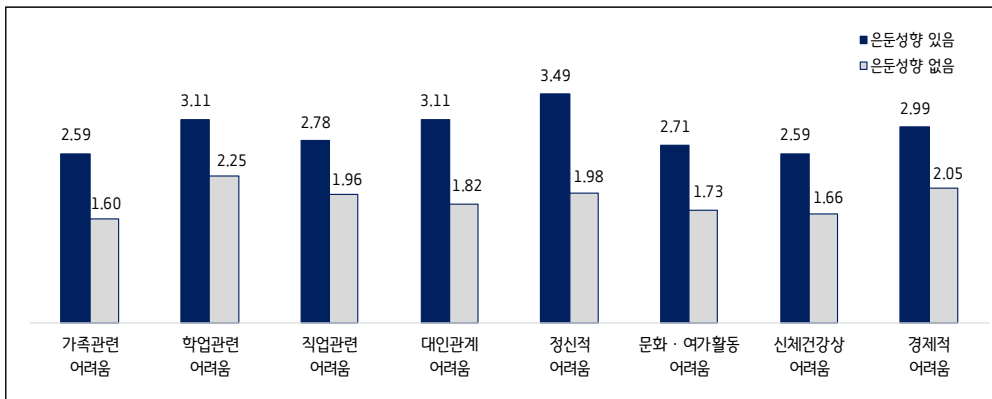
[그림 4-24] 경제적 어려움(용돈의 부족, 생활비 부족 등)



일상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4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4-25]와 같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영역은 정신적 어려움이었다. 4점 척도 상에서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정신적 어려움(3.49점) > 대인관계 어려움 / 학업관련 어려움(3.11점) > 경제적 어려움(2.99점) > 직업관련 어려움(2.78점) > 문화·여가활동 어려움(2.71점) > 가족관련 어려움 /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2.59점)의 순이었다.

[그림 4-25] 일상생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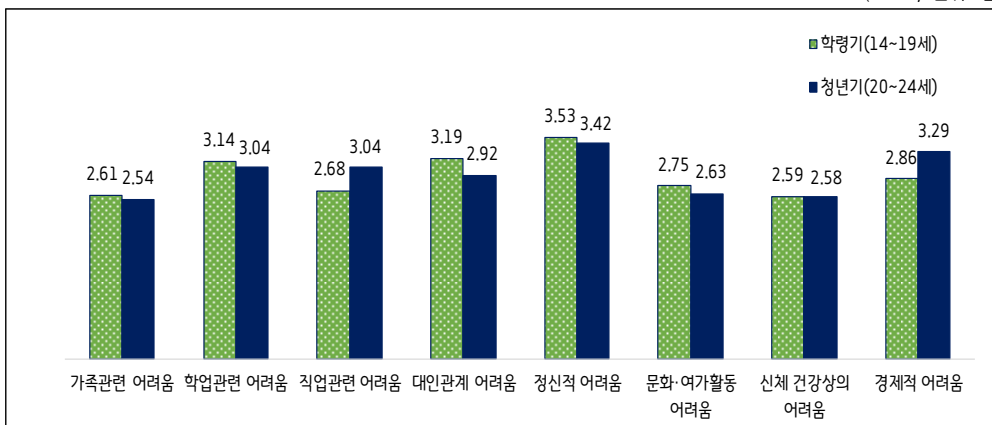
(N=1,242, 단위: %)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학령기와 청년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그림 4-26]과 같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학령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 영역에서 어려움을 조금 더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직업관련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만 청년기 연령 집단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보고하였다. 학령기 집단에서는 정신적 어려움 > 대인관계 어려움 > 학업관련 어려움의 순이었고, 청년기 집단에서는 정신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 직업관련 어려움 / 학업관련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은둔 성향의 청소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N=83, 단위: 점)



마.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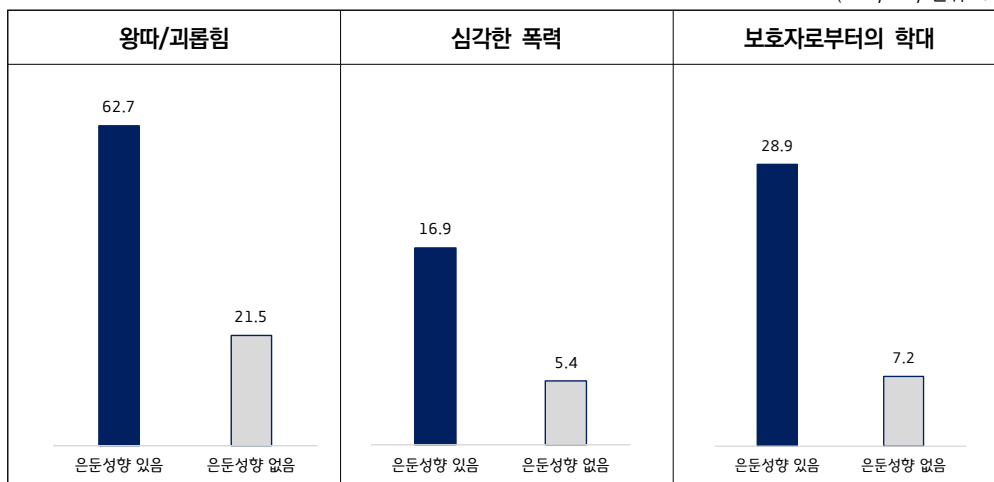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과거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4-27]과 같다. 62.7%의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험률 21.5%와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 중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9%로 나타나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률 5.4%의 3배 넘는 격차를 보였다.

부모님 혹은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28.9%의 그렇다고 응답하여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 응답(7.2%)의 4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과거에 친구나 또래 모임,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확률이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가 현재의 은둔 성향을 가져오게 된 다양한 요인 혹은 원인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27]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그렇다 응답)

(N=1,242, 단위: %)



주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바. 주관적인 행복감

[표 4-55]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현재의 행복감이다.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 중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매우 행복하다’의 합산)고 응답한 청소년은 22.9%에 불과하였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77.3%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55] 현재 행복수준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20(24.1)	44(53.0)	18(21.7)	1(1.2)	2.00
은둔성향 없음 (N=1,159)	25(2.2)	238(20.5)	730(63.0)	166(14.3)	2.89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의 절대 다수인 94%가 자신은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표 4-56] 참조).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2.3%였다.

[표 4-56]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무기력하다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0(0.0)	1(1.2)	4(4.8)	24(28.9)	54(65.1)	4.58
은둔성향 없음 (N=1,159)	308(26.6)	307(26.5)	286(24.7)	197(17.0)	61(5.3)	2.48

장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한 은둔형 청소년은 75.9%였다([표 4-57] 참조).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비관적인 인식은 18.5%였다.

현재의 상태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미래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비관적 인식이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극단의 대답에 과반인 50.6%의 청소년들이 응답하였다. 은둔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였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현재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표 4-57]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3(3.6)	3(3.6)	14(16.9)	21(25.3)	42(50.6)	4.16
은둔성향 없음 (N=1,159)	321(27.7)	324(28.0)	299(25.8)	157(13.5)	58(5.0)	2.40

[표 4-58]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49.4%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30.1%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5%였다. 반면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56.3%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생각한다고 35.3%, 자주 생각한다고 8.4%로 나타났다.

[표 4-58]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

(N=1,242, 단위: 명, %)

구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은둔성향 있음(N=83)	17(20.5)	25(30.1)	41(49.4)
은둔성향 없음(N=1,159)	653(56.3)	409(35.3)	97(8.4)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1순위는 ‘미래(진로, 취업 등)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표 4-59] 참조).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36.4%였고, 은둔 성향이 없는 경우 29.4%였다.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2순위는 ‘우울, 무기력 등의 정신적 문제’(16.7%), 3순위는 ‘가족 간의 갈등’(15.2%)으로 나타난 반면,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2순위는 학업문제(23.3%), 3순위는 가족 간의 갈등(15.8%)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족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정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은둔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은둔 성향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문제 대신 학업의 문제가 더 큰 비중으로 압박감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표 4-59]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N=572, 단위: 명, %)

구분	학업문제 ¹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²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³	정신적 문제 ⁴	기타
은둔성향 있음 (N=66)	7(10.6)	10(15.2)	4(6.1)	7(10.6)	24(36.4)	11(16.7)	3(4.5)
은둔성향 없음 (N=506)	118(23.3)	80(15.8)	37(7.3)	43(8.5)	149(29.4)	35(6.9)	44(8.7)

주 1 : 학업부담, 학업중단, 성적 등

2 : 선후배·또래·동료와의 갈등, 학교폭력, 기타폭력 등

3 : 진로, 취업 등

4 : 우울, 무기력 등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은둔형 청소년 중 어렵다(‘매우 어렵다’+‘어려운 편이다’의 합산)고 응답한 비율은 47%였으며, 은둔의 특성을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은 15.9%였다. 은둔형 청소년 중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으며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은 55.5%였다. 한편 잘산다(‘잘사는 편이다’+‘매우 잘산다’의 합산)고 응답한 은둔형 청소년의 비율은 12%였고, 은둔의 특성을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28.6%였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가정 경제 수준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4-60]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매우 잘산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N=83)	13(15.7)	26(31.3)	34(41.0)	6(7.2)	4(4.8)	2.54
은둔성향 없음(N=1,159)	32(2.8)	152(13.1)	643(55.5)	299(25.8)	33(2.8)	3.13

사. 관계, 교류, 지지 자원

[표 4-61]은 가족 및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과격한 말이나 행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8.6%가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18.1%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교류에 있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률 5.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는 높은 빈도는 관계의 범위를 감소시키거나 차단, 혹은 단절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표출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61] [현재 본인 상태] 나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N=83)	13(15.7)	19(22.9)	19(22.9)	17(20.5)	15(18.1)	3.02
은둔성향 없음(N=1,159)	576(49.7)	339(29.2)	180(15.5)	53(4.6)	11(0.9)	1.78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62]와 같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67.4%이었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표 4-62] [현재 본인 상태] 나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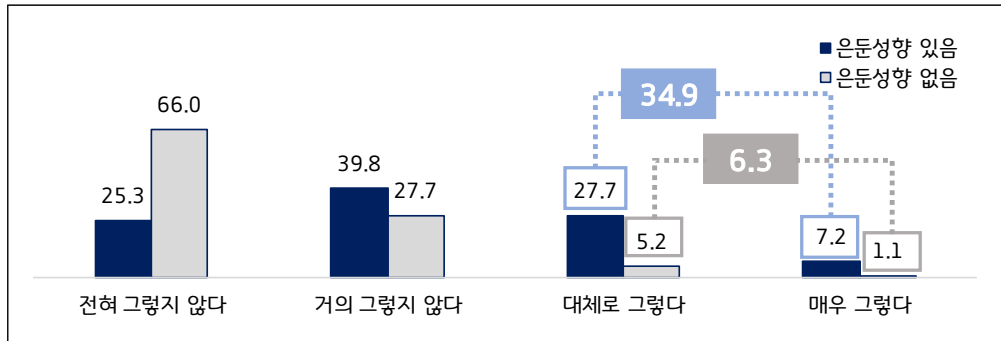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N=83)	5(6.0)	8(9.6)	14(16.9)	29(34.9)	27(32.5)	3.78
은둔성향 없음(N=1,159)	407(35.1)	311(26.8)	245(21.1)	155(13.4)	41(3.5)	2.23

[그림 4-28]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34.9%)이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중은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6.3%)과 비교하여 5.5배가 넘는 수치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부모(보호자)의 관심이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실하다.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4-2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

(N=1,242, 단위: %)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63]과 같다. 먼저 1순위를 살펴보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은 자신의 지지체계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18.1%), 친구(13.3%),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34.5%), 친구(26.2%), 아버지(18.4%)의 순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라는 응답은 어머니와 친구 다음이었지만, 부모(어머니+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52.9%에 이른다. 반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아버지를 꼽은 비율은 3.6%에 그쳐 부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21.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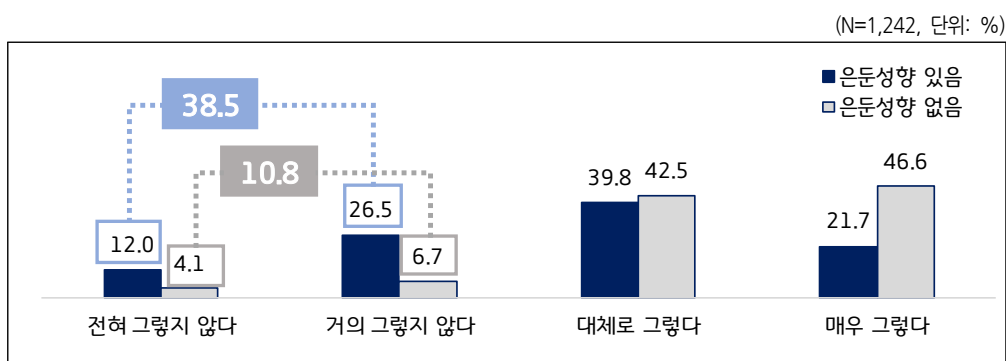
[표 4-6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1순위)

(N=1,242, 단위: 명, %)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당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	기타
은둔성향 있음 (N=83)	39(47.0)	3(3.6)	15(18.1)	3(3.6)	1(1.2)	1(1.2)	11(13.3)	0(0.0)	9(10.8)	1(1.2)
은둔성향 없음 (N=1,159)	135(11.6)	213(18.4)	400(34.5)	65(5.6)	9(0.8)	9(0.8)	304(26.2)	6(0.5)	17(1.5)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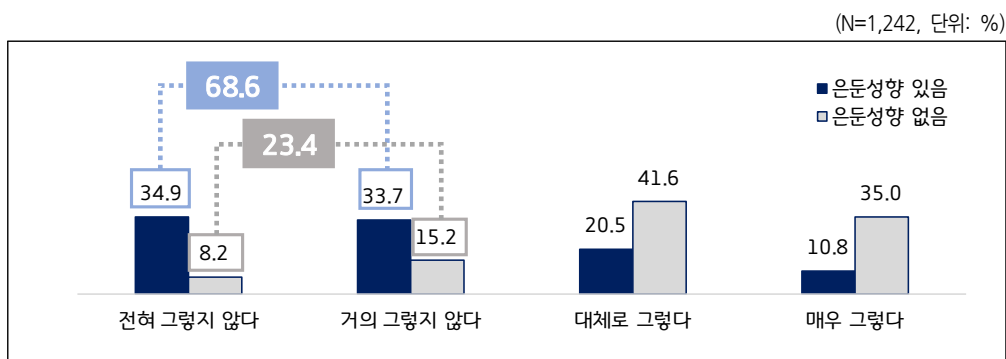
[그림 4-29]는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4점 척도에 평균 2.71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과반인 61.5%의 응답자가 가족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3.32점으로 응답 분포 상에서는 89.1%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38.5%의 은둔형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가족의 지지 체계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9]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2.07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분포로는 31.3%의 청소년들만이 내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상대적인 격차를 보이는 응답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내 문제를 직접 가족 앞에 꺼내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응답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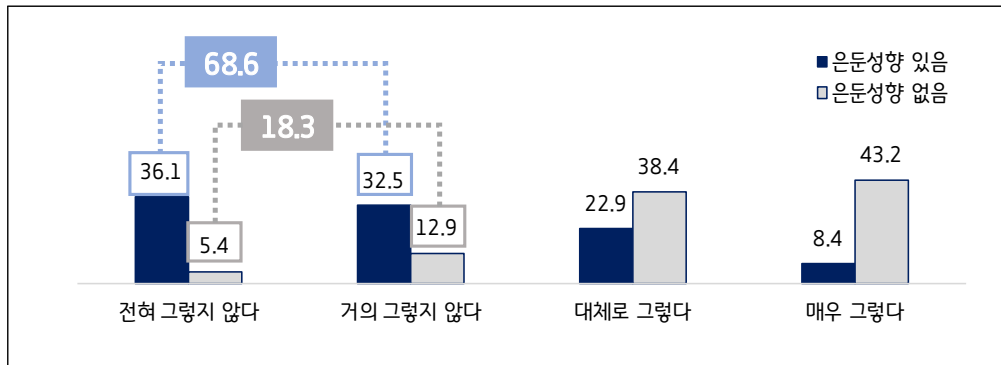
[그림 4-30]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 4-31]은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1.3%만이 그런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 은둔 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청소년의 응답 81.6%와는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68.6%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4-31]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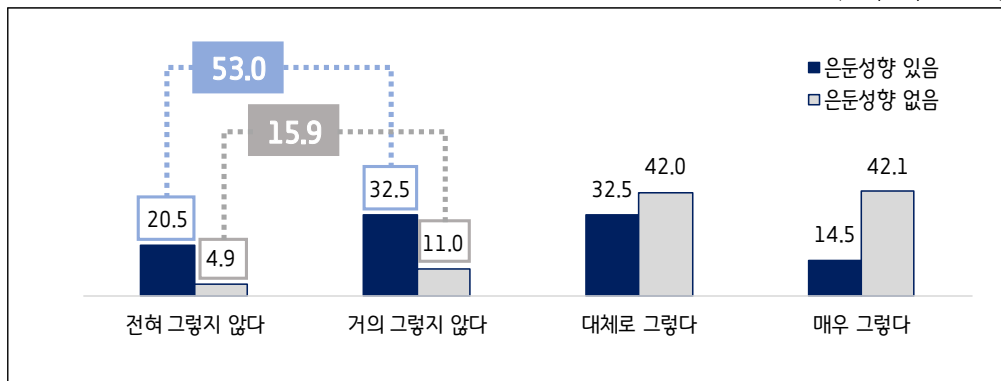
(N=1,242, 단위: %)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그림 4-32] 참조), 과반인 53%의 은둔형 청소년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84.1%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4-32]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다

(N=1,242, 단위: %)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4-64] 참조), 은둔 성향이 있는 경우 51.8%였고, 은둔 성향이 없는 경우 89.5%였다. 앞서 살 펴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4]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부

(N=1,242, 단위: 명, %)

구분	없다	있다
은둔성향 있음(N=83)	40(48.2)	43(51.8)
은둔성향 없음(N=1,159)	122(10.5)	1,037(89.5)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65]와 같다.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할 것을 요구한 결과,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에 못 미치는 42.2%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88.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65]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여부

(N=1,24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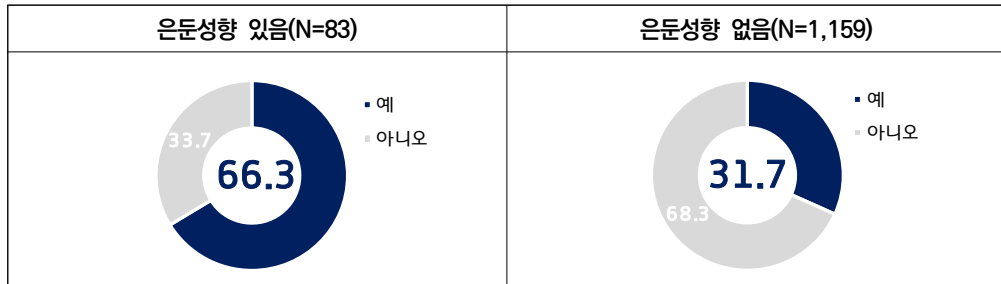
구분	없다	있다
은둔성향 있음(N=83)	48(57.8)	35(42.2)
은둔성향 없음(N=1,159)	132(11.4)	1,027(88.6)

아. 상담과 지원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66.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험(31.7%)보다 2배 이상 많은 응답임을 알 수 있다.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33.7%)은 상담의 경험이 전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3]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

(N=1,242, 단위: %)



[표 4-66]은 상담 후의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 중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응답은 4점 척도 상에서 2.15점이었고,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2.77점이었다.

응답의 분포로 살펴보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많이 좋아졌다’의 합산)라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34.5%였고, 변화가 없다(‘전혀 없었다’+‘거의 없었다’의 합산)라는 부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65.4%였다. 은둔 성향이 나타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많이 좋아졌다’의 합산)라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64.8%였고, 변화가 없다(‘전혀 없었다’+‘거의 없었다’의 합산)라는 부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35.2%였다.

과거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은둔형 청소년들이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특히 정신적인 건강 면에서 더욱 취약했던 점에 기초할 때 유사한 상담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상담의 접근 방식과 깊이, 질,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66] 상담 후 변화 정도

(N=422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약간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N=55)	13(23.6)	23(41.8)	17(30.9)	2(3.6)	2.15
은둔성향 없음(N=367)	27(7.4)	102(27.8)	167(45.5)	71(19.3)	2.77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든 정도에 대해 은둔형 청소년은 4점 척도 상에서 1.95점이었으며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3.03점이었다. 응답의 분포로 살펴보면, 은둔형 청소년의 대다수인 74.7%의 청소년들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많이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8%에 달해 은둔의 특성이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응답 5.6%와 인지 상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67] 현재의 삶과 생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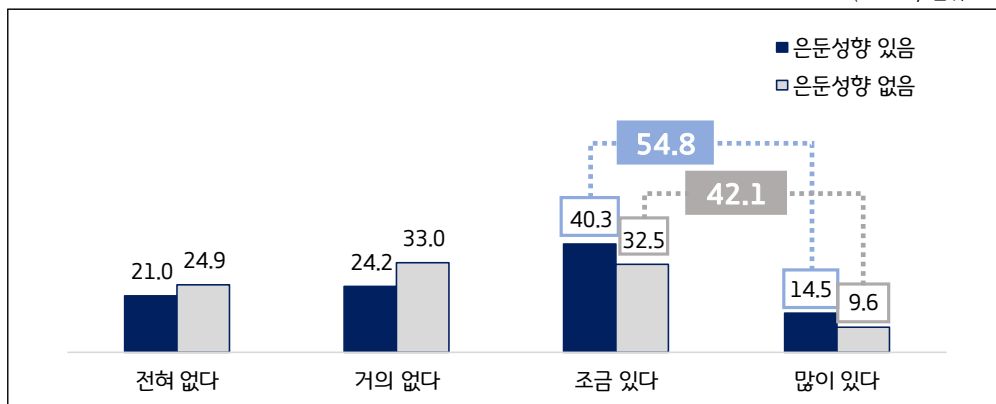
(N=1,242, 단위: 명, %, 점)

구분	많이 힘들다	조금 힘들다	보통이다	별로 힘들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	평균
은둔성향 있음 (N=83)	38(45.8)	24(28.9)	11(13.3)	7(8.4)	3(3.6)	1.95
은둔성향 없음 (N=1,159)	65(5.6)	320(27.6)	384(33.1)	300(25.9)	90(7.8)	3.03

힘든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는 [그림 4-34]와 같다. 4점 척도 상에서 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2.48점으로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2.27점)보다 높게 나타나 상담을 받을 의사가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4-34] 힘든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마음 정도

(N=447, 단위: %)



응답의 분포로 살펴보면,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과반인 54.8%가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 반면,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42.1%가 상담 의사를 보였다. 은둔형 청소년 중 45.2%의 응답자들은 상담 의사가 없었는데, 이는 과거 상담을 통한 변화의 경험이 상담의 미래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4-68] 참조),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2순위로는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53.6%), 3순위는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28.6%)로 나타났다. 한편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2순위로는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57.4%)였으며, 3순위는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39.5%)로 나타났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상담을 꺼리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4-68]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N=251, 단위: 명, %)

구분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쑥스럽다, 또는 부끄럽다, 또는 창피하다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은둔성향 있음(N=28)	24(85.7)	15(53.6)	7(25.0)	6(21.4)	8(28.6)	3(10.7)
은둔성향 없음(N=223)	133(59.6)	128(57.4)	88(39.5)	59(26.5)	45(20.2)	34(15.2)

[표 4-69]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련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직접 방문을 더 선호하였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은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가정 방문을 원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부담스러워 함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찾아온다면 집보다는 집 근처의 카페나 공용 회의실 등과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표 4-69]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N=1,24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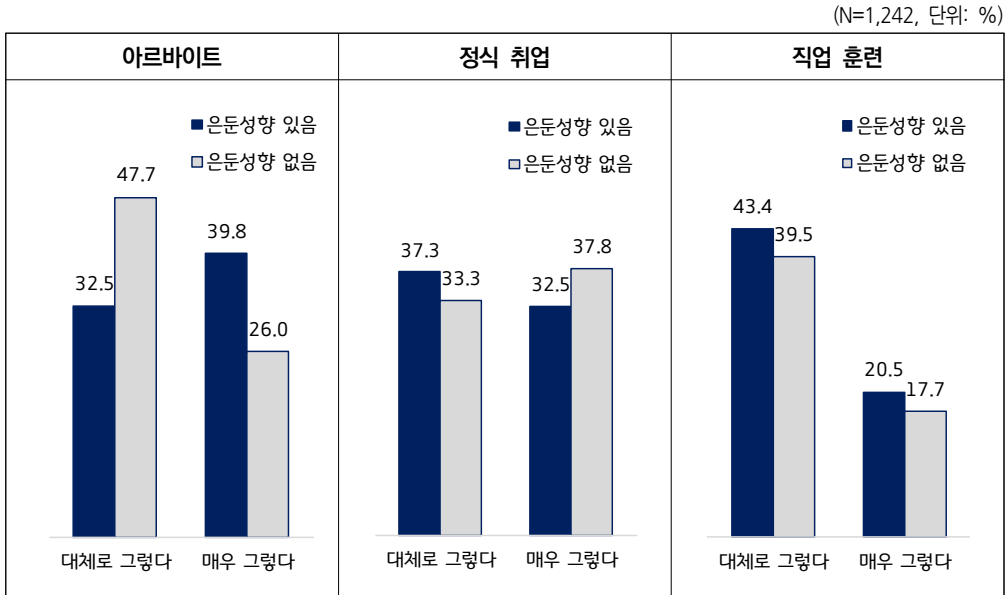
구분	내가 담당센터에 찾아가는 방법 (센터 방문)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행 (온라인 화상회의 등)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오는 방법 (가정 방문)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 장소로 오는 방법 (카페, 공용 회의실 등)
은둔성향 있음(N=83)	49(59.0)	16(19.3)	7(8.4)	11(13.3)
은둔성향 없음(N=1,159)	560(48.3)	370(31.9)	49(4.2)	180(15.5)

자. 정책욕구

[그림 4-35]는 경제활동 및 훈련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은둔 성향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는 72.3%였으며, 은둔 성향이 없는 경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점 척도 상에서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평균 3점으로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2.9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사가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식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69.8%였으며,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71.1%로 나타났다. 4점 척도 상에서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평균 2.92점으로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3점)보다 더 낮게 나타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사가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사는 은둔형 청소년이, 정식 취업을 위한 의사는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4점 척도 상에서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평균 2.66점이고,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평균 2.62점으로 경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35]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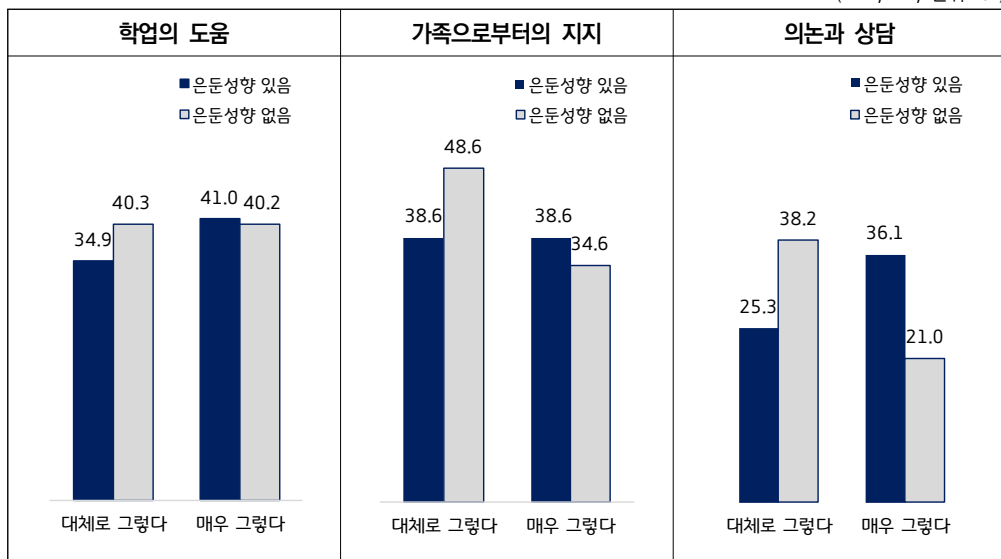
학업(공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4점 척도 상에서 3.07점으로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3.15점)과 경미한 차이를

보였다.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업(공부)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큼을 보여주었는데,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75.9%가,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80.5%가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받고 싶다는 욕구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77.2%,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83.2%로 나타나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61.4%로 은둔의 특성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59.2%) 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4-36] 학업, 가족, 상담에 대한 욕구

(N=1,24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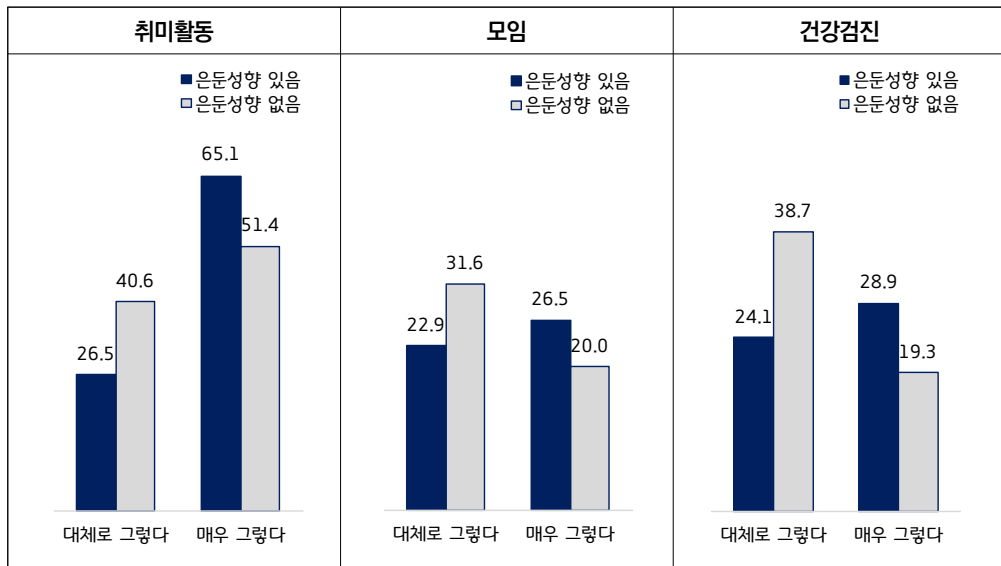


[그림 4-3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은둔성향의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대다수인 91.6%였으며, 은둔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92%로 응답 분포 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은둔성향에 관계없이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49.4%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51.6%가 동조하였다.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는 은둔형 청소년의 53%,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58%가 동의하여,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욕구가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7] 취미활동, 모임,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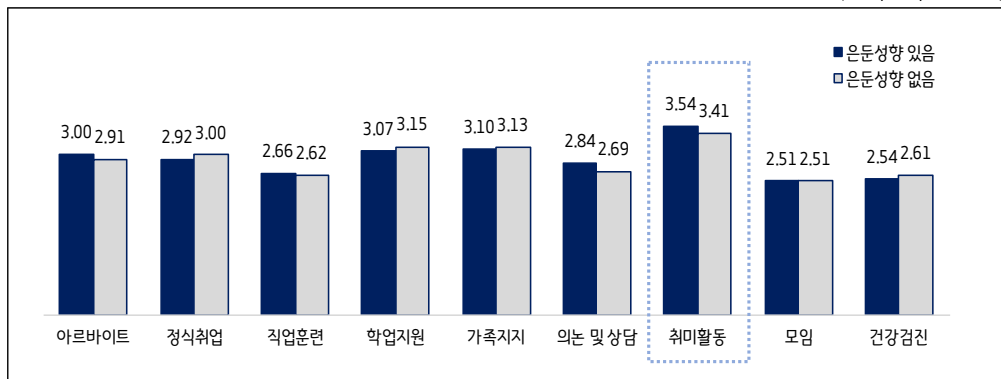
(N=1,242, 단위: %)



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4점 척도 상에서의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4-38]과 같다.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8] 청소년 정책욕구

(N=1,242,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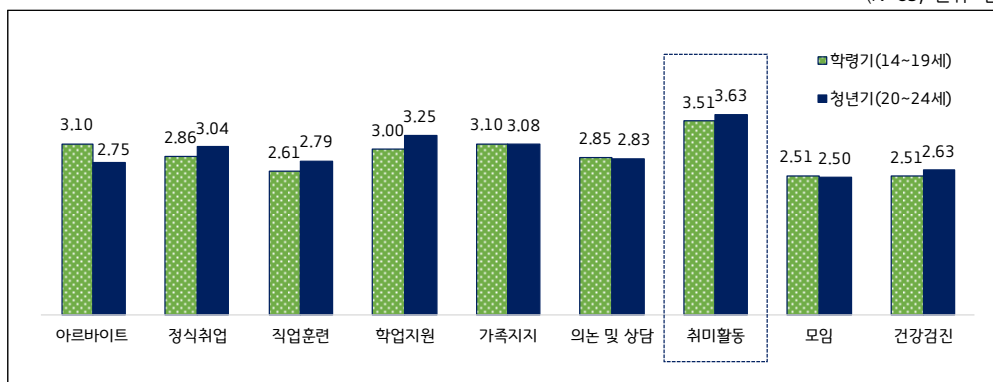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정책욕구 2순위는 가족의 지지(3.1점)였으며, 3순위는 학업지원(3.07점)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을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정책욕구 2순위는 학업지원(3.15점)였으며, 3순위는 가족의 지지(3.13점)로 나타났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경미하지만 우선하는 정책욕구임을 보여주었다.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학령기(14~19세)와 청년기(20~24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그림 4-39]와 같다. 학령기의 경우 취미활동 > 가족지지/아르바이트의 순으로 나타났고, 청년기의 경우 취미활동 > 학업지원 > 가족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집단보다 청년기 집단의 정책욕구가 대체로 조금씩 더 높거나 비슷했는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학령기 집단이 청년 집단보다 높았다. 앞서 살펴본 [그림 4-38]과 비교해볼 때, 은둔 성향의 청소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학령기 집단이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나, 정책적 욕구는 청년기 집단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9] 학령기와 청년기 집단별 정책욕구

(N=83, 단위: 점)



고립 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33.7%)이었고,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1.7%),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6.9%)으로 나타났다([표 4-70] 참조). 이러한 응답은 은둔의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각(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과는 순위 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4-70]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순위)

(N=1,242, 단위: 명, %)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 지원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또래와 함께 하는 모임, 활동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기타
은둔성향 있음 (N=83)	18(21.7)	28(33.7)	5(6.0)	14(16.9)	7(8.4)	10(12.0)	1(1.2)	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318(27.4)	301(26.0)	89(7.7)	143(12.3)	146(12.6)	134(11.6)	23(2.0)	5(0.4)

1순위에서 3순위를 종합하여 합산한 복수응답의 결과는 [표 4-71]과 같다. 가장 많은 중복 응답은 역시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60.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57.8%),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55.4%)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누적 응답으로 과반이 되지 못하였다.

[표 4-71] 고립 상태, 은둔하여 집에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1~3순위)

(N=1,242, 단위: 명, %)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 지원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또래와 함께 하는 모임, 활동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기타
은둔성향 있음 (N=83)	38(45.8)	50(60.2)	27(32.5)	48(57.8)	46(55.4)	35(42.2)	5(6.0)	0(0.0)
은둔성향 없음 (N=1,159)	552(47.6)	630(54.4)	415(35.8)	651(56.2)	629(54.3)	485(41.8)	106(9.1)	7(0.6)

12. 소결

가. 전체 청소년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응한 1,242명 중 59.4%가 여자청소년으로 남자청소년 응답자(40.6%)보다 많았고, 연령 집단별로는 17~19세 청소년(54.4%), 20~24세 청소년(26.4%), 14~16세 청소년(19.2%)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청소년이 76.4%였고, 도농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이 23.6%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716명(57.6%)였고,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526명(42.4%)이었다.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던’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7.3%에 해당하는 463명의 청소년들이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의 은둔 경험은 기간적 설정을 주지 않은 포괄적인 질문이었으며, 본인이 인식한 주관적인 개념임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59.4%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31.6%였으며, 아무 곳에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였다.

2) 은둔의 경험

주관적으로 인식한 은둔의 경험을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4-3 참조), 성별, 연령, 지역, 조사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 17~19세 청소년, 지역상으로는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 중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54.8%였다.

은둔의 경험이 있는 463명을 대상으로 은둔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21.2%), 3~6개월 미만(1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9.2%나 되었다. 은둔 기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조사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경우 은둔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73.2%인 반면,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26.7%)은 1년 이상의 장기적

인 은둔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둔의 경험을 갖게 된 주된 이유 1순위로는 3명 중 1명 꼴로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응답(33.3%)하였고, 그 뒤를 이어 대인관계 어려움(19.7%), 학업관련 어려움(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관련 어려움, 여자청소년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4~16세 청소년이 타 연령 집단에 비해 가족 관련 어려움, 17~19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정책추진 시에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39.8%(은둔 경험의 주된 이유 1~3순위의 합산 비율)는 직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어졌던 특성 즉, 청소년기의 은둔 경험이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3) 일상생활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스마트폰(31.6%)이었으며, 수면(15.5%), 동영상 보기(13%), 인터넷 게임(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 연령이 어린 청소년, 도농 및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여자청소년(36.7%)은 SNS를 더 많이 하였다. 도시 거주 청소년들은 수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건강과 밀접한 식사생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일 3회 식사를 모두 먹는 청소년은 조사 대상자의 3명 중 1명(33%)에 불과하였다. 남자청소년, 연령이 어린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 규칙적이었고, 은둔 경험은 현재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1일 1회만 식사하거나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는 불규칙한 식습관(31.2%)을 남긴 것으로 가늠된다.

평소의 식사 방식은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55.8%였으며,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 31.9%, 혼자 방에서 먹는다 12.3%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 나이가 어린 청소년, 도농 및 농촌지역 청소년, 조사지가 학교인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7%)이 방에서 혼자 먹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7.4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 조사지가 센터 중심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 수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은둔의 경험은 식사 및 수면과 같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식사와 수면은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기초가 되므로, 은둔의 경험 여부는 청소년들의 현재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소 가족과의 대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3.2%가 거의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대화한다 23.3%,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12.5%,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1%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 정도는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 대화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패턴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1%) 꼴로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거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상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에 해당하는 223명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족관련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성적, 학업중단, 진학 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학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지역을 제외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 17~19세,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모든 변수의 범주를 망라하여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어려움 인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실패 또는 실직 등과 같은 직업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후기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26.4%)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4점 척도로 어려움을 분석하였을 때, 여자청소년, 17~19세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외로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33.7%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더 유의미하게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변수 중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이 2.71점으로 가장 현저하게 높았다.

문화·여가활동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처럼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다.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단절되었던 은둔의 경험은 현재 체감하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용돈 및 생활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4점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 여자청소년, 20~24세 집단,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반수 가까운 49.1%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 24.2%와 큰 격차를 보였다.

5)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

과거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1명(24.2%)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카이검증 결과, 여자청소년, 20~24세 집단,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의 상처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이 은둔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선행연구(이영식 외, 2022; 차주환 외, 2023에서 재인용)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심각한 폭력에 대한 경험과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2%와 8.6%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심각한 폭력과 학대의 경험은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각각의 경험이 더 많았다.

6) 주관적인 행복감

주관적인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행복정도 인식, 무기력감,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73.6%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고, 27.1%가 무기력함을 표출하였으며, 22.4%가 장래를 비관적으로 인식하였다. 4점 척도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평균을 차이 검증한 결과, 주관적인 행복감은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 유경험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이 낮고, 무기력감은 높았으며, 장래에 대한 생각은 비관적이었다. 특성 중에서 가장 극단의 평균 점수를 보이는 변수는 은둔경험의 유무였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34.9%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11.1%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의미하였는데,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 유경험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많았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7.8%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인 22.2%의 청소년들이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자살위험을 높이는 주요 변수(이수비 외, 2022; Daniel and Goldston, 2012; 조미형·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부담, 학업중단, 성적 등과 같은 학업문제(21.9%), 가족 간의 갈등(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연령 집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느끼는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입직의 시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가장 어린 집단인 14~16세 집단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갈등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 및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연령임을 보여주었다.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30.6%) 응답자들은 도시지역(20.0%)과 비교하여 학업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들의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지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조사에서는 27.6%의 응답자들이 잘사는 것으로, 17.9%의 응답자들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자청소년, 농촌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응답하였다.

7) 관계, 교류, 지지 자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33.4%)이 1순위로 어머니를 꼽았고, 친구(25.4%), 아버지(1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174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명 중 1명(24.8%)이 주변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87.3%와 73.6%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두 개의 조사 모두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그리고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및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응답하였다. 가족은 청소년들의 첫 번째 보호망이자 지지 자원이 되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미시적인 환경인 양육자와 가족이 청소년의 지지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육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양육자 및 가족을 자신들의 보호망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과 체계의 촘촘한 구성 및 기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조사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 78.3%의 청소년들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4점 척도 상에서 연령이 가장 낮은 14~16세 청소년,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는 다른 모든 특성 변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족의 지지 자원에서 보여주었던 특성처럼 또래 지지 자원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81.7%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고, 87%의 응답자는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조사지와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앞에서 가족의 지지 자원과 또래의 지지 자원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준 바 있다. 위기 시 혹은 긴급 시에 자신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할 상대를 갈구할 때,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안에서 지지 자원을 전혀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들이 적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85.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은둔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 중 1명(24.2%) 정도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위기 시 손을 내밀 사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었다.

8) 상담과 지원

과거에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경험은 모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인 경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더 많았다. 상담을 받은 청소년 422명 중 상담 이후 좋아졌다는 응답이 60.9%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9.1%였다. 4점 척도로 분

석한 결과, 성별과 은둔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남자청소년,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상담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삶과 생활이 어느 정도 힘든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 이상(36%)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의 분석 결과에서 여자청소년, 17~19세,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 중심인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상황을 더 힘들게 인식하였다.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상담 받을 의사가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소년 기관에 대한 접근 경험 이 있거나 은둔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더 힘든 청소년들의 상담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받을 마음이 없는 청소년(25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중복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2.5%가 답변한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로 나타나 현재의 문제와 상태의 호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57%)',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37.8%)'의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5명 중 1명(21.1%)은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할 거 같다'고 응답하였고, 14.7%의 응답자는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보의 부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담 서비스의 제공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본인이 담당 센터로 찾아가는 센터방문(49%)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상담(31.1%)을 원하였다.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조사지가 센터 중심,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센터방문을, 남자청소년,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 은둔경험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비대면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센터의 방문 경험이 있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것들이 용이한 반면, 교통환경이 수월하지 않은 곳, 센터 방문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비대면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9) 정책욕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 20~24세,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희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집단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희망도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정식취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정식취업을 희망했는데, 앞선 아르바이트에 대한 조사와는 다르게 후기 청소년, 도시 거주,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도시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추측되며, 센터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경쟁의식을 보다 민감하게 체감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57.7%가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는데, 여자청소년, 조사지가 센터 중심의 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업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0.2%가 지원을 희망하였고, 여자청소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에게서 학업지원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이나 학업적 지원이나 모두 여자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강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학업적 지원을 더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에 따른 차이는 현재의 자신의 소속이나 상황에 따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된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자청소년들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책적 욕구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8%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들이 지지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였다.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상담 받고 싶다’는 욕구는 여자청소년,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92%가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고, 여자청소년, 도시 거주,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강한 욕구를 보였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느꼈던 집단에서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결과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와 시설 조성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외로움

및 우울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현재의 행복수준,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 등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던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또래 모임 또는 자조 모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수인 51.5%가 욕구를 보였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인 57.7%가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다. 연령이 가장 많은 20~24세 집단, 조사지가 학교인 경우에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장시간의 학업과 경쟁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립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7.1%)였고, 그 다음으로는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26.5%)이었으며,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2.6%),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12.3%), 또래와 함께하는 모임, 활동지원(11.6%)이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나. 은둔형 청소년 분석 결과

1)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한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차주환 외(2023)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은둔 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스크리닝 척도는 사회단절 및 고립, 회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방식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문항별 0~4점 범위)이다. 은둔청소년의 판별 기준이 되는 하위요인별 절단점은 사회단절 및 고립 11.5점, 회피 13.5점, 불규칙한 생활방식 5.5점이다. 차주환 외(2023)가 연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모든 영역에서 절단점 이상이 되었을 때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총 1,242명 중 83명(6.7%)이 은둔형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83명 중 남자청소년이 29명(5.8%), 여자청소년이 54명(7.3%)이었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8명(3.4%), 17~19세가 51명(7.5%), 20~24세가 24명(7.3%)이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73명(7.7%)였고,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10명(3.4%)이었다. 조사지가 학교인 청소년이 23명(3.2%)이었고 조사지가 센터인 청소년이 60명(11.4%)이었다.

83명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복수응답으로 조사

한 결과,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은 25명(30.1%)이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적을 둔 청소년은 과반인 43명(51.8%)이었다. 학교나 시설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2명(14.5%)이었다. 상담복지센터(9명, 10.8%)나 사설 상담기관(4명, 4.8%)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2) 은둔형 청소년의 과거 은둔경험

은둔형으로 판별된 청소년들 중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7.6%에 이르렀다. 현재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미 과거에 은둔의 경험을 거친 재은둔의 상태이거나 혹은 과거의 은둔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은 과거 은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3명, 40.7%), 6개월~1년 미만(17명, 21%), 3~6개월 미만(14명,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간(40.7%)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현재 은둔형 청소년이 아닌 응답자들의 과거 은둔 기간은 3개월 미만의 단기간(60.2%)이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은둔의 기간이 길었던 청소년들이 현재 다시 은둔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은둔을 하였지만 은둔 기간이 단기로 끝났던 청소년들은 현재 은둔의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현재 은둔형 청소년으로 판별된 응답자들이 과거에 은둔을 경험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정신적 어려움(41명, 50.6%), 학업관련 어려움(13명, 16%), 대인관계 어려움(12명,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현재 은둔 상태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은둔을 경험한 이유가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간 은둔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다시 은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은둔 판별의 하위요인 특성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단절 및 고립'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나 직장(알바)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8.7%였으며,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이른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한다는 응답은 대다수인 94%로 나타났다. 내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가 68.7%, 가족이 없을 때에만 움직인다는 응답자도 과반인 56.6%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회피’에 관한 문항 중에서는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는 문항에 86.7%,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91.6%),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누군가와 연락하는 일이 별로 없다(86.7%), 친구가 거의 없다(90.4%),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73.5%)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은둔을 판별하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91.6%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다. 방을 정리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응답이 74.7%,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4)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은둔형 청소년들이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SNS)이었고(25.3%). 그 다음으로는 수면(21.7%), 동영상 보기(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면과 동영상 보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 은둔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4명 중 1명(26.5%)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무기력함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무기력함을 야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보여주었다.

은둔형 청소년들은 때를 정해놓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식사하는(44.6%) 생활패턴을 보여 아직 발달을 멈추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불균형하고,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임을 보여주었다. 과반수인 53%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식사는 혼자 식탁(또는 부엌)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3명 중 1명 이상(33.7%)은 혼자 방에서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하여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인 86.7%가 혼자 식사하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시간의 근로와 학업의 특성을 갖는 현대의 바쁜 일상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은 매우 짧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시간과 장소는 식사라는 일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은둔형 청소년들 중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너무 낮다. 가족 안에서의 소통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33.7%)은 혼자 방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면, 식사,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방으로 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집 안에서도 자신의 방을 경계로 하여 그 경계의 넘나들이 매우 한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은둔형 청소년들의 식사 패턴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들의 평균 8.24시간 수면하였는데, 9시간 이상 잠을 잔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 은둔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이 방 안에서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의 선택지에 한계가 있어 과수면을 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과수면의 활동으로 유추된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9%,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45.8%에 이르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시기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관계의 형성이나 교류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고립의 상태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었다.

평소 가족과의 대화 빈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였으며, 은둔형 청소년의 42.2%가 여기에 해당했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6%)를 포함하여 45.8%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가족 관계의 회복 역시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중 가족관련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는 59.1%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15%)의 4배 가까운 수치이다. 가족관련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은둔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은둔으로 인해 파생되거나 배가된 결과일 수도 있다. 성적, 학업중단, 진학실패 등으로 인한 학업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77.1%, 직업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63.8%였다. 특히 학업관련 어려움, 직업관련 어려움의 경우 4점 척도 중 ‘매우 어렵다’로 느끼는 극단치의 값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함을 보여주었다.

친구, 동료,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77.1%였고, 외로움, 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은둔형 청소년은 91.5%에 달하였다. 거의 모든 은둔형 청소년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매우 어렵다’는 극단치의 응답이 61.4%에 달해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털어줄 수 있는 치료와 서비스가 매우 우선적이고도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 중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65.1%로 은둔으로 인한 생활상의 제약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청소년 시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은둔형 청소년은 과반인 55.4%로 나타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둔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과 집으로의

한정된 생활이 신체적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용돈의 부족이나 생활비의 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69.9%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은둔의 성향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일상생활의 유형별 어려움을 4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영역은 정신적 어려움이었다. 4점 척도 상에서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정신적 어려움(3.49점) > 대인관계 어려움 / 학업관련 어려움(3.11점) > 경제적 어려움(2.99점) > 직업관련 어려움(2.78점) > 문화·여가활동 어려움(2.71점) > 가족관련 어려움 /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2.59점)의 순이었다.

6) 은둔형 청소년의 과거 부정적인 관계 경험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62.7%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험은 16.9%였으며, 부모(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28.9%였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과거에 친구나 또래 모임,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확률이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가 현재의 은둔 성향을 가져오게 된 다양한 요인 혹은 원인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7) 은둔형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감

현재의 행복감에 대해 77.1%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절대 다수인 94%가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래에 대해서는 75.9%가 비관적이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미래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비관적 인식이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1년 동안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해서는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49.4%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30.1%가 가끔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미래(진로, 취업 등)에 대한 불안'(36.4%)으로 나타났고, '우울, 무기력 등의 정신적 문제'(16.7%), '가족 간의 갈등'(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 가족관련 어려움은

여타의 어려움에 비하여 후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자살관련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과의 갈등 상태가 심한 경우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함을 주지해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47%의 은둔형 청소년들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가정 경제 수준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8) 은둔형 청소년의 관계, 교류, 지지 자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인 67.4%이었고, 38.6%가 가족 및 타인과의 교류에서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3명 중 1명 이상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교류에 있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는 높은 빈도는 관계의 범위를 감소시키거나 차단, 혹은 단절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표출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34.9%)이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는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은 자신의 지지체계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18.1%), 친구(13.3%),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34.5%), 친구(26.2%), 아버지(18.4%)의 순으로 부모(어머니+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52.9%에 이른다. 반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아버지를 꼽은 비율은 3.6%에 그쳐 부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21.7%에 그쳤다.

은둔형 청소년의 61.5%가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31.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앞서 살펴본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상대적인 격차를 보이는 응답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내 문제를 직접 가족 앞에 꺼내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응답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51.8%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68.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은둔형 청소년의 53%는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고, 57.8%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9) 은둔형 청소년의 상담과 지원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66.3%가 과거 심각한 고민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상담을 받은 사람 중 좋아졌다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34.5%에 그쳤다. 그러나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담 후에 좋아졌다는 긍정의 응답을 보인 청소년은 64.8%에 달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은둔형 청소년의 대다수인 74.7%는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인 54.8%가 현재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85.7%)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나의 상태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53.6%),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 할 거 같다’(28.6%)의 순으로 그 이유를 표출하였다. 상담 서비스 방법은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련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10) 은둔형 청소년의 정책욕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는 72.3%였고, 정식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69.8%였다. 63.9%의 응답자가 직업훈련을 원한다고 표명하였고, 75.9%의 응답자가 학업(공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77.2%의 응답자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고 표명하였으며, 91.6%의 응답자가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피력하였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반수 가까운 49.4%가 동의하였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53%가 의사를 표명하였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욕구를 4점 척도 상에서의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은둔 성향에 관계없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다.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의 정책욕구 2순위는 가족의 지지(3.1점)였으며, 3순위는 학업지원(3.07점)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을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정책욕구 2순위는 학업지원(3.15점)였으며, 3순위는 가족의 지지

(3.13점)로 나타났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경미하지만 우선하는 정책욕구임을 보여주었다.

은둔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을 학령기 집단과 청년기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학령기 집단보다 청년기 집단의 정책욕구가 대체로 조금씩 더 높거나 비슷했는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학령기 집단이 청년 집단보다 높았다. 은둔 성향의 청소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학령기 집단이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나, 정책적 욕구는 청년기 집단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립 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33.7%)이었고,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21.7%),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 및 학업지원(16.9%)으로 나타났다.



V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면접조사

1. 면접자 일반적 특성
2. 은둔 이유
3. 은둔기간·은둔시기 및 자퇴
4. 은둔생활 청산 계기
5. 일상생활
6. 정책욕구
7. 소결 및 논의

1. 면접자 일반적 특성

본 장에서는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은 2024.1.15.~2.16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시청 청소년 안전망 관련 부서 등에서 면접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루어졌다. 1:1 면담은 주로 면접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상담복지센터 상담실을 주로 이용하였다.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면접 참여자는 총 11명이었으며, 은둔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면접 참여자는 총 5명이었다. 청소년의 나이는 17세~23세까지 분포하였고, 부모의 나이는 44세~52세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모두 경기도 내였으며, 동두천 1명, 성남시 3명, 하남시 1명, 수원시 2명, 안양시 2명, 화성시 5명, 시흥시 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성, 지역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면접조사를 설계하였으나 대상자 발굴 및 접근이 여의치 않아 성별 상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다수를 점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참여 청소년의 은둔 기간은 7년이라고 응답한 한 명을 제외하고 3개월에서 2년까지였으며, 평균 은둔 기간은 1년 6개월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은 부모와 형제자매인 형태가 8가족이었으며 한부모 가족형태는 5가족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소년의 현재 상태는 대학입학 예정이거나 대학 입시 준비 중인 청소년이 4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2명이었고, 중학교 졸업 학력 취득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휴학 중인 청소년이 1명이었고, 아직 은둔 중인 청소년 2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 1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여부는 3명이 현재 취업중이며, 2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면접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과 같다. 한편, 면접 참여자 11명에 대하여 [표 5-1]과 본문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1], [청소년 2] 등으로 부모는 [부모 1], [부모 2] 등으로 표기하였다.

[표 5-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O	구분	성별	연령	은둔기간 ¹	가족구성원	상태(학력)
1	청소년1	여	18세	1년 반	모, 형제자매	대학입시준비(고졸)
2	청소년2	남	18세	2년	부모	대학입시준비 (대학중퇴)
3	청소년3	여	21세	6개월~1년	모	취업준비(고졸)
4	청소년4	여	21세	7개월	부모, 형제자매	대학입학예정(고졸)
5	청소년5	여	18세	6개월	부모, 형제자매	고등학교 휴학(중졸)
6	청소년6	여	17세	3개월	부모, 형제자매	학교밖청소년 (중학교자퇴)
7	청소년7	여	17세	4개월	부모, 형제자매	검정고시준비(중졸)
8	청소년8	여	23세	7년	모	검정고시준비(중졸)
9	청소년9	남	19세	1년 11개월	부모, 형제자매	대학입학예정(고졸)
10	청소년10	여	17세	9개월(진행 중)	부모, 형제자매	학교밖청소년(중졸)
11	청소년11	여	18세	2년	모, 형제자매	검정고시준비 (중학교자퇴)
12	부모1	여	46세	1년	배우자, 자녀	취업
13	부모2 (청소년6의 모)	여	47세	3개월	배우자, 자녀	미취업
14	부모3 (청소년10의 모)	여	46세	9개월(진행 중)	배우자, 자녀	미취업
15	부모4 (청소년11의 모)	여	44세	2년	자녀	취업
16	부모5	여	52세	-	자녀(14세, 남)	취업

주 1: 부모인 경우는 자녀의 은둔기간을 말함.

2. 은둔 이유

가. 복합적인 은둔 이유

연구 참여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집에서 은둔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에 기인하기보다 다소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였다. 그들이 학교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어려움, 우울과 무기력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가족과의 갈등 및 부모의 방관적 양육태도, 자존감 저하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들이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청소년별로 이유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2]는 잦은 이사를 다녔고, 그로 인하여 전학을 간 뒤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게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밖에 잘 안 나갔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제가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주 바뀌었는데 깊이 친한 친구가 없고 거기서도 ****초등학교였거든요**. 3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애들이 다 무리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 때부터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 쫓따라고 하고, 저한테 욕도. 몰랐는데 거기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제 책가방 찢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길이면 제 어깨 툭 치고 가고, 밀치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정색하고 딴 데로 가거나 그런 거 많았고. 6학년 때 제일 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6학년이고 그 **선생님이** 마지막 부임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소란 안 일으키려고 **대응은 안 해주셨고**. 【청소년 2】

[청소년 3]은 대인관계 접촉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인간관계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낀 동시에 어머니와 갈등이 그 이유였다. [청소년 3]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면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자신을 별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은둔생활이 시작된 후로 음식섭취도 중단하였었는데 우울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례도 학교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때 제가 방에 들어박혔던 건 **사람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서도 있지만, 자신을 별주고 싶었 달까? 제가 굳이 그 아이에게 먼저 나서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상처도 안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한창 사춘기 때여서 **임마랑 자주 싸우고** 었나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 방에 갇혀 있으면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을 거고 내가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나만 혼자 갇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으니까 난 방에 있을 거야 나를 벌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물이랑 음식도 안 먹었어요. 초반에는 좀 먹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무미하게 느껴져서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청소년 3】

[청소년 5]는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동급생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부모님과 의견 충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청소년 5]는 우울과 공황 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결국 학교를 나가지 못했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단 중학교 때 계속 학업을 많이 챙기면서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었고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환경**이 됐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자주 다투게 됐어요.**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기숙사 학교를 나오게 됐고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라서 병원에 가봤었는데 **공황**이 심하게 와서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처럼 밖에도 못 나가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이 두려워서... 그때 학교를 잠깐 쉬게 되면서 집에만 머무르게 됐던 것 같아요. 병원 말고는 나간 적이 없고. 【청소년 5】

[청소년 6]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적응이 어려웠으나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교 시스템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와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도 없을뿐더러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어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딱 터진 20년도에 **우울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학교도 힘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학교 안 나가고. 상담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일주일엔 한 번씩 나가거나 아니면 카페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건 했었어요. 21년도에는 학원을 계속 다녔고 다운되고 학교를 계속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22년도에 갔는데 또 안 됐고, 그래서 그때도 바깥 생활도 가끔 했다가. **학교에 갇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간이 싫었어요. 그것도 싫고 그냥... 친구들도 딱히 별로 안 좋아했어 가지고. 저한테도 **자신감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걸돈다는 느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따를 당한 건 전혀 아니고. 애들은 다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혼자서 애들을 다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 6】

[청소년 8]의 경우 가정환경이 심하게 불안정하였으며, 부모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고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부모는 [청소년 8]을 오랜 기간 동안 방관하였다. 해당 청소년은 필요할 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세월을 그냥 보냈다.

너무 **집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말 최악이었던 거 같아요. **저를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나 심리 상담도 받고 나 학원도 다니고 싶어'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를 **방치**해 뒀어요. 이게 1년이 되면 그래도 포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되니까... 어느 순간 딱 2018, 3년쯤 됐을 때는 그냥 **다 포기하게 되고** '남은 인생이 끝났구나. 그냥 이대로 죽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청소년 8】

[부모 1]의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다. 고학년이 되고 코로나 기간이 지난 후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자녀가 말이 거칠어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에 놀라고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코로나를 2년 겪었잖아요. 아이가 엄청 잘 지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지내고 4학년 때 여기 전학 왔는데 내성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서지고 여기 와서도 부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애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거칠어지잖아요. 알게 모르게 애들이 욕도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뒤에 가서는 이 ** (욕설) 이런 걸 들으면서 애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든지 애들이 저학년 때는 되게 착했는데 **거칠어진 모습**에 애가 어찌할 바를 좀 몰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거의 원격이랑 이게 병행되면서 학교를 아주 띄엄띄엄 가고 학구가 아닌 중학교를 배정받았죠. 그러니까 더 서먹서먹하고 애가 외동이거든요. 어떻게 교우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어려워하면서 거의 애들이 지가 본 모습, 2년 만에 친구들을 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의 모습은 많이 거칠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너무 다르게 많이 거치시고 **이런 것들이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부모 1】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 이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고 난 후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미해결된 채 결국 학교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둘째,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학급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어울리기를 두려워하여 더욱 고립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청소년과 부모님의 방치로 인하여 은둔하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나. 은둔을 촉발한 가정환경 요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장기간 가정환경이 불안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환경 요인이 청소년들의 은둔생활을 촉발한 맥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별 및 이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3]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모가 양육하였는데 고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 8]은 아버지의 가정폭력, 보모님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피해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부모 3]은 결혼하고 1년 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힘들었고, 맞벌이로 인하여 바쁜 생활로 자녀를 방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부모 5]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이사 등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자녀가 심적으로 힘들어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내담자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해결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취약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담자가 7살 이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양육권이 엄마한테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엄마가 희귀 질병이 딱 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시고 계시는데 그때 발발을 해서 저를 아예 못 돌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일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니까 그 얘기를 고모한테 보내진 거죠. 근데 고모한테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게 많았어요. 종교문제로도, 고모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직책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자기의 명예나 명성을 망가뜨리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엄청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니까 그때는 목욕탕 가면 1초 만에 친구 데려왔어요.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잘 못 어울리면 집에 돌아와서 그 복치는 드럼처럼 **엄청 맞고, 공부 못하면 못한다고 또 볼펜으로 머리 맞다가** 볼펜이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맞고. 【청소년 3】

가정 상태가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수십 년을 당해왔어요. 엄마 스스로도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맨날 술만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아빠도 마찬가지로요. 아빠도, 사실 아빠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두 분 다 그랬어요.** 7살 때. 딱 기억나는 게 경찰서를 셋이 갔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겠죠. 갔는데 경찰서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눕혀놓고 딱 때렸어요. 근데 경찰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무서워서 오줌 싸고 그랬어요. 7살인데도 그것부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가정폭력** 당하면서 엄마가 증거로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맞는 거를. 그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8】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을... 결혼하고 나서 제가 딱 1년. 1년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년. **이 낳고 나서 낳기 전,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 뒤부터 2년째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제가 초창기라서 직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또 그래갖고 **애들을 숙제고 이런 거를 아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겨우겨우 밥만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두 놈도 아침에... 또 부랴부랴 또 가게 가고 그런 생활이 초등학교 때가 계속 된 거예요. 5~6학년 정도까지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애들이 알아서 라면 끓여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고. 애들이 알아서 해서 먹고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해서 되다가 중학교 때 또 코로나 끝나서 3학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ADHD로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거랑 이런 게 언밸런스가 돼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한 거죠. 【부모 3】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른 데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저희가 이 쪽으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러면서 더 좀 내향적으로 변했고... 이제 그러면서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면서... 한 4학년 지나서 5학년 초부터 **급격하게 심하게 애가 많이 변하고** 그런 게... 말도 더 안 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모 5】

다.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1)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가) 소외되는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청소년 5], [청소년 7]과 [부모 3]은 또래관계에서 소외 경험을 한 후에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5]는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서 자신의 정신적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싫어하는 친구들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를 주어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 7]과 [부모 3]은 학교를 떠나 집에 은둔하게 된 계기를 오래 전부터 경험한 또래와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뽑았다. 이러한 소외 경험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았지만 억지로 버티면서 학교에 다녔다고 하였다. 또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사로 전학을 가게 된 경우 친구 사귀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나오기만 해도 몇 분 못 있고 집에 다시 들어가고 되게 **약으로도 잘 안 될 정도로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학교 주변이나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 만 마주쳐도 되게 심했는데,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되게 제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보건실에 자주 가고 Wee클래스에도 자주 가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 이랑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좀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제가 무슨 의견을 말하면 되게 눈치를 준다거나 아니면 저 혼자 있는데 그때 주변에 와서 비웃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리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이런 느낌으로. 【청소년 5】

친구가 딱히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서... 놀긴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다들 붙어 다니니까.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혼자 다니면 혼자 다니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돼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청소년 7】

친구관계가 잘 안 됐고 유치원 때부터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별생각 없이 다니다가 중학생 되면서 친구관계가 더 어려워졌고, 친구랑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괴롭힘을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소외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게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게 된 건데. 【부모 3】

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처

연구 참여자들이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건으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다. [청소년 4], [청소년 5], [청소년 10]과 [부모 1]의 자녀 모두 따돌림이나 폭력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 4]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피해경험에 대한 조치나 회복 과정이 없이 지나갔다고 하였다. 이 때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적극적 개입이 없거나 청소년을 비난하는 등 청소년의 피해경험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청소년 5]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Wee클래스에 가거나 했던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편의를 봐준다고 착각한 학급 친구들이 내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어서 등교하기 어려워졌지만,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 [청소년 10]은 학급 친구들이 내담자를 겨냥하여 신발주머니나 공으로 맞추는 행동이 반복되었지만 대응하지 못하였다. [부모 1]의 자녀도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날아오고 자꾸 저를 틀에 가두려고 한다고 할까 약간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뭔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좀 부정당하는 경험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도 당했던 것 같아요.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려고 하다가 안 열었거든요. **주변에서 왠지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열게 되면 제 편에서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완전 무고한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청소년 4】

모듬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제가 무슨 의견을 말하면 되게 눈치를 준다거나 아니면 저 혼자 있는데 그때 주변에 와서 **비웃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들리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이런 느낌으로. 친구들이 소문을 내가 지고 그걸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아픈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뭔가 이제 부모님이 아침마다 저를 학교를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 말씀드리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혼자 참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일부러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에서 쉬는 시간에 이제... 자기 친구들 신발을 축구하듯이 이제 공... 공처럼 갖고 놀듯이 이제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나 공부한 애들을 맞추기도 하고. 놀다 보니까 맞추기도 하면서... 애들이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에 공을 갖고 와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곳에 축구공을 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청소년 10】

아예 학교를 거의 안 갔고요. 코로나 아시죠? 2020년. 그때 완전 학교 몇 번 안 갔을 때 그때 애가 학교를 지발로도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가서도 원격반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학교도 아닌 곳에 가가지고 마치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을 정도에 축제를 했는데 애는 선생님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애가 좀 잘 못 사건다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중학교 남자 선생님은 그냥 니네들끼리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애는 어떻게 친구랑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왠지 거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또 자기가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애들이 거친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아들은 평화주의자라서 갈등상황을 되게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축제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복도에 있는 책을 읽었는데 **무리들이 와가지고 쩌딱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났지만 되게 상처가 많아서 안 가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인관계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 1】

다) 친한 친구와 갈등경험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됨

연구 참여자들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험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 되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청소년 3]과 [청소년 5]는 친한 관계에서의 미해결된 갈등에 대한 경험이 상처가 되어 다른 대인관계에도 일반화를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은 친한 친구의 위험행동을 막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오히려 청소년을 원망하는 결과로 돌아와서 그 일을 계기로 대인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고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 5]는 학업경쟁으로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거나 갈등경험 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게 (은둔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제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친한 동생이 성매매 관련해서 상대 남자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중략) 결국엔 엄청 심하게 싸워서 제가 개 뺨을 때렸거든요. 근데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될 그제 생각이 안 나서 무작정 따라갔어요. (중략) 개네 어머님한테 전화가 하루에 30통씩 왔어요. 계속 '왜 경찰서 안 오냐 증언을 해줘야지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경찰 조사 참여를 못할 것 같다. 그때 상태가 전체적으로 나빴어서 정신상태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다 안 좋아서. 더 이상 경찰 조사 못 갈 것 같다고 동생 잘 챙겨주시고 죄송하다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지 않은 말.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그거를 기점으로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이러면서 우울하고 무기력증...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사람 좋아하고 활발하고 장난기 많고 말 많고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 이었는데 지금은 말 없고 차갑고 사람도 안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는, **그때를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엄마 말로는 그때 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다**. [청소년 3]

주변 친구들이 **친한 상태에도 성적으로 많이 무시를 받는 느낌**이 많아서 시험이 끝나고 일단 웬만해서 친구들끼리 다 성적 얘기를 하고 잘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못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잘 나온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걸로 애들끼리 예민하다 보니까 많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마다 환경도 다른데 커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속사라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평소에는 맞춰 나갈 수 있는데 다 예민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싸우는 계기가 되고. 또 되게 제가 믿었던 친구들도 뭔가 막상 그 학교에 가니까 다 변하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 깨졌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2)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심리문제를 겪어서 학교를 떠나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후 우울증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청소년 5]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청소년 6]은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즉각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자 등교를 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부모 3]은 자녀가 등교거부를 해서 원인을 돌아보니 공포증으로 인한 어려움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중1 때 괜찮았는데 중2 때 학교폭력이라 왕따 당하면서 학교 안 간다고 배 짜다가 엄마가 애 좀 이상하다 병원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그때 그 병원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었던 거를. 【청소년 3】

그때는 막 당장 막 숨쉬기가 힘들고 제가 쓰러지고 사실 쓰러지면 주변 친구들이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고 사실 급식도 아예 못 먹어서 급식실이 너무 사람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황 때문에** 잘 못 먹고 학교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힘조차 없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 5】

제가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녀봐라’ 이러길래, 3주 차 되던 때 제가 엄마한테 **‘나 정신과 가고 싶다’** 이랬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지고 ‘코로나 블루’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 그거 같다’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원래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시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가 화요일이어서 ‘이번 주만 가고 토요일에 정신과를 가보자’ 그랬는데 정신과를 방학 때도 한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가고 그만뒀었는데, 한두 번 정도 가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나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버틴 것도 용한데...’ 그래서 ‘아, 그냥 가출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옆길로 섰어요. 근데 가출이 아니라 외출의 느낌이었단... 2시간 만에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칩거했던 게 그 이유가 가장 커요. 【청소년 6】

중학교 3학년 겨울 기말고사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기말고사 보기 한... 한 달 전 정도가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중학교 1~2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중간에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식당도 많고 잘 먹고 집에서 그렇거든요. 점심을 안 먹고 오길래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마스크 벗는 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벗고 오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를 그때 소음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고는 면도기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 속 틈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장(공포증)**, 그거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당시는 몰랐었는데... 【부모 3】

3) 자신감 하락

가)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 하락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고 이것이 학교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청소년 5]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한 학습목표나 성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좌절감이 커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였다. [청소년 6]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심적으로 변화가 커진 상태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청소년 7]은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이 누적되어서 앞으로도 공부를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정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업시간에 학습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부정적 사고를 증명하듯이 나아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갔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음) 제가 원하는 **목표치가 항상 뚜렷해서 그만큼 제가 못하면 그 상황이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공부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러 간다는데 공부를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못해서 중학교 2학년 때도 거의 만족 못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수업시간에는 딴 짓 하게 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도 그냥 있긴 한데 마음을 주는 친구는 아니고 하니까 '왜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7】

제가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2 올라가면서 좀 '살짝 어렵네?' 이 정도 느끼고 그래도 막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심적으로 변화가 찾아오면서 말에도 성적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중2 말쯤부터. 근데 그것도 갑자기 확 (심적 변화가) 찾아오면서 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에 관심도 없어지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 유지가. 【청소년 9】

나) 외모 비하 및 타인과 비교

청소년기는 이차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로 청소년기 발달특성상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 9]는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외모를 생각하며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게 되었다. [청소년 9]는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하여 의욕을 상실하였다. 타인과 비교도 하게 되어 위축되어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잃어서 자퇴를 하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전에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왜 저렇게 생겼지? 남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려나?’ 하면서 그전에도 살짝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은 건 있었거든요. 제가 엄청 굵슬이었고 지금은 매직을 한 거긴 한데. 그러면서 머리도 쥐어뜯고 살도 엄청 찼었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키가) 160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몸무게가 그때... 거의 9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저를 비교한다거나 그런 게 심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이고, 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밝게 있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힘들어하고 친구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오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고. 아무래도 은둔형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들하고, 앞으로도 웬지 중학생처럼 생활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자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9】

3. 은둔기간·은둔시기 및 자퇴

가. 은둔기간과 은둔시기

연구 참여 청소년마다 은둔기간 범위의 폭이 넓었다. 은둔 기간이 7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8]을 제외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의 은둔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한 평균기간은 1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둔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청소년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상 급격한 신체·심리 변화로 인하여 정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함에 따라 부정적 정서 또한 크게 경험하여 다소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접 참여자들이 은둔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가 다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또래관계형성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 이에 은둔성향이 있던 [청소년 3]과 [청소년 9]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시행이 은둔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이요. **코로나 중2**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2 때도 사실 안 나왔긴 했는데. 고2 때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조금 남아 있죠. 나오긴 하지만 거의 집에 있고. 조금 거부감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거의 며칠 만에 나온 거라서 샤워도 거의 안 하고. 오늘 나온다고 샤워한 거예요. 【청소년 2】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거 같아요. 중3에서 고1이었나 약간 **고1**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막 터질락 말락 조금씩 발발해서 소식오고, 그때였어요. 【청소년 3】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학교 자퇴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니까. 대략 그래도 3월부터 10월, **6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4】

재작년... 이제 22년도 **7월정도 되는 거 같은데. 11월** 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6】

저 그렇게 2015년, 여름방학 시즌이었으니까 그때가 7~8월이었던 것 같아요. 15살 때 자퇴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그랬어요. 【청소년 8】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중2 말쯤?** 그때쯤부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때 이제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가기 전까지요. 【청소년 9】

코로나가 어른은 솔직히 그렇게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학교가 엄청난 거구나 본인이 말해요. ‘엄마 학교를 다녔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성적인 아이지만 어쨌든 부딪히면서 지내는데 이거. 거의 1년을 학교를 내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한 10번 갔나요? 거의 완전히 꽂이었고요. 애는 또 외동이고 그렇잖아요. 집에 축구 하던 애가 왕성하게 하던 애가 집에만 머물러야 했었고. 그리고 2021년도도 완전 반 이상이 원격이고 너무 거친 애들 만나니까 애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부모 1】

나. 자퇴

1) 자퇴 선택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들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자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신적 어려움, 불안정한 가정환경, 오래된 은둔 성향, 그리고 전학으로 인한 변화 등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2]는 불면증으로 지각하는 일이 생기자 자퇴를 한 후 은둔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검정고시에 응시한 뒤 아버지의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청소년 8]은 초등학생 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에서 전학까지 가게 되어 심한 심리적 위축 상태로 힘들게 버텼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자퇴를 선택하였다. [청소년 9]는 자퇴하기 전부터 이미 은둔 경험을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는 더 소원해져서 자퇴를 선택하였다. [부모 2]는 자녀가 자퇴하기 전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였고, 이사로 인한 전학이 아이에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12시에 깨거든요. 계속 12시에 깨고 그래서, 입학식 하루 가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방황하면서 방황도 아니죠. 솔직히 방황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집에서 누워 있고 늦잠 자고 깨어 있으면 엄마 아빠 다 나가 있고 밥 먹고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게 된 거죠. 어쨌든 뭐라도 해보자 해서 자퇴했는데 일단은 검정고시라도 해보자 해서 제가 아무 것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고 옛날에 했던 기억 살려서 최대한 해서 고1 10월인데 그때는 솔직히 한다고 해놓고 안 했고, 한 11월 12월쯤에 제대로 해서 4월에 봤어요. 그래서 평균 97.7해서 하고, 뭐 하지 했는데 아빠가 그걸(대학교) 찾게 된 거예요. 그 학교를.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청소년 2】

초등학교 때도 버텼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친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3학년 되고 나서 학교에 잘 안 갔어요. 그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왜냐하면 그 때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해지고** 컨테이너 같은데 살았거든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딱 집이 엉망이라 저랑 둘이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어요. 맨날 벌레 맨날 나오고. 아무래도 햇빛도 안 드니까 옷에서 냄새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애들도 저한테 잘 안 다가오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러다가 4학년 때 **전학을 가서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겁도 많고 긴장도 진짜 많이 하고 말도 잘 못 걸어요. 이런데 또 그전 학교에서도 그랬으니까 더 **위축해서** 새 학교에 간 거죠. 그때도 버텼어요. 초등학교도 진짜 겨우 졸업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냥 버텼고 계속 버텼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8년? 6, 7, 8년 동안 계속 거의 버티고만 있어요. 학교생활을 집에서도 안정도 안 되고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난 혼자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 버텼던 것 같아요. 지쳤고. 【청소년 8】

그전에도 **계속 은둔생활을 해왔었고** 고등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실 중학생 때는 그래도 3년 동안 봐온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버틸 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고. 아무래도 은둔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들하고, 앞으로도 중학생처럼 생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자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좋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청소년 9】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 저희가 뉴욕을 가족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아빠가 있어서 이제 셋이서 비행기 표 끊어서 아빠한테 갔다 왔는데 갔다가 오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6학년 내내 힘들었던 거예요. 6학년 초반부터 왜냐하면 제가 1, 2, 3, 4(학년)는 엄마 집 근처 정말 걸어서 한 1,000미터 옆에 단지 사시는데 그쪽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연로하시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애들을 맡겨놓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시게. 제가 집에 있으면서는 굳이 애들이 멀리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중학교 배정도 이상하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애네들을 제가 단지 앞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랬더니 5학년 때 **전학을 왔으니 4년 동안 사귀 친구들이 다 싹 사라진 거죠**. 저는 애가 이렇게까지 예민한 애인지 몰랐어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알았어요. 【부모 2】

2) 자퇴에 대한 부모 반응

연구 참여 청소년이 자퇴를 선택했을 때 결국 자녀의 선택을 수용해주는 부모님과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4]와 [청소년 9]의 부모와 [부모 1]과 [부모 3]은 자녀에 대하여 자퇴 선택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4]는 학교에 가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서 더는 다니지 못하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자퇴를 결정했을 때 부모님이 자녀가 아프다는 것을 수용하고 자퇴를 지지하였다. [청소년 9]는 자퇴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의 의사보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 1]과 [부모 3]도 자녀의 자퇴 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자녀가 자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위해서 자퇴를 선택하도록 조력하였다. 아래 제시한 면접 참여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퇴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첫 반응은 청소년이 자퇴 선택을 유보하기를 원하였지만 자녀가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한 후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여 청소년이 위로를 받았다.

학교에 가면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설사도 나오고 근데 학교 밖을 벗어나면 신기하게 또 다 낫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 아버지께서 엄격한 편이셔서 자퇴를 하고 싶어도 자퇴 못 하고 꾸역꾸역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자퇴하게 되었어요) 울거나 그럴 때 **엄마가 많이 달래주고** 여러 가지 말을 해주긴 했어요.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 **아빠도 제가 자퇴할 때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4】

처음에는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시다가 저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한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라해서, 앞으로 진로 계획이나 그런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하기엔 저도 죄송스럽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도 알겠다 하셔서** 자퇴를 바로 진행하게 됐어요. 【청소년 9】

학교를 제가 왜 자퇴를 시켰냐면 중2 때 아파트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애를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쳤는데 근데 또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약간 가벽처럼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를 더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어떤 곳에 다 가지만 나는 학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약을 통해서 뇌 호르몬이 조절돼서라도 또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가 먹겠다는 것도 있고요. 【부모 1】

처음에는 제가 강요해가지고 보냈어요. 하루.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보냈었는데 그다음 날 다음 날도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심상치 않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랑 통화하고 그때는 이제 아예 못 가게 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그런 것보다는 **이가 더 중요하니까 분리를 하자라고 했죠. 【부모 3】

반면, [청소년 5], [청소년 6]과 [청소년 8]은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5]는 공황장애로 인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어서 휴학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심리문제를 인정하기 힘들어하였다. [청소년 6]의 아버지는 포기상태라고 지각하였고 어머니는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비난을 하였다. 청소년은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기대에 부응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청소년 8]은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어려움을 가중되는 것으로 보였다.

초반에 어머니는 알고 제가 계속 힘들어하던 과정을 보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픈 상태구나를 인지를 하셨는데 아빠는 갑자기 제가 쓰러지거나 숨을 못 쉬는 상황이 갑자기 오니까 뭔가 되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같아요. 제가 약간 아프고 이런 게 그냥 힘들어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우울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안 믿으셨고. 그래서 힘들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마라 그냥 너가 굳이 이렇게 막 아파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지금 아픈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아빠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고. 엄마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쏘던 화살들이 다 바깥으로... 상담 받고서 바깥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안 좋아졌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엄마가 또 가장 옆에 있고 가장 많이 듣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마가 공감 능력이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심한 말을 가장 많이 하긴 했어요. 칭찬하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저한테 칭찬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대치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제가 그걸 따라가려고 더... '나는 그냥 엄마 아빠 웃었으면 좋겠는데' 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실패로 받아들여서 좌절하고. '나는 못하면 안 되는데' 이라고 좌절하고.. 【청소년 6】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절 탓했죠. 엄마도 아빠도. 절 탓했어요. 아빠는 '아니 왜 왜 하는 거냐?' 이러면서 '왜? 왜?' 그래서 이렇게 의논만 했고, 아빠는 '너가 친구를 가려 사귀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제 탓을 했고. '너 수준에 맞는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아빠는 솔직히 알지도 못하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청소년 8】

4. 은둔생활 청산 계기

가. 내적 동기

1) 자발적 의지가 생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은둔생활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 [청소년 4]는 본인이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이 생활이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은둔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 6]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가게 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센터에 적응하면서 은둔생활을 벗어나게 되었다. [청소년 8]은 은둔생활로 본인의 방에서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지내기에는 내 인생에 대한 준비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하는 조바심이 났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밖을 나가게 되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보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 진료와 상담도 받고 공부하며 대인관계도 하며 은둔생활을 벗어났다.

갑자기 그냥 속상해져서 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은둔생활을 그만둔) 것 같아요. 【청소년 4】

‘그럼 난 의지 박약인 건가?’ 스스로가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칩거했던 게 그 이유가 가장 커요. 실패할까 봐 그냥 아예 안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현타(현실자각)가 온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면서 이제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그냥 출석만 해도 괜찮구나. 뭔가 100% 다 잘할 필요 없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인정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청소년 6】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2살 딱 되니까. ‘난 너무 나이가 많다. 난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하... 그래도...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그게 뜬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일단 가라. 뭔가 너무 힘들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더라도 해봐라. 진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뭐라도 도움을 줄 거를 해줄 거다’ 이런 글을 본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2022년 새해도 됐고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갑자기. 무기력하다가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청에 정신건강센터를 연계해 주셔서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또 정신과 상담도 받고 또 여기도 알게 되고 하면서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청소년 8】

2) 다독의 힘

연구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방 안에서 지내는 동안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켰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청소년 3]은 은둔생활 동안 방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느꼈다. 이 시간이 성숙을 위하여 청소년 본인에게 꼭 필요했었다고 회상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은둔 경험을 승화하였다. [청소년 5]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책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주변 사람도 제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안쓰러워하고 힘들었겠다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방 안에 있는 동안 책을 읽었잖아요**. 지식이 쌓이고 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방에 틀어박히기 전이랑은 확 완전 다르게.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엄마 말로는 철들고 엄청 성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에 있는 동안 책 읽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지식을 키우고 어찌고 하면서 많이 **성격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나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성숙해지고 좋아졌으니까**. 전 오히려 옛날에 그때보다 좀 **발전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전 오히려 그때를 살짝 고마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 말고, 그 시간에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책을 읽고 시야가 넓어지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슬슬 다시 나와서 엄마 아빠 걱정 그만 시키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그런 거 있죠? 【청소년 3】

저는 책을 자주 읽고 책을 좋아하는 편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찌다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게 됐는데 원가 **책 읽는 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식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에 나가게 되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 [청소년 4]는 대학교를 진학을 위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하여 정보를 찾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은둔생활에서 벗어났다. [청소년 6]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집밖으로 나왔고 상담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목적 없이 검색하다가 우연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센터에 나가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더 빨리 은둔생활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학교는 미래를 향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를 꼭 가길 원하셔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정보를 찾고 **꿈드림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4】

밖에 정확히 나온 거는 이제 3월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들으면서 자주 나오게 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선생님), 다른 친구들 사랑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청소년 6】

다. 정서적 지지

1) 정신과 의사 및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와 같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은둔 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5]는 상담사가 인정하고 믿어주었던 경험이 자신을 자책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이해가 높아져서 단단해진 경험을 하였다. [청소년 8]은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1]의 자녀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상담사를 만났는데 자녀가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부모 2]의 자녀도 상담자를 많이 의지하였다. 이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상담이나 정신과치료를 받은 참여 청소년들은 치료자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은둔생활을 벗어나게 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상담)선생님께서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고. 제가 좀 사람을 못 믿는다고 했던 거를 좀 잘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겠다고 하셨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뭔가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제가 뭐 칭찬일기 같은 것도 써보고 그리고 감사했던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 문자로 보내보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무작정 생각해 보고 막 도전해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스스로** 약간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그 정신과 의사 쌤한테. 그랬더니 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7년 동안에도 갑자기 무기력할 때는 진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한데 갑자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아직 안 늦었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업다운이 진짜 극적으로 심한 거예요. 이런 거 7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업 될 때마다 엄마하고 막 나가고도 그랬어요. 아침에. 그것도. 근데도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몰랐다가 2022년 초에... 【청소년 8】

상담센터 갔는데 그분이 되게 반응을 잘해주시니까 그분한테는 되게 좀 잘. 애는 상담하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한테 잘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 이 선생님은 어머니? 이 선생님 어머니? 하면 저 선생님은 괜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1】

제작년 11월에 만난 그 선생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 말만 1등으로 믿으시는. 【부모 2】

2)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은둔생활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청소년 5]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로 상담과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이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자신의 힘든 심정을 알게 되었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상담은 거의 안 가려 했고, 병원도 사실 나가는 거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둘째 동생이랑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친한 편이고 잠도 항상 같이 자고 일상생활을 많이 같이 하는 편인데, 제가 아예 방에만 있으면서 동생이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 빈자리가 동생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져서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막 말도 걸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막 장난도 치고 했는데 제가 하나도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동생이 이제 몰래 제 일기를 봤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고 동생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때 **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청소년 5】

라. 외적 동기: 절박한 상황

연구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집박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청소년 1]은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나가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간호를 위해 집박을 나가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11]은 집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집에 있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가게 되어서 은둔생활을 벗어났다.

엄마 쓰러지고서부터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가게 됐어요. 엄마랑 또 가족들만 아니면 집에만 있고 싶어요. 【청소년 1】

처음에 제가 집에서 틀어박혔을 때는 걱정이란 게 없었거든요. 집이 엄청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주 집안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집에서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거기(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라도 나가면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밥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집 상태에서 아빠는 교도소 가고 엄마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청소년 11】

5. 일상생활

가. 식사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식사횟수는 다양하였는데 1일 1회부터 3회 혹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은 1일 1회 혼자서 식탁에서 먹는다고 하였다. [청소년 2]와 [청소년 4]의 식사횟수는 1일 2회였으며, [청소년 9]는 1일 3회 모두 먹는다고 하였고, [청소년 10]은 배고플 때마다 식사한다고 응답하였다.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대다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현재 상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일 낮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집에 혼자 남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한번 먹어요. 혼자 식탁에서 먹어요. 【청소년 1】

두 번을 혼자 먹죠. 다들 이제 먹는 그게 달라서 엄마 아빠도 이제 회사에서 먹고 오거나 하니까 저 혼자 먹죠. 【청소년 2】

두 번 정도 (먹어요). 가족과 함께 먹거나 **혼자** 식탁에서 (먹어요). 【청소년 4】

요즘에는 **거의 다 챙겨 먹는 거**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혼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다 외출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9】

밥은 **배고플 때마다** 먹고 **혼자** 식탁에서 먹어요. 【청소년 10】

나. 수면

연구 참여 청소년 대다수는 취침 시간이 늦은 밤이나 새벽이어서 기상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 [청소년 2], [청소년 4], [청소년 5], [청소년 7], [청소년 10], 그리고 [청소년 11] 모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날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즉, 청소년 참여자의 대다수의 수면패턴은 불규칙하거나 올빼미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으로 인하여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은둔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4]와 [청소년 5]는 공부나 창작 활동을 위해 수면시간을 단축했지만 힘들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14시간이요. 거의 밤낮이 바뀌었어요. 【청소년 1】

수면시간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새벽 새벽이든 밤이든 어느 시각에 자도 12시에 깨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벽 5시까지 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어떨 때는 그냥 더 일찍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잠이 안 와서. 【청소년 2】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일단 생각나는 건 **5시간**. 밤중에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떠올라서. 그리고 그때 떠올라서 적어두고, 그렇지만 학교 가야 되니까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4】

2시쯤 자서 7시쯤 일어나는 거 같아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돼요. 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게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되니까 오히려 **잠을 덜 자도 더 오히려 좋은 거 같아요.** 【청소년 5】

한 **3시쯤 자서, 11시, 12시.** 【청소년 7】

새벽 3시부터 한 5시 6시 그때 자가지고 12시나 3~4시 뭐 이렇게 일어나요. 가끔씩 가위 놀리는 것 같아요. 잠이 안와요.. 【청소년 10】

4시간 잘 때도 있고 하루에 8시간 잘 때도 있고 그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달걸이를 할 때는 이제 한 새벽 2시 정도에 자고, 진짜 무기력할 때는 한 9시에 자고. 【청소년 11】

다. 주된 활동

1) 유튜브(Youtube)와 스마트폰으로 시간 보내기

연구 참여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인터넷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4]의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후 집에서 지내면서 유튜브로 주로 정신건강이나 따돌림과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자책과 원망을 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인정하지 못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청소년 6]과 [청소년 11]은 유튜브로 좋아하는 게임영상이나 브이로그 등을 본다고 하였다.

유튜브 영상을 정말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학교 폭력 관련된 거 못 보고 제가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신건강 쪽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하고... 아무튼 가스라이팅 하고 그래도 따돌림 관련된 영상도 봤었나 그랬고. 그리고 그냥 친구 없다는 댓글에 친구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내 얘기 같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게 학교 폭력인지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걸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책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거의 모든 걸 엄청 원망했던 기억이 저를 포함한 모든 걸 원망했던 것 같기도 해요. 【청소년 4】

유튜브 봐요. 그냥 브이로그도 좋아하고, 그림 영상? 그거랑 밴드 영상이랑. 가끔 왜 성격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끔 보고. 【청소년 6】

동영상 **유튜브로 그냥 게임 영상**이나, 막 사이다 툰 같은 거. 【청소년 11】

2)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자기

은둔생활 동안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 안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3]은 방 안에 갇히는 일이 스스로에게 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버텼다. 대인관계도 모두 단절한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청소년 5]는 심할 때는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방 안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청소년 8]은 방에서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자해를 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아무런 목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내거나 자해를 하는 행동양상은 우울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만 혼자 간혀 있으면 모든 게 괜찮으니까 난 방에 있을 거야 나를 벌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물이랑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초반에는 좀 먹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무미하게 느껴져서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마시는 게 물을 마시거나 음식 섭취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화장실도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었나. 지금도 체중이 있는 편이지만 그때도 체중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밥을 일주일 안 먹으면 아사...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가지고 뭐지 싶기도 하고. 아예 카톡이랑 연락처 싹 다 주변 사람들도 그냥 다 알람 꺼놓고. 그리고 안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녁에 하루에 한 끼 한 끼나 간식으로라도 뭘 먹었는데 몰래 새벽에 나와서 먹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되고 그다음에는 물을 안마시게 되고 섭취하는 게 없으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걸 아예 안 가게 되고, 화장실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방에서 아예 나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청소년 3】

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고 거의 무기력하게 누워 있거나 가끔씩 책을 읽거나. 그리고 뭐 일기처럼 그때 병원에서 권유를 받아서 상담을 받으면서 일기 같은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쓰라 하셔서 썼었는데 웬만하면 거의 우울한 이야기였고 사실 그때는 뭔가... 뭔가를 할 의지 자체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계속 혼자 있었어요. 계속 볼 다 꺼놓고 TV만 켜놓고 핸드폰만 해요. 근데 핸드폰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고 먹고 TV 보고 자고 먹고 TV 보고.** 나 혼자서 자책하고 혼자 혼자서 막 자해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청소년 8】

3)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하기

연구 참여 청소년들 중에 은둔생활이라는 위기상황을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아 승화를 시킨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 2]는 은둔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방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고를 확장하며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기 주도적이 되었다. [청소년 4]는 힘들었던 경험을 일기를 쓰면서 위로를 받고 자아성찰을 하면서 힘든 경험을 승화시켰다. [청소년 7]은 형제자매가 많아서 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은둔생활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어서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을 계속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하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자기 주도적이 된 건데,** 이제 그거를 그것도 못 이기는 게 이제 무기력함과 있긴 한데. 【청소년 2】

그때 썼던 **일기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원망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딴지…. 그때가…. 쓰긴 썼는데 찾기가 힘든데. 어디 있지?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다 10월 29일이에 있네요. 그때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이렇게 학폭위를 열려고 했었으니까 아마 가해자로 불러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왜 너도 잘못했으면서 왜 이러는 거냐고 따지려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반박할 준비 같은 거를 마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온 문자가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여가지고 되게 허탈했던 그런 게 있네요. 왜냐하면 우울할 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면 좀 나아져서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4】

어렸을 때도 언니랑 동생 나이 터울이. 언니는 공부를 해야 될 터울이고 공부를 시작해야 할 나이였고, 동생은 태어나서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야했던 나이여서, 엄마랑 그렇게까지 막 붙어 있을 단둘이 붙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학교를 저만 안 가니까 비는 시간에 엄마랑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학교를 안 가는 게 해방 같은 느낌이어서 주변 사람들만 엄청 걱정하고 저는 너무 기쁜 상태로 지냈었어요. 【청소년 7】

라.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1) 은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

은둔생활을 청산한 청소년들은 현재 위생상태 유지를 비롯하여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다. [청소년 3]과 [부모 1]의 자녀는 과거에 은둔생활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는 은둔생활을 청산한 청소년으로 현재에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고 친구를 비롯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위생 상태를 잘 유지하며 가족과도 잘 지내고 장래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루 루틴이 있는데 청소 계획적이라서 다 정해놓거든요. 그날그날. 일단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이나 거실에 가서 물 떠오고 물마시고. 그리고 성인이니까 흡연도 하고 하러 갔다가, 그 이후에는 책 읽고 책을 읽고, 책 읽고 나서는 아침 준비해서 아침 먹고 그 이후에 또 흡연하러 가고. 【청소년 3】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지 않는데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만약에 다음 날 새벽에 애가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어제도 줄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진 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다 해요**. 그럼 보통이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 1】

2) 은둔생활의 지속으로 일상생활이 뒤엉킴

은둔생활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불규칙적으로 보내는 연구 참여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심리문제와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4], [청소년 6]과 [청소년 8]은 은둔생활에서 벗어났지만, 마음과 생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에 일상생활 역시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친구와 소통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패턴 없이 지내고 있고 요즘도 사실 일이 없으면 잘 안 나가긴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연락하고 약속 잡을 때도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4】

일어나는 시간은 같은데 잠을 좀 잠드는 거를 좀 늦게 자거나 그런 편이라서. **불면증이 조금 있어요.** 【청소년 6】

근데 **너무 무기력하고 비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감도 너무 쉽게 느끼고 불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공부가 안 돼. **불안하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더 불안하고** 이런 게 지금 딜레마예요. 계속 계속. 【청소년 8】

마. 가족과의 대화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가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못하였다. [청소년 8]과 [청소년 11]은 가족과 필요한 말만 하거나 가끔 대화하였다. [청소년 5]는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이에 반해, [청소년 4]는 어머니와 관계가 친밀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였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가족 간 관계가 친밀하고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된 청소년의 경우였다.

거의 매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해요. 【청소년 4】

부모님 두 분 다 저랑 성격이 다르셔서. 대화를 그냥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힘들 때는) 뭔가 깊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청소년 5】

가끔 해요. **가끔 가끔 어떨 때 해요** 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활비 얘기 돈 나갈 얘기하다가도 하다가 '우리 일을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 우리 너무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 이런 가정폭력 당한 사람 무료로 상담해 주는 데도 있대' 하면서 이런 얘기. 그냥 가끔, 진짜. 딱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제가 그냥 꺼내요. 【청소년 8】

밥 먹거나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하고,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말은 하는데... 그냥 엄마 오면 다녀왔다는 말 정도는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11】

바. 자살관련 이슈

연구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살관련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한 청소년은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청소년 1]과 [청소년 2]는 정신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하였다.

[청소년 1]은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로 자살사고가 자주 있었다. [청소년 2]는 자살시도를 계획했지만, 자신처럼 힘든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살시도를 멈추게 되었다. [청소년 4]는 자살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하였던 경험이 있고, 최근 1년 동안 가족관계에 갈등이 생기자 자살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5]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으면서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8]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자살사고에 대하여 담당의사도 인지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자살사고가 크게 올라온다고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했어요.** 우울감 때문인데 중1학년 이후로 계속 쪽 그제 이제 (약물)치료를 받아도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1】

완전한 시도는 아니고 **(자살)준비를 했어요.** 주변 가까운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나 죽으면 엄마나 장례식장에서 편지 읽어봐라 하면서 편지 준비해 뒀던 거 혹시 모를 상황에 펼쳐보라 이러면서 전해주고, 제 물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제 사진 같은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엄마한테 마지막 선물 하면서 선물 주고. 실천은 아니고 준비 단계? 근데 거기서 정신과 쌤이 그걸 꿰뚫어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켜서 또 혼나고. 그러고 또 그때는 죽으려고 했는데 목표가 있어서 못 죽었어요. 제가 취미로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노래에 맞는 테마,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 클립을 따가지고 노래에 맞게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랑 같은 사람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나 힘든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죽고 싶다 해서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못 죽겠는 거예요. 그 실행 날 직전, 그러니까 실행일 전 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실행 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게 생각나서 뒤늦게 클럽 찾고 만들고 죽으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청소년 3】

고등학교 내내 좀 우울하긴 해서 학교에서 좀 **죽으려고도 해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이런 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목도리 같은 거 달고 죽으려고 해봤는데 사람 목숨이 끈질기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울면서 목매다가 결국에는 수업종 치고 그러고도 조금 더 있다가 울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눈물 닦고 우는 티 내지 않고, 울었던 거 티 내지 않으려고 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서 수업 들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했어요. 언니랑 싸웠었는데 어쩌다 보니 엄마랑도 싸우게 돼서, 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좀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 편이라서 거기(**자살사고**)까지 닿았던 기억이 있네요. **생각만 하고 끝났어요.** 【청소년 4】

제가 우울증이나 공황을 겪으면서 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죽으면 뭔가 부모님이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청소년 5】

진짜 열심히 (자살시도)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상상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돼 있어요. 계획이 항상 지금도. (죽고 싶은 이유가) 사람과의 어려움이요. 이게 가족 친구 남친 이런 것들... 저는 유독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갈등이 딱 있었을 때 '그냥 죽고 싶다. 진짜로 죽고 싶다' 말이 아니라. 어떻게 풀지 근데 너무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돈도 있긴 한데 그냥 거의 근데 좀... 그런 것도 있고 혼자 상상하다가, 미래에 대해 상상하다가 '가능성이 없는데?' 하면서 우울해지고. 답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청소년 8】

사. 가족의 일상생활, 부모의 은둔 성향 및 네트워크 정도

1)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

자녀의 자퇴와 은둔생활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느끼지만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부모 5]는 일터에 나가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였고 형제 역시 친구를 만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학원가는 게 싫어서 개도 학원 안 가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요.** PC방도 같이 가고 애는 제가 그래서 큰 애가 너무 이러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학교 갔다와서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6시 7시에 오는 거 그걸 다 제가 허용은 해주거든요. 밤늦게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근데 큰 애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작은 애처럼 저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부모 5】

2)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연구 참여 청소년들 중 부모가 은둔성향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은둔생활과 별개로 친척과 이웃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7]은 부모님이 가족, 친구, 이웃 등과 소통하였다. [부모 5]는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은 우리 가족 이외에도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지인들과 만나고 소통해요. 【청소년 7】

명절에도 동생들 다 이모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봤었는데 **이모랑 다 와서 지내고 그래요. 【부모 5】**

아. 일상생활의 어려움

1) 가족 관련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어머니와의 갈등, 부모님과 소통 문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부모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청소년 3]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가장 친하면서도 자주 갈등이 있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 5]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청소년 8]은 어머니가 무기력하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부모 1]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사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엄마랑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자주 싸우는 존재라서. 싸우고 엄마랑 저는 약간 관계가 영킨 실타래 같거든요. 너무 엉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라서 갈등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부담도 좀 약간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아예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걸 받으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엄마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하나를 건사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또 취업 이런 것도 안 한 상태고 알바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작년 재작년이 되게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행동 실천 직전까지 갔다가 들통 나서 혼난 적도 있고 그러긴 해요. 【청소년 3】

아빠는 잘 보통 이해를 못하시고, 엄마랑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학원비나 아니면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한다 했을 때 그런 걸로 충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5】

(엄마가)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애초에 술을 계속 마시고 신원 불분명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술은 마시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함부로 하는 거고. 또 엄마는 지금 몸이 좀 아프거든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도 먹는다는 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너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수술하려면 온 심장이 깨끗해야 된대요. 근데 간의 수치가 높게 나와서 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 수치가 나쁘면 자궁 수술을 못해요. 그걸 알아요. 간 검사도 전혀 하지 않고, 간을 더 나쁘게 하는 술을 계속 마셔요. 이거 자체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제발 자기 자신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8】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예를 들면 매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실이 이게 안에 가스가 있어서 뚜껑을 이렇게 열다 보면 팽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실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챿아 괜챿아 이래도 되는데 아빠는 ‘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거는 어쨌든 실수로 된 건데 아빠는 자기를 너무 노하게 하니깐 그거에 대한 상처가 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의도적이지 않은 거에 야단을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애한테 과하게 화를 내다보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학대라고 해야 하나** 【부모 1】

삼촌이 ‘아 저기 새해인데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애가 차단해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친척들도 다 저기 지금 대학교 들어간 고3짜리 있고 자랑 동일한 애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이나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애가 그냥 잘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고3 지금 엄청 애가 완전히 왕처럼 애들을 좀 부려먹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은 이 고3한테 막 대들면서 ‘으악~’ 싸움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는 왜 저러지 이랬는데 애는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 지금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참고 산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가 또 생각이 나면서 이 친척들도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원지 알겠조? 알게 모르게. 내가 볼 때는 잘 지낸 것처럼 보였지만 머리가 커가지고 그걸 다시 곱씹으면서 애가 내가 몸집이 작다고 나를 무시했었지 이 형은 이랬었지 이러면서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 1】

2) 학업수행 관련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업지원의 나이제한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수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청소년 8]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끝나가서 지원을 더는 못 받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 11]은 학업 자체를 어렵다고 느꼈고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이는 성공적인 사회로의 진입 준비단계인 학업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려운 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례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좀 부담이 커요.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제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도움을 못 받으면 제가 사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 【청소년 8】

공부가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생각하고 말하라고’ 듣는 거나, 그냥 제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11】

3) 직업 관련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막연한 불안함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청소년 6]은 좋아하는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는 직업준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과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소년 11]은 아직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기에는 멀었지만 막연히 불안함을 갖고 있었다.

솔직히 딱히 생각이 없긴 해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래도 기초는 중요하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은 딱히 생각이 없어서 제가 뭔가 마음먹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솔직히 귀찮기도 하니까 아직은 생각 없고 그냥 해야 된다는 것만 아는데... 왜 그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너는 어떻게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게 제 신념이 되가지고.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학원 같은데 가면 취미학원 가도 재미없어지면 그만 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외우는 거에도 저장 용량이 있잖아요. 그거 다 끝나면 그냥 싫다고 못 외우겠다고 그냥 버리고. 따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한 건데... 이거 나중에 놓으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닐까? 난 지금 맞는 것 같긴 한데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청소년 6】

직업 관련 어려움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청소년 11】

4) 대인관계 관련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대인관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청소년 8]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 11]은 대인관계에서 이용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망설였다. [부모 1]은 자녀가 대인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고 갈등상황을 회피하려고하여 은둔생활이후부터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상담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와의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화를 낼 상황인데도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화를 내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자체를. 솔직히 해도 되는지. **솔직히 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때도 많고. 싫은데 싫다고 말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도 계속 후회해요.** 참을 걸... 【청소년 8】

제가 항상 이용당하는 느낌이라서. 감정 소모하는 것도 힘들고, 사귀고는 싶은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좋은 애들도 없고. 【청소년 11】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일단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자기는 그런 거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나가면 무조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게 싫다. 【부모 1】

5) 외로움,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우울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청소년 10]은 무기력한 게 많이 힘들다고 하였고, [청소년 11]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고, 고독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 이어졌다. [부모 3]의 자녀는 정신적 문제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치료가 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라도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다.

무기력한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청소년 10】

집에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그냥... 얼굴 보면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 내가 이러니까 친구가 없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청소년 11】

저는 **약물 먼저 치료한 다음에 밖에 나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두려운 게 좀 불안한 게 감소되면 학교 밖 여기 센터라도...** 이제 **이가 그냥 한다 그러면 거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도 가서 좀 친구들을 좀 사귀고, 동생들이 형이든 사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부모 3】

6)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의 연장선으로 연구 참여 청소년들 중 공황장애,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가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청소년 10]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어려워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서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어려워요.** 【청소년 10】

7)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패턴과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염려하였다. [청소년 11]는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를 충분히 영양가 있게 하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였다. [부모 5]는 자녀가 움직이지 않고 방안에만 있어서 자세가 안 좋아 보여서 척추가 걱정된다고 하였다.

치과 진료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식습관도 좋지 않아가지고, 맨날 라면이나 그런 거... 엄마가 좋아하니까 비빔면 같은 거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고. 엄마 나이에 저런 거 계속 먹으면 안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는 좋아서 간편해서 라면 즐겨 드시거든요. 【청소년 11】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척추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척추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세부터 자세가 안 좋아 보여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뀌서 똑바로 앉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굳어져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 5】

8) 경제적 어려움

연구 참여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청소년 9]는 청소년의 집안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생활비나 학비를 걱정하며 집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복지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집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알바도 해야 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들어 가야 될 돈도... 지금 장학금을 받기는 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거의 다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은... 용돈을 안 받은 지도 지금 거의 2년 3년 돼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 충당을 해야 돼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청소년 9】

6. 정책욕구

면접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적극적 홍보

정책욕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고 절실함을 언급하였다.

[청소년 4]는 정서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청소년 5]는 부모님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을 권유해서 알게 되었다. [청소년 6]은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요청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청소년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9]는 자퇴하는 청소년이 인식할 방법(예: 동영상 시청, 안내 자료 구두로 설명 등)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단은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나. 저는 고독함을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 꿈드림 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지원들과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좀 더 많이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요즘 SNS 많이 쓰니까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청소년 4】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방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이 여기 꿈드림을 알아 오셔서 저한테 이제 신청해서 여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겠냐 하셨고 상담도 그렇게 해서 지원받게 됐고.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나마 조금 힘든 게 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5】

저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꿈드림이 이제 프로그램 열렸다 하면 거기 소식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아니면 친구가 '이거 있는데' 하면 아차 하고서 가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오케 꿈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청소년 6】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학원을 꽤 많이 다녔는데 취미가 다양해서. 가면서 학교 그만둔 애들도 꽤 있었어요.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를 등록 안 했다는 거예요. 학교 밖 (센터)를 아예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지 **유튜브나 아님 블로그나 솔직히 인스타가 가장 직빵이긴 해요. 인스타나...** 왜냐면 집에 있는 애들이 하는 게 인스타 보면서 막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저도 막 돈 막 이렇게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계획적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 솔직히 가장 침울해지기도 하고. 밖으로 안 나가니까 밖에 **정보를 습득할 방법 인터넷 밖에 없어요**. 아까 인스타를 추천 드렸던 게 스토리 올리면 누구나 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청소년 6】

은둔 청소년들 있는 가정에는 그런 거(광고물) 주면 안 돼요? 그건 청소년 가정에 그냥 꽂아둘 수 있잖아요. 그런 종이. 광고종이. 근데 저처럼 집에만 있으면 그게 **큰 동아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희망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청소년 9】

나. 정서지원

1) 상담으로 도움 받은 경험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은 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음에도 필요하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3]은 상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감을 받고 상담자가 방향성을 잡아주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청소년 9]는 상담자에게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었고, 상담을 받고 현실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점점 상담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저를 되게 조련을 잘하시더라고요. 힘들 때는 자주 용기나 저한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조언이나 말을 되게 잘 해주시고, 저는 무조건적인 공감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막상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쌤은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제가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공감을 해주시고, 아닐 때는 조언이나 다른 방법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상담이 끝났을 쯤에는 저도 되게 더 성장해 있었어요.** 성장해 있어서 그때는 막 힘들어도 쌤이 해주신 조언이 생각나서 금방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지금 흐지부해가지고 그게 기억 속으로 파묻혀서 이제는 힘들면 그 조언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청소년 3】

저는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그 선생님들은 남이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사실 ‘이런 걸 말해도 되나, 계속 봐야 될 사이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에 대한 그런 시선이나 제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는 때가 올 텐데. 근데 상담 선생님은 상담이 끝나면 뒤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저의 생활에 크게 개입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드디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고민을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듣고 막 좋아지거나 저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아진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부담감이 관촬어진 없어진 느낌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 9】

2) 정서지원이 첫 번째

이미 상담을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과 더불어 연구 참여 청소년들에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청소년 4], [청소년 9], [부모 1]과 [부모 3]은 정서지원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4]는 은둔한 청소년들은 무기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한 지원이 정서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였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청소년 9]도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활동을 할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담서비스가 1순위라고 하였다. [부모 1]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 3]의 자녀는 ADHD진단을 받아서 ADHD에 효과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무기력하니까 먼저 무기력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려면 일단은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이 먼저** 필요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보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이나 학업 그리고 취미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무기력해서 더 탈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청소년 4】

상담을 아무래도 그 뒤에 활동을 하려면 **심적으로 좀 괜찮아져야 할 의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순위로 뽑았어요. 【청소년 9】

서서히 마음이 열려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인생에 여러 자기도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업이고 뭐고 뭐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엄청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얘기도 해주면서 왜 필요한지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서서히 같이 해주시면... 부모는 한계가 많거든요. 【부모 1】

인지치료나 음악 치료나 미술치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에 ADHD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모 3】

3) 청소년이 원하는 상담방식

연구 참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상담방식은 상이하였는데, 대면상담(센터방문, 상담사의 집방문)과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였다. 이는 청소년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7]과 [청소년 8]은 상담을 받게 된다면 직접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보고하였고 [청소년 3]은 상담사가 집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부모 1]의 자녀는 비대면 상담 방식을 선호하였다.

저는 **집으로 찾아오는** 집으로 【청소년 3】

제가 그때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청소년 7】

완전 **제가 갑니다.** 【청소년 8】

온라인을 좋아해요. 애는 학교도 온라인이면 끝까지 다니겠대요. 가는 게, 가서 뭔가 갈등 상황이 또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애들 예를 들면 애들이 씨X 이렇게 해도 지도 똑같이 에이 미X 반 애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거칠면 아무리 착한 애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착하고 카톡에 보면 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 자체를 싫어해 이중적인 걸. 그래서 엄마 그런 상황 자체가 싫고 나는 온라인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온라인으로 상담해 주시면 애는 할 거예요.** 【부모 1】

4) 희망심어주기와 맞춤형 프로그램 만들기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정상궤도인 학교를 벗어나 학교밖청소년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앞으로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가이드해줄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다. 이에 [청소년 7]은 자퇴를 결정하고 은둔생활을 하였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긍정적인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 맞춤형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말을 생각했을 때 좀 좋은 결말이 생각나야... 이게 무슨 말이나면, 약간 대학을 막 사람들이 '재 성공했다'라고 할 때는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명예가 있다든지 학교를 나와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면. 프로그램?** 좀 규칙적으로 살게 해서 나도 좀 규칙적으로 뭘 하면 성취감 같은 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적으로 사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근데 너무 틀에 박히면, 틀에 박힌 걸 싫어해서 나온 애들이니까. 좀 널널하게. 【청소년 7】

5) 자아존중감 회복하기

은둔형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8]은 은둔했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였다. 운동을 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타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선순환이 되어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긍정적인 패턴이 생겼던 경험을 비추어보았을 때 우선 청소년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경험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이 괜찮게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그러면서 친구도 많아지면서 들리는 저의 긍정적인 모습들이나 그런 걸 들으면 좀 또 자존감 올라가고. 그러면서 더 멋있어져야겠다 하면서 또 운동하고 그런 선순환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괜찮아야 돼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이제 다 빠져나가거든요. 다시... **자존감 높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9】

6)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가) 부모상담 지원

은둔을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에 그들의 부모 역시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모 2]는 자녀가 은둔생활을 했을 때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힘들었지만 남편과 소통하지 못했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심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받았지만 부부가 서로 의지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한 경험을 빌어 사랑하는 자녀의 힘든 상황에 대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하여 부모를 위한 정서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부모 3] 역시 자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상담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내 아이가 마음이 아프고 무슨 이유에서건 학교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남편이랑 갈등이 생기고 서로 탓하고 이혼위기가 왔었어요.** 둘이 대화를 원래 잘하는데 막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일대일 부모 교육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저는 찾아다녔어요. 성당에서 하는 심리치료도 제가 알아서 받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네 번 가면 알겠더라고요. 나는 아직 건강하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힘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취미생활을 가졌어요. 남편한테 자기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애가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것조차 듣기 싫어요. 제가 오은영 선생님 그거 다 봤어요. 금쪽같은 내새끼며...책도 다 봤어요. 근데 **이 남자들 40대 가장들은 자기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엄마보다도 더 못 받아들이고 더 부정을 하는 거래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아직도 그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소리 없는... '싫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 듣고 힘드니까 회사 내에 그 상담센터가 있었대요. 자기가 갔었대요. 두 번 세 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부모 2】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내 인생의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기한 거에 대해서 좌절감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힘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런 절망감이나 그런 낙심들 이런 것들이 더 우울증이 있었던 게 더 심하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가지고 이번에 더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쪽 가라앉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 3】

나) 부모교육 실시

은둔형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아버지 교육이 시행된다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활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 2]의 남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녀교육을 받은 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녀에게 그

동안 실수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편이) 교육을 2시간인가 3시간 받고 왔는데 **y세대랑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 교육을 받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받을 거래요.** 그래 이 사람이 3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오더니 갑자기 아들 불러내더니 아들만 보면 원래 쌍욕을 하면서 애 아들하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아빠 그동안 미안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그동안 얘기할 때는 컷등으로도 안 듣더니 3시간 교육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바뀌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속으로. 【부모 2】

부모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부모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효과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모 2]는 부모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부모교육을 의무화시켜서 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 좀 강하게 해가지고 아버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부모 2】

다. 자립지원(사회성향상)

1) 은둔형 청소년과 접촉시도하기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원하고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은둔형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접촉을 잘 하여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마음을 열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접촉하여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3]과 [청소년 5]는 은둔 상태에 있을 때는 센터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점차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청소년 6]은 은둔생활 동안 온라인 방송 사이트에서 사람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한 것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사람들과 익명으로 온라인 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은둔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5]는 은둔한 청소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에게 위로가 되는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9]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 캠프여서 사람들과 소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 청소년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은둔형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과 관심이지만 처음에 접촉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부담스러우면 없던 마음도 싹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감정이 없어도 약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아무리 방에 박혀 있다고 해도 맛있는 걸 거부할 사람은 없으니까. 뭐 맛있는 게 과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들고 가면 보호자 입장에서든 나쁘게 보이지 않을 거고 학생 입장에서든 필요한 것만 일단 주고 살짝만 이렇게 살펴보고 가주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먼저 다가와준 것도 나중에 고마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청소년 7】

아무리 은둔해 있는 상태라도 진짜 엄청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열정은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초반부터 막 밖으로 나와서 하는 거 말고, 초중반까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약간 센터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왜냐하면 제가 약간 꿈드림을 다니면서 많이 그런 걸 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초반부터 나와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아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좀 꿈지락거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센터로 약간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청소년 3】

취미 활동은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좀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마음이 **나올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처음에 차차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적응이 되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자기가 원할 때 나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주는 서비스. 아무 책이나 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친구들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 같은 거를... 저는 막 책을 자주 읽고 책을 좋아하는 편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막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게 됐는데 뭔가 책 읽는 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뭔가 책이 온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날 하루로 뭔가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 5】

은둔했던 동안 그래도 외로웠다고 나름 안 외로웠다고 느낀 게 스푼이라는 온라인 방송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여러 명에서 하는 건데 채팅도 칠 수 있고 그러면서 노는데. 그때 멀리 유학 가는 친구랑도 같은 나이인 친구랑도 친구 됐고, 다른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잘 지내고 그러면서 그때

위로도 많이 꽤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밖으로 나오고자 했던 게. 밖에서는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청소년 6】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도 첫 활동이 캠프 말고 공부나 그런 거였으면 사실 흥미를 금방 잃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과 **소통 캠프를 가는 건 대화도 계속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주네’, ‘관심이 있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나도 계속 말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법도 조금씩 서서히 익혀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첫 단추를 꿰매는 게 잘 꿰매는 게 사실 그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사실 해보고 나니까 지금 그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으니까 용기를 가져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9】

2) 은둔형 청소년과 소통하기

스스로 소외를 자처한 청소년이나 타의에 의하여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모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 9]는 은둔생활에서 벗어난 현재 상태에서 자신의 은둔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의미 있는 사람과 소통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연결감이었다.

나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저도 중학생 때랑 자퇴 전까지는 계속 사람이 싫고 ‘굳이 만나야 되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도 결국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거고, 같이 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결국에 그때 당시에는 저를 힘들게 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힘들게 한 사람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개 해줄 건 결국에는 사람밖에 없다.’**

【청소년 9】

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

은둔형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였다. [청소년 8]은 은둔했을 당시 담임 선생님이나 시청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했을 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이도 [청소년 8]과 비슷하게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이 가장 필요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면접 참여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과 라포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 스스로 성장하였다. 이 경험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은 자신이 힘들 때 선생님이 전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제 기준이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가 어떻게든 먼저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과하게 말고 **그냥 언제나 쪽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상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그래도 여태 바닥에 있으니까 한 번 나와서 이제 활동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쌤이 저랑 잘 맞아요. 약간 **쌤은 과한 거 없이 묵묵히 저를 언제든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 【청소년 3】

저는 진짜로 다 자퇴하고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누군가 그래줬다면 제가 먼저 말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든데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다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과에서도 한 명 왔었고 한 번. 담임 선생님도 한 번 왔고 한 번씩 끝났어요. 한 번으로는 절대 마음이 열릴 수가 없더라고요. 15살의 제가. 근데 더 내심은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다.’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선뜻 또 말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싫었어요. 그냥 알아주길 바랐어요. 그때는. 【청소년 8】

제가 확 생각하는 건 **따뜻한 관심.**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은 먹었는지 요새 뭐 하고 뭐 하고 지내는지 내가 도움 줄 건 없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좋았을 것 같아요. 【청소년 9】

선생님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청소년의 일상을 관리해주고 가치관 형성에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했다고 제안하였다. 은둔생활을 하게 된 청소년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이외에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일상적인 루틴을 재설정하고,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멘토와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이에 대한 정립을 함께 고민하고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 멘토가 필요했다.

집에서 아무래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약간 운동을... 제 경험상 운동을 하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집에서도 약간 계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플랜 같은 걸 짜서 달성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는. **멘토 선생님처럼 좀 일상생활을 관리해줄 수 있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제가 상담은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부모님 말고 나한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필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9】

혼자서 있는 기간 동안, 연락 올 사람도 없고, 학교 선생님 외에는 딱히 연락 올 사람도 없어서 그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생각 혼자서 생각하는 걸 되게 많이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의 그 기준을 잡아줄 사람도 필요했었는데 그게 부모님은 또 그때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집에 돌아오면 저는 밥 먹고 또 게임하고 자고 이런 것밖에 안 해서... 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그때부터 벌써 해야 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저의 세상을 보는 기준이나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걸음을 잡아줄 그런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9】

학업도 온라인으로 해주면 애는 할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열려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인생에 여러 자기도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업이고 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엄청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얘기도 해주면서 왜 필요한지도 얘기 좀 해주시고, 서서히 같이 해주시면** 부모로 하기에 좀 한계가 많거든요. 【부모 1】

나) 상담사와 긍정적 관계 경험과 긍정적인 마음 회복하기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상담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경험을 비추어 상담사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4]는 청소년과 상담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9]는 은둔형 청소년에게 있어서 정서적 안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담사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상담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사로 다가가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르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나는 건 그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청소년 4】

상담을 아무래도 그 뒤에 활동을 하려면 심적으로 마음이 좀 관촬아져야 할 의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순위로 뽑았어요.. 저는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그 선생님들은 사실 남이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사실 ‘이런 걸 말해도 되나, 계속 봐야 될 사이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에 대한 그런 시선이나 제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는 때가 올 텐데. 근데 상담 선생님은 사실 상담이 끝나면 뒤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저의 생활에 크게 개입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드디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청소년 9】

다) 학교밖청소년과 친목도모 및 소속감 형성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형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하여 소속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4]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났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저도 친구 덕분에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물론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 친구 2명이 바빴거든요. **여기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덕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안정을 얻은 것 같아요.** 같이, 나중에 같이 그 친구는 그림 그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 짜고 그 친구는 그림 그려서 같이 게임 만들자 이렇게. 사실 대학교도 그 친구랑 같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청소년 4】

하지만 단순히 학교밖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을 하는 것만으로 대인관계 욕구가 제대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위한 방식이 중요한데 익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부담 없이 소통하거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동아리나 대안학교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청소년 2]는 몽실학교를 예로 들면서 학생주도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제안하였다. 은둔형 청소년 주도로 자기개발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큰 틀 안에서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자기주도형 활동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4]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또래와 관계형성을 하는 것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큰 힘이 된 경험에 비추어 강조하였다. [청소년 5]는 익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을 가지게 되면 은둔생활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6]은 은둔형 청소년에게 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작업을 하고 편지와 영상을 은둔 중인 청소년에게 전달하여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9]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모여서 영화나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하여 친밀한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몽실학교 기준에서는 **학생 주도로 이제 사회적인 거를 하는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몽실학교는 정상적인 애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몽실학교)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네들이 과연 사회적 이로운 행위... 이거를 한다고 뭐가 될까요? 일단 애가 사회적으로 이롭게 되지가 못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애네가 이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 공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개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걸. 【청소년 2】

애네가 다 자립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거는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듣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끼리 스터디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부족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강좌가 있으면 그런 데서 이렇게 듣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관 보면 프로그램 신청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도서관 가면은 독서회에 있고 그런 느낌 【청소년 2】

그 애들을 위해서 편지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애들이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 밖 센터 프로그램화해가지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개네들한테 선물해 준단지. 그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학교를 다니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이유가 첫 번째로 수학여행이었고, 그리고 축제 이런 거 그런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부 활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거기서 더 끈끈한 같은 걸로 모였다가 있어서 좀 더 끈끈한 그게 있어서, 지금도 미술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긴 하지만 너무 한정이라서 차라리 누구나 입부할 수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개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년 6】

자기가 완전 다른 친구를 보게 되면 또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비슷한 느낌의 또래들끼리 하다 보면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런 관계망을 형성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하게 되면 더욱 끈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운동이나 아니면 영화 보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해서. 동생이랑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제가 친구한테 친구가 생겼을 때 친구한테도, '너 뭐 운동 관심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일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저의 취미생활을 얘기하고 그 친구 취미도 듣고 하다 보니까 더 대화도 잘 흘러가고 그런 것도 있고. 영화도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먼저 친해지는 친구한테 너 영화 보는지 물어보고 또 그러고... 나중에 같이 보고 그렇게 돼서, 취미생활 같은 거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9】

라) 가족관계 회복하기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가족과 깊이 소통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7]은 힘들 때 어머니와 자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청소년 9]도 부모님에게 힘든 이야기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엄마와 언니에게 내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소년 7】

부모님이랑도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뭐 힘든 거 있으면 힘들다 얘기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다 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젯거리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9】

그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도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에 [부모 3]은 가족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원하였다.

자연이든 그런 걸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힐링 될 수 있는 가족여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랑 함께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앞에 나와서 방학 끝나고 친구들 앞에서 방학 때 어떤 뭘 했는지 어디를 이제 여행하고 왔는지 이런 얘기할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엄마 그때 나 뭐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와서 계속 그래서 가게 하면서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또 시간.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때 어렸을 때 애들을 많이 데리고 밖에서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또 사춘기... 그때는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서로 하고 했으면 더... 고민이 있고 하면 그런 걸 서로 알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우니까 또 안되는 거... 또 이제 또 생활이 또 생활에 급급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3】

라. 진로 및 학업 지원

1)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후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진로지도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당 지원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접근성이 어렵거나 청소년 맞춤형 지도의 부족이나 종사자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2]는 대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전형에 대한 정보나 재수를 했을 경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9]도 고졸 검정고시 이후 복학 관련 인턴을 했지만 실제로 대학교 진학 여부를 떠나서 이후의 삶이 막막했다고 하였다.

몽실학교라고 아시나요? 이름인가 이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해봤는데 학교밖은 아니지만 그것도 생활기록부 넣는 그런 용도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 학교 같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개네들 모아서 대입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고졸 검정고시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대입 같은 게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차라리 그런 거 전형도 컨설팅해주고 되면은 생활기록부 이런 거 하거나 한 거 플러스 대입 공부도 하는 그런 거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 대입 플러스 재수까지가 있는데 애네들이 이제 할 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학교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아무튼 지역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학생 주도? 몽실학교도 그런 거거든요. 학생이 하고 싶은 거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프로젝트 별로 해가지고, 저도 했는데. 거기서 서대문형무소 가서 외국인 가이드 하고, 저는 그때 촬영해서 발표회 때 이렇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밖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밖이지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2】

이 대학을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검정고시 보고 합격하면 끝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검정고시 이후의 플랜이 필요해요**. 그 이후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 이후에 내가 사회에 적응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복지관에서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하는 그런 거를 또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자세한 본인이 그것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어떤 분야 쪽으로 일을 할 건지 본인이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막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자세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건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청소년 9】

2) 대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

은둔형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하는 청소년들과 다르게 학교밖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시 단체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9]는 대학입학 전에 공백 기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지도와 대학교 생활 적응이나 학과 학업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공백 기간이 또 있던 말이에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좀 길었는데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대학 또 수업 방식도 좀 다를 테고, **그리고 시간표 짜는 거나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또 대학 들어갈 때 제 과에 필요한 공부나 그런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9】

3) 맞춤형 진로상담 지원

청소년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상담은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학교급과 시기적절하고 세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부모 5]의 자녀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적성과 진로를 알 수 있는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진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지도해 줄 상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지금 중2 중3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진로 그런 거(상담)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어느 쪽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지 인문계를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진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상담 선생님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이가 그래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니가 만약에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관련된 콘텐츠에서 개발자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러면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숙지시켜 주고 게임하는 게 저는 게임한다고 애한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니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게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애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뒤에 중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는... 맨날 게임만 해선 안 되고 **게임 관련해서 그거에 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잡아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있죠. 【부모 5】

마. 자립지원(생활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경제부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 1]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금전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10]도 생필품을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했고, [부모 1]도 식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부모 3]은 자녀가 힘들 때 기분전환을 위하여 외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전적 지원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해요. 돈을 막 못 버는 그런 집안이라면... 일자리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1】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간식이라, 삼푸 같은 거 해서 쓸 수 있는 거.** 【청소년 10】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식비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지원을 좀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라.** 매번 1시간도 넘게 쿠폰 받으러 이거 오는 것도 좀...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는 자주 오게 되지만

이 다쳐가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은 애한테 애야 엄마가 식비가 많이 드니 쿠폰 받으러 가자 이게 애한테 통하겠어요? 안 통하잖아요. 그거는 그 가족들한테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부모 1】

아이한테 지금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막 해주고 싶어도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기운 날에는 막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도 그렇고, **가족끼리 같이 외식해서 같이 그런 시간 보내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도 밝아질 수 있는데 그걸 또 못해줘서 그런 지원... 【부모 3】

바. 건강지원(신체활동)

연구 참여자는 은둔형 청소년이 집이나 방에만 있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 5]는 집에 가만히 있는 은둔형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무기력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선생님이 방문하여 가볍게 관계를 형성해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혼자 가만히 있는 애들이랑... 또 저런 애도...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나 이런 거는 잘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뉴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남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풀고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선생님 방문해서 친분 조금 쌓이면, 처음에는 방문해서 갖고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쌓이면 '우리 가까운 카페 어디서 만나서 이제 핫초코나 아니면 레모네이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선생님이랑 가볍게 얘기하고 산책하고. 제가 그걸 이끌어내려고 처음에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따라주더라고요. 좀 컸으니까 그것도 싫다. 산책도 싫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끌어가지고 이게 밖에서 선생님이랑 차 마시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자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애들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부모 5】

7. 소결 및 논의

가. 소결

본 장에서는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 답기 힘든 내용을 면접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면접 참여자는 총 11명이었으며, 은둔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면접 참여자는 총 5명이었다. 사례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 이유에 대한 것이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했던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우울과 무기력 등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가족과의 갈등 및 부모의 방관적 양육태도, 자존감 저하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은둔을 촉발한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장기간 가정환경이 불안정하였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별 및 이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정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했거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와의 갈등경험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인관계를 단절하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더는 등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나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습, 외모 등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어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학교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잃어서 자퇴를 하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둘째, 은둔기간과 은둔시기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은둔했던 기간은 청소년 참여자마다 은둔 기간이 달랐는데 은둔 기간이 7년이라고 응답한 한 명을 제외하고 참여 청소년의 은둔 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였으며, 평균 은둔 기간은 1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둔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청소년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둔생활을 경험한 청소년 대다수가 자퇴를 선택하였고, 그 이후 은둔생활이 시작되었다. 참여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더는 다니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자퇴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신적 어려움, 불안정한 가정환경, 은둔 성향 존재, 그리고 전학 후 부적응이 원인이었다. 면접 참여 청소년이 자퇴를 선택했을 때 수용해주는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으로 구분되었다. 자퇴 선택을 수용해주는 부모님도 청소년이 자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첫 반응은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청소년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자퇴 선

택을 지지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여 청소년이 위로를 받았다. 청소년의 자퇴 선택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은둔생활을 청산한 계기에 대한 것이다. 은둔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생긴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경우, 정신과 의사, 상담사,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절박한 상황이 생겨 외적 동기로 은둔생활을 청산하였다. 내적 동기를 자세히 보면,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은둔생활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방 안에서 지내는 동안 위기를 승화시켰는데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룩하여 은둔생활을 벗어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생활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가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거나 해당 센터에 나가게 되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와 같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은둔생활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집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을 은둔생활을 더는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다. 식사 및 수면 습관을 살펴보면 식사횟수는 다양하였는데 1일 1회부터 3회 혹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청소년 대다수는 취침 시간이 늦은 밤이나 새벽이어서 기상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안에서 하는 주된 활동으로는 유튜브 시청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세상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생활 동안 참여 청소년들은 무기력으로 아무런 목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내거나 자해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양상은 우울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에 은둔생활이라는 위기상황을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아 승화를 시킨 사례가 있었다. 과거에 은둔생활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는 은둔생활을 청산한 청소년은 현재에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둔생활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불규칙적으로 보내는 면접 참여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심리문제와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과의 대화 수준을 살펴보면, 어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가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못하였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가족 간 관계가 친밀하고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된 청소년의 경우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살관련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생활을 하

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한 청소년은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명은 정신 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자살관련 이슈를 경험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의 가족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았는데, 자녀의 자퇴와 은둔생활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느끼지만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부모가 은둔성향이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은둔생활과 별개로 친척과 이웃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족’, ‘학업’, ‘직업’, ‘대인관계’, ‘정신’, ‘문화·여가활동’, ‘신체건강’, ‘경제’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 대한 어려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어머니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소통 문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부모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업 지원의 나이제한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수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으로는 그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신이 들지 않고 막연한 불안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그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현재 관계 유지를 하고 있으나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은 우울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정신적 어려움의 연장선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들 중 공황장애,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문화 및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렵다고 하였다.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는 은둔생활로 인하여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패턴과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염려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다섯째,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았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미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깊은 고민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즉,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욕구 파트에서 강조하고 다루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그들을 위한 지원 서비

스들 중에서 은둔형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어떤 영역의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강화하기를 바라는 지원 서비스가 어떠한 지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지원 서비스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정책욕구는 차별성이 있다.

정책욕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센터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홍보 방법 변경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정책은 ‘정서지원’이다.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은 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음에도 필요하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상담을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과 더불어 면접 참여 청소년들에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정서지원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상담방식은 대면상담(센터방문, 상담사의 집 방문)과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였다. 이는 청소년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정서지원의 일환으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정상궤도로 여겨지는 학교를 떠나 학교밖청소년이 되기를 선택할 때 많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가이드해줄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은둔생활을 하였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긍정적인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 맞춤형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은둔형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에 대한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은둔형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둔형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 교육이 시행된다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활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정책은 자립지원 중 하나의 영역인 ‘사회성 향상’이다.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원하고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은둔형 청소년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접촉시도를 성공적으로 잘 하여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자처한 청소년이나 타의에 의하여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모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경험이나 결핍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였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청소년의 일상을 관리해주고 가치관 형성에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상담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경험을 비추어 상담사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또래관계 형성 경험에 대한 것이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은둔형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과 인간관계 형성을 통하여 소속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방식이 중요한데 익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부담 없이 소통하거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동아리나 대안학교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는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가족과 깊이 소통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정책은 '진로 및 학업지원'이다.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당 지원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접근성이 어렵거나 청소년 맞춤형 지도의 부족이나 종사자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하는 청소년들과 다르게 학교 밖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9]는 대학입학 전에 공백 기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지도와 대학교 생활 적응이나 학과 학업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상담은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학교급과 시기적절하고 세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정책은 자립지원 중 '생활지원'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다섯 번째 정책은 건강지원 중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다. 집 안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은둔형 청소년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체활동 프

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무기력하고, 타인에게 신뢰를 갖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은둔형 청소년에게 선생님이 찾아가서 신뢰구축을 먼저 한 후 은둔형 청소년이 마음을 열었을 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나. 논의

은둔 경험이 있는 면접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책육구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해당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들은 막상 해당 기관에 대한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그곳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신청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해당 기관과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전달이 청소년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퇴하는 청소년이 인식할 방법(예: 동영상 시청, 안내 자료 구두로 설명 등)을 통하여 알려주거나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은둔형 청소년과 접촉할 때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마음을 열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접촉하여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은둔형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경험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정신과의사, 친구, 가족 등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사람과 소통이라고 하였다. 결국 자신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연결감이었다.

넷째,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성공적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후 대학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컨설팅과 대학교 진학 결정 시 대학과 학과 생활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다. 보편적인 궤도를 벗어나 앞날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이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기 쉬운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인생에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은둔형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은둔형 청소년이 자녀인 부모 역시 청소년과 함께 좌절감과 죄책감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부부 갈등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상담 지원과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1.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

정책적 지향과 접근 방식은 정책의 내용 구성과 평가 및 환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보도자료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에 따르면, “스스로 고립·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Q & A에서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청년의 고립·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첨부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평생 고립으로 연결되는 경우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6.7조 원으로 추정되고, 질병의 발병 확률 및 마음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치료 등의 복지비용이 0.2조 원으로 추정되며, 교육·근로·국방·납세의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의 측면에서 청년기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저하는 모든 사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표명이다. 또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가른 가족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가져와 가족을 해체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시에 효율적 정책지원으로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한다면 소득,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역소비 등과 같은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은둔 상태의 개인이 완전히 은둔의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 혹은 삶의 질이 개선될 때까지의 서비스 지원이 6.7조 원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방임 혹은 방치하는 것이 마땅할까? 은둔형 청소년 혹은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금의 사용이므로 투입과 산출, 그 효용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비용” 혹은 “사회경제적 효과”로 접근하는 한 우리는 정책과 사업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향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향은 정책의 성격을 결정짓고,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은둔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과 은둔의 잠재성을 지닌 모든 청소년들의 일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정책적 지향은 은둔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이 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②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정책적 지향의 출발점은 은둔의 결과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과 사회적 비용의 측면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에 있다. 청소년 정책 중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 이익의 관점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관점에 주안을 두는 출발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은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①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②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예방”과 “발굴(지원)”이 모두 중요하고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며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굴의 선제적 조건과도 같다.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가 청년층보다는 면밀하고 다수가 학교에 적응을 두고 있으므로 발굴이 청년보다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기로 넘어가기 전에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은둔의 범위를 넓게 판정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은둔 경험은 ‘자신이 은둔을 경험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기보고식의 변수’였다. 이들 463명 중 스크리닝 척도를 거쳐 현재 은둔 성향이 있다고 판별된 청소년들은 81명이었으며, 2명은 은둔의 경험을 보고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이었다. 과거 은둔의 경험을 거쳤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의 엄밀한 의미의 은둔이었는지, 즉 은둔 성향이 발현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 처해있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잠재적 위험군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은둔 발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1차적 목적은 “은둔 성향이 발현되기 이전의 예방”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2.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가. 은둔의 판별과 서비스 총화 :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은둔 상황을 조사하면서, 타 연구에서처럼 은둔에 대한 개념을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처럼 기간, 활동, 장소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은둔의 경험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거 은둔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성에 기초하여, 자신이 과거 은둔의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주안을 두었다. 한편 현재 은둔형 성향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인식한 주관적인 은둔의 경험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은둔의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은둔의 경험은 현재의 일상생활을 불규칙하게 만들었고, 식사 및 수면과 같은 생활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 면접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은둔생활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불규칙적으로 보내는 면접 참여 청소년들의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심리 문제와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를 판단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학업, 대인관계, 정신적 어려움, 문화·여가활동, 건강, 경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심한 집단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7.8%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인 22.2%의 청소년들이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자살위험을 높이는 주요 변수(이수비 외, 2022; Daniel and Goldston, 2012; 조미형·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또래의 지지 자원에서 열악하였고, 이 외에도 중요한 일을 의논할 지지 자원에서도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위기 혹은 긴급 시에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상대를 갈구할 때,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안에서 지지 자원을 전혀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들이 적지 않음에 주의를 요한다.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은둔 성향 스크리닝 척도 상에서는 과거의 은둔 경험은 지표 구성요소로 들어있지 않다.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은둔 성향을 판별하고자 할 때에는 스크리닝 척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는 과거의 은둔 경험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배경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37.3%에 해당하는 463명이 자신은 한 때 은둔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과거 은둔의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는 청소년들을 서비스 대상자로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1차적 목적은 ‘은둔 성향이 발현되기 이전의 예방’에 있으므로 은둔을 판별하는 절단점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고, 사업 대상자의 판별 스펙트럼을 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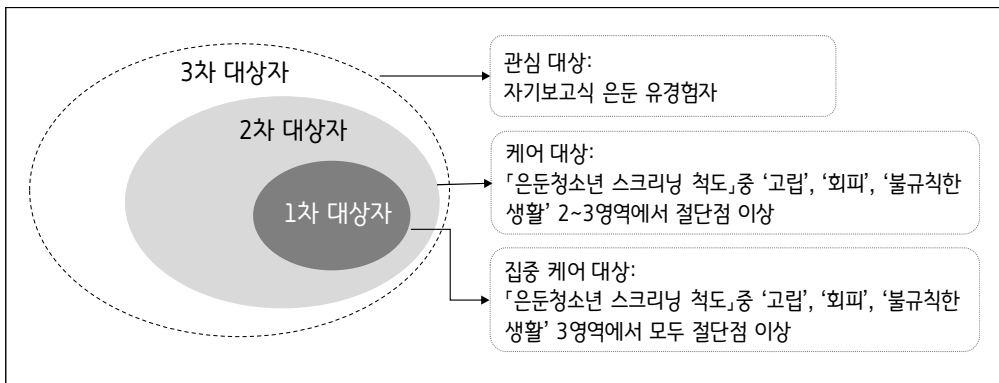
또한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7%에 해당하는 83명이 은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별하는 은둔 청소년의 기준에 해당한다. 스크리닝 척도를 거쳐 판별된

83명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신을 평가한 은둔 경험 청소년 463명과는 엄연히 다른 집단이다. 대상자의 스펙트럼을 넓게 잡되,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층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 중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포럼에서, 고립과 은둔에는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 측면에서 이러한 스펙트럼 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심화된 은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서울시의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고립과 우울감에 주안을 맞추고 놀이와 활동을 통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²⁾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사업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관심 대상으로 넓게 선정하고, 그 후에 케어 대상자, 집중 케어 대상자로 층화하여 서비스를 심화·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집중 케어 대상자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림 6-1] 서비스 대상자의 판별과 층화



포럼에서 제기되었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중 하나는 은둔의 개념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여 판정하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2) 유민상. (2024.6.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포럼’ 패널토론

로 명시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넓은 스펙트럼, 종류, 심각성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현병,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 일반적인 상담과 서비스로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연계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대상자에 따른 서비스의 층화와 관련하여서는 1명의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교육 전문가, 청소년지도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처음부터 상담 서비스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후 상담 서비스가 투입되어야 할 적시에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초기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자원 연계 및 사례 관리를 책임지고, 청소년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다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청소년상담사와 가족상담사는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책임진다. 기존의 청소년 상담과 가족 상담에 대한 경력만을 가지고서는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가족교육 전문가는 보호자들의 자조모임 혹은 집단 상담에서 가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가족 내 갈등의 심화가 청소년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을 교육하고, 청소년을 지지하는 지원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의 사례 판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그 수준을 층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나. 1차 보호망인 가족의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가족 접근 서비스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20.1%) 꼴로, 그리고 현재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의 45.8%가 필요한 말 이외에는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34.9%)이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하여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나 있음을 시사하

였고,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가족 관계의 회복 역시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꼽은 응답은 ‘없다’(47%), ‘어머니’(18.1%), ‘친구’(13.3%),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 성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34.5%), 친구(26.2%), 아버지(18.4%)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어머니+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52.9%에 이른다. 반면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아버지를 꼽은 비율은 3.6%에 그쳐 부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은 21.7%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데, 은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심층면접에서 드러났다. 은둔형 자녀를 둔 어머니는 좌절감과 죄책감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부부갈등이 유발되거나, 다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배우자의 자녀양육 방식과 태도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정서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은둔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도 부모교육이 필수적인데, 특히, 아버지 교육이 필수적이다. 설문 조사의 통계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 중 아버지와의 관계는 특히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역할 강화와 이들의 관계 개선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활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은 청소년들의 첫 번째 보호망이자 지지 자원이 되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시도가 어렵고, 더불어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미시적인 환경인 양육자와 가족이 청소년의 지지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육자와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양육자 및 가족을 자신들의 보호망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소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가족센터에서 부모 및 양육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접근 방식인 상담, 교육, 자조모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과 체계의 촘촘한 구성과 기능의 강화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차별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회복에 1차적인 주안을 두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서적인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적 지원 및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통적인 핵심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외에 본 연구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주안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14~16세 청소년이 타 연령 집단에 비하여 가족 관련 어려움, 17~19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 20~24세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 직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4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연령 집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느끼는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입직의 시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가장 어린 집단인 14~16세 집단의 경우 학업문제, 가족 간의 갈등, 동료 및 선후배와의 갈등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가족 및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연령임을 보여주었다.

은둔 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이 느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정책욕구를 학령기(14~19세)와 청년기(20~24세)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학령기 집단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었으나 정책욕구는 청년층의 집단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되는 현상을 보였다. 학령기 집단이 아르바이트에 더 큰 욕구를 보인 반면, 청년기 집단에서는 정식취업, 직업훈련, 학업지원 등에서 조금 더 높은 욕구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14~16세의 연령 대상으로는 학업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또래 관계의 원만한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이 어려워지면서 겪게 되는 학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급격한 사춘기로의 진행에서 비롯되는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한편 또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연령이므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상처받는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관계 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중학생,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1318온코칭’이라는 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진단검사, 온라인콘텐츠 활용 지원 및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은둔의 성향을 보이는 14~16세 연령의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계와 홍보가 필요하다.

17~19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연령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어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를 자원 연계해야 한다. 이 연령대에서는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입의 선택적 기로가 되기도 하며, 성인으로의 생애 이행을 위한 과업이 미래 설계에 대한 압박과 더해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의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체험과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연계를 고려하되, 이들이 갖는 은둔의 특성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4세 청소년의 문제는 미래의 불안감을 낮추고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연령대에서는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39.8%(은둔 경험의 주된 이유 1~3순위의 합산 비율)는 직업관련 어려움 때문에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어졌던 특성 즉, 청소년기의 은둔 경험이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 직업역량강화, 자립기술훈련, 직장체험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만난 상담가 중 일부는 일찍 부등교를 시작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과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성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는 학교를 떠난 후 성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육 시 거부감과 불편함, 부끄러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이후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상담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동반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라. 경제적 지원

용돈의 부족,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2.45점)가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1.9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다. 특히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모든 변수의 항목 중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응답의 분포로 본다면,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반수 가까운 49.1%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은둔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24.2%)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도 은둔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은둔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모든 변수의 범주를 통틀어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의 특성이 은둔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립 상태에 있거나 은둔하여 집을 잘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당사자인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33.7%)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욕구 1순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통찰과 해법이 필요하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사업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14조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에서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둔형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거쳐 판별되는 심각한 은둔 청소년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상태는 매우 위태로우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자체 위원회를 거치는 사례판정에 의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추가 지원이 허락된다면,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에서 주어지는 지원

과 중복·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준 조건 충족에 따라 자기계발, 도서구입, 문화활동, 의복구입 등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꿈울림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센터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급 조건 중 출석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장 전문가 중에서는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에서의 출석 인정을 보다 완화하여 인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완화가 필요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강원도, 전라북도의 김제시 및 군산시에서는 동기 부여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사회로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보완인 셈이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마.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 공간 조성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부분 중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욕구 조사에서 은둔성향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었다(4점 척도 상에서 모두 평균 2.51점). 은둔 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판별된 은둔형 청소년 49.4%가 비슷한 처지의 또래 모임에 대해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은둔형 청소년을 상담한 현장 전문가들은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은둔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등장했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와의 교류와 모임을 희망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과거 은둔의 경험을 갖게 된 이유에서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로 인해 은둔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구가 적고 동시에 인구 밀도가 낮은 도농 및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대인관계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또한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에 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9%가 인터넷 게임이라고 응답한 반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17.4%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보내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면,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은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에 먼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들의 성향과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가장 적절한 곳은 작은도서관과 주민복지센터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며, 혹은 농촌지역의 폐가 및 폐교의 리모델링을 생각해볼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사업 중 청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및 공간을 관리할 인력 1~2명이면 가능할 것이다. 은둔의 성향을 지니면서 부등교 및 부적응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면, 앞서 기술한 은둔형 여자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안전이 담보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기 이전에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도출되었다. 청소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담 대상 1순위는 '포레 친구'라는 사항을 반영한 '솔리언포레상담'처럼 사이버 공간 상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포레 상담자들이 소정의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포레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줌으로써 도움을 주고받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그대로 은둔형 청소년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비밀 보장이 유지되는 사이버 소통 공간에서 은둔형 청소년들이 포레 상담자들 혹은 은둔형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고, 라포를 형성한 후 오프라인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점진적인 이동과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안전한 공간에서 긍정적인 포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원해야 한다.

바. 거점기관의 역할

현재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며, 경기도에서는 2024년에 수원시와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원시가 186,120천원, 성남시가 70,400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은 각각 4명, 2명이다.

은둔 사업을 운영했던 재단 및 단체들의 경험적 목소리를 빌리자면, 가장 힘든 건 사업의 비지속성이었다.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의 지속성과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므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얻는 것은 서비스에 참여한 은둔 당사자라고 토로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은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나는데 질적조사의 대상자였던 은둔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시간을 주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서 은둔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에게서 상담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낮았던 것도 결국은 이들에게 특별한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적응 학생에게 주어지는 8~10회기의 상담으로 은둔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은둔형 사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속성'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앙정부 사업 또는 각 지자체의 작은 사업들이 종료된 이후에 서비스 참여자들은 어떻게 추적관찰 되는 것일까? 이들의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것일까? 생애 추적이 필요한 이들의 데이터는 사업 이후 그대로 폐기되는 것일까? 언젠가 다시 예산이 마련된다면 사업 대상자를 새로 발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일들을 맡을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추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의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은둔에 관심을 가졌던 선도적인 지자체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지원조례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넣었고, 그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따로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제9조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청소년 대상자에 한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 대상자일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 검증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모색하기보다는 거점기관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컨트롤 타워 혹은 거점 기관의 역할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첫째, 은둔형 청소년의 예방과 발굴,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이다. 아직은 일반인들의 은둔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저조하고, 대상자가 주변에서 발견되어도 어느 곳으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 종합적 홍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발굴된 은둔형 청소년의 데이터 관리, 사후 관리, 추적 관찰이다. 어렵게 발굴되어 눈에 띈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들의 행로를 면밀히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셋째, 은둔형 청소년의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 대상의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외에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예방 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센터 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점 기관의 시범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함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지속성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진 방지

여성가족부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가족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핵심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 중요함을 밝히고, 그에 따라 부모(가족) 상담 서비스 지원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상담지원 인력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등을 비롯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을 기본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립·은둔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상담과 교육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청소년 업무의 경험을 지녔다 하더라도 은둔형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스크리닝 척도를 거친 은둔형 청소년들은 상담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는 관련 사업의 종사자들이 특히 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은둔형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혹은 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학계 전공자 및 전문 상담사는 은둔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고, 은둔형 사업을 지속한 현장 전문가들은 경험치는 충분하지만 학문적·이론적 배경이 충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되, 전문성을 추구하는 안이다.

더불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안에는 게이트키퍼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살 이슈와 위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과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게이트키퍼 교육은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둔형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히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성교육도 매우 중요함을 앞서 언급하였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안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은둔형 청소년 대상 사업은 장기적인 서비스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앞서 언급하였다. 라포를 형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상담에 응하고, 연계된 서비스를 위해 집을 나설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가들의 경우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며, 문 밖에 자신이 있음을 알리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종사자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우려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이 필수적이다.

아.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

본 연구의 심층 면접에서 은둔을 벗어나게 된 계기를 살펴본 결과,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거나 해당 센터에 나가게 되면서 은둔생활을 청산했다는 사례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와 같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은둔생활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은둔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며, 이는 발굴을 통해 정책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현재의 삶과 생활이 힘들지만 상담 받을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정보의 부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31.6%)였으므로, SNS 상에서 대상자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의 지인들도 자주 홍보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야 한다.

아직은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자체 사업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자체 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기 년도 사업은 홍보에 주안을 두고, 예방과 발굴을 위해 2가지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①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과 콘텐츠 제작이다.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사업 대상자 중에 은둔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며, 그들을 서비스로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더불어 교육 또는 설명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② 학부모, 교사, 청소년 등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인식개선이다. 흔히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내 아이가 인터넷 중독 혹은 게임 중독으로 오판하는 경우이다.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 교사, 주변의 지인들이 청소년의 은둔적 성향을 간파할 수 있도록 판별과 인식,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홍보가 요구된다. 홍보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은둔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은둔은 사회로부터의 '병리적 이탈이 아니며',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완수해가는 과정 혹은 생애주기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다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다소 천천히 가되 함께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함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과 홍보는 영상, 웹툰,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하고, 기존의 홍보 채널 탑재, 그리고 버스과 정류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앞선 기술에서 거점기관의 역할을 시범적으로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관의 특성상 학교나 타 기관으로의 홍보에는 제약 및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식 개선과 발굴을 위해서는 교육청, 특히 Wee센터 및 Wee클래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내 대상자들을 1차적으로 발견하고 스크리닝 함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고, 경기도청-교육청-학교-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지역사회 연계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 (2022).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과 지각된 학교폭토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53(3), pp125-149
- 경기도청. (2024). 2024년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내부자료)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3). 202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 자료집.
- 관계부처 합동. (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 국회. (2022).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pp.6-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숙향, 맹진영. (2019). 동대문구의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맞춤형서비스 지원방안. 동대문구.
- 김여진, 강혜영. (202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문제중심대처에 의해 조절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제68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 김윤민, 김은정. (2023). 사회적 고립 완화 사업 구성요소와 성과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3), pp27-55.
- 김은영, 한승우. (2023).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객관적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4), pp195-204.
- 김재희. (2023).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경험. 2023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정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경제적 안정성,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3), pp315-337.
- 김찬호. (2023).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기독교사상*, 777, pp.23-32.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 김효숙, 김서연, 박희서. (2016).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정에서 사회적

-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1(10), pp.149-156.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73(2), pp57-81.
- 류주연, 성기옥,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pp47-71.
- 문정화. (2020). 상담을 거부하는 학업중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7(3), pp73-99
- 민기채. (202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 **GRE연구총논**, 25(3), pp1-22.
-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pp41-73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사전설명.
- 사이토 카즈히코 외. (2000). 은둔형 외톨이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후생노동과학 연구비 보조금 심리건강과학 연구사업**.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번역자료)
- 서승희. (2021). 후기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중년기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울시의회. (2023.8.14).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2), pp119-134.
- 여성가족부. (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11.21.). 제53회 청소년정책포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자료집.
- 오상빈. (2019).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혜영, 진종순. (2022). 경기도학교밖청소년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현경, 윤명숙. (2023). 코로나19 시기 청년이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정신과학과 사회복지**, 51(3), pp.132-156.
- 윤철경.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 윤철경.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예방을 위하여. **월간**

- 복지동향, 295, pp.5-12.
- 윤철경, 권세진, 박현정, 서희정, 이정현, 황현.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청년허브,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 이상인, 오미애, 김문길, 전진아.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은영. (2018).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21), 71-102.
- 이지민, 김영근. (2021).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pp61-91.
- 이진아, 서미아. (2022). 성인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30(4), pp.583-613.
-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정근하, 노영희. (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pp.229-250.
- 정근하, 노영희. (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6(2), pp.137-158.
- 정근하, 노영희. (2022).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pp.209-225.
- 정여주, 신윤정. (2022). 20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지표 개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정해숙, 문유경, 박성정, 이명선, 김승연. (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61(2). pp80-89.
-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pp127-152.
- 지승희, 배주미, 김태성, 김은영, 박재연, 허진석.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차주환, 이자영, 편여울강, 백정원, 어혜원. (2023).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피앰아이.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202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 개입을 위한 가이드.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은둔형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 가이드북.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부모교육프로그램: 지도자 지침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Kondo N, Sakai M, Kuroda Y, Kiyota Y, Kitabata Y, Kurosawa M. (2013). General condition of hikikomori (prolonged social withdrawal) in Japan: psychiatric diagnosis and outcome in mental health welfare cent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9(1), pp79-86.

2. 보도자료

- 경기도. (2020.7.1.). 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콕 프로젝트'. **보도자료.**
- 경기도. (2024.2.26.).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연구원. (2024.1.9.). 경기도 청년의 5%는 은둔형 외톨이... "지역 유대 강화하고, 1인 가구 및 가족지원 정책 활성화 해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3.3.7.). 첫"청년 삶 실태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3.5.9.).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자산 형성·복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3.12.13.). 정부 최초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지원방안 수립, 청년정책 보완방안 마련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3.5.3.). 보건복지부, 청년의 고립·은둔 경험 나누고 지원 방안 논의.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3. 7.17).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3.12.1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2.2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2.28.).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3). 젊은 한국, 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 청년 복지 5대 과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2.11.2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이해를 위한‘토론의 장’열린다.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3.4.1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3.11.20.). ‘은둔·고립형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4.3.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4.3.19.). 전국 4만 여개 편의점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찾는다.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4.4.4.). 고립·은둔 청소년 빈틈없이 찾아 돕는다. **보도자료**
- 청소년위원회. (2005.12.1). 전체 고교생의 2.3% 은둔형 부적응 성향, 고위험군도 0.3%에 달해. **보도자료**

3. 영상자료

- 나신하, 조영천. (2022.4.5.) [시사기획 창] 은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27191>